빌라 로보스: 기타 필사본 시리즈 전집

안드레아 비솔리(기타), 미나스 제라이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비오 메케티(지휘)

호평을 받았던 빌라 로보스의 기타 필사본 시리즈 전집 세트

불세출의 걸작을 비롯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빌라 로보스 기타 음악의 전모를 재조명한 '빌라 로보스의 기타 필사본' 시리즈가 세트로 발매되었다. 세고비아의 의뢰로 작곡된 '12개의 연습곡'의 오리지널 필사본을 비롯해, 빌라 로보스의 대표작인 '기타협주곡'과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중 아리아, 안드레아 비솔리에 의해 재탄생한 'Dime perché(이유를 말해 봐요)', 'Guia prático(실용 가이드)'에서 발췌한 14개의 민요, 새롭게 발굴된 '왈츠'에 이르기까지 호평과 인기를 얻은 음반들을 한 번에 갈무리할 수 있다. 소장할 만한 음반이다.

8.503289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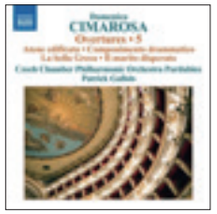
로드리고: 바이올린을 위한 실내악 작품집
에바 레온(바이올린), 올가 비노쿠르(피아노), 버지니아 루케(기타)
바이올린 작품에 담긴 로드리고의 숨겨진 매력
8.572648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1 & 3번
베레코프스키(바이올린), 첼초프(비올라), 엠마누엘 슈미트(첼로), 네볼신(피아노)
늦가을 우수에 드리운 슈만의 그림자
8.572798

드뷔시: 네손을 위한 피아노 음악 2집
올리비에 쇼쥐, 장-피에르 아르망고(피아노)
피아노로 편곡된 드뷔시의 대표작들
8.573463

호르헤 모렐: 기타 작품집
세릴 레픽-카야(기타)
북미의 세련미와 라틴 감성의 절묘한 조화
8.573514

프랑스 작곡가들의 색소폰 사중주 작품집
케나리 사중주단
색소폰의 다재다능한 매력에 대한 탐구
8.573549



도메니코 치마로사: 서곡 5집
파두리체 체코 체임버 필하모닉, 패트릭 갈루아(지휘)
치마로사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
8.573568

일본 기타 음악 2집
후쿠다 신이치(기타), 와타니 야스오(하모니카)
기타와 하모니카의 어울림이 보여주는 일본 기타 음악의 신선한 매력
8.573595

라이타: 관현악 작품 2집(교향곡 2번 & 변주곡, op.44)
페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니콜라스 파스케(지휘)
폭 넓은 장르의 작품에 배어있는 라이타의 교향악적 스케일
8.573644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전곡 5집(현악사중주 8번 & 현악오중주 2번)
카르페 디엠 현악 사중주단
고전적인 틀 안에 번뜩이는 영감,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전집 마지막 음반
8.573671

마이어베어: 가곡 2집
시반 로템(소프라노), 요나탄 제크(피아노)
마이어베어 생전의 명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
8.573696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피닉스뮤직프라자(종로)

아울로스 뉴스지 69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69호 | December 2016

*Key Issue

BR Klassik 얀손스만의 사운드로 그린 알프스의 전경 CD

빌라 로보스의 기타 필사본 시리즈 전집 3CDs

*Cover Story

래틀과 베를린필의 브람스교향곡 전집 180g 6LPs

Key Issue

BR Klassik 얀손스만의 사운드로 그린 알프스의 전경 CD 3
빌라 로보스 기타 필사본 시리즈 전집 33

Cover Story

래틀과 베를린필의 브람스교향곡 전집 180g 6LPs 4-5

CD

Accentus 6
BR Klassik 6
Capriccio 7
Cedille 7
Celestial Harmonies 8
Delphian 8
Dynamic 9
Globe Music 9
Gramola 10-11
Grand Piano 11-12
Kairos 13
KKV 13
Klanglogo 14
MD&G 14-17
Naxos 18-24
Ondine 25
OpusArte 25
Orlando 26
Paladino 26
Rondeau 27-28
Seattle Symphony Media 28
Solo Musica 29-30
Sono Luminus 30
Steinway & Sons 31
Toccata Classics 31
Tonkunstler 32
Two Pianists 32

DVD & Blu-ray

Accentus 34
Arthaus 35-38
BelAir 39-43
Belvedere 44
C Major 45-49
Dacapo 50-51
Dynamic 52
EuroArts 53-59
ICA Classics 59
Naxos 60-61
OpusArte 62-66
Aulos Media 67-68

LP

Accentus 69
Arthaus 70-71
Aurora 71
Berliner Philharmoniker 72
Farao 73
KKV 73
MD&G 74
Proprius 74-75
RCO Live 75
Solo Musica 76
Wiener Symphoniker 76
Silkroad 77-78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슈트라우스에 정통한 얀손스만의 사운드로 그린 알프스의 전경

웅장하고 웅혼한 필치로 그리는 알프스의 전경, '죽음과 변용'에 담긴 절정과 무한대로 치닫는 에너지는 슈트라우스에 정통한 '얀손스표 사운드'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보여준다. 2003/04 시즌부터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얀손스는 2021년까지 상임직을 유지할 예정. 지나온 여정에 놓인 주춧돌이자 향후의 진화를 예정하는 이정표와 같은 음반이다.

BR Klassik 900148 [CD]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죽음과 변용'

마리슨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2016년 가슈타익 실황)과
'죽음과 변용'(2014년 헤라클레스홀 실황)을 수록한 앨범.
이 교향악단 자체 레이블(BR클래식)을 통해 내놓은 얀손스와 악단이 쌓아온
신뢰와 호흡으로 만든 또하나의 역작이다.

[마리스 얀손스와 함께하는 BR Klassik Best Album]

900003
[2016카다로그 포함]
BR 클래식 하이라이트

900105
[SACD Hybrid]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900111
[SACD Hybrid]
브람스: 교향곡 2 & 3번

403571900100
[SACD Hybrid]
브루크너: 교향곡 7번

403571900101
[SACD Hybrid]
말러: 교향곡 7번

900112
[2CD for 1.5]
브람스: 교향곡 1 & 4번

900123
쇼스타코비치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900144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핀란디아, 카렐리아 모음곡

900146
랩소디 – 샤브리에, 거슈윈, 에네스쿠, 라벨, 리스트의 작품

900121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 바레즈: 이오니제이션

아날로그 레코드 방식(다이렉트 디스크 레코딩)으로 녹음 제작된 **래틀과 베를린필의 최신 브람스교향곡 전집 180g 6LP**

**지휘자의 사인과 발행 번호가 새겨진 한정반*

[다이렉트 디스크 레코딩이란?]

이 용어는 궁극의 아날로그 레코딩을 일컫는다. 저장 매체를 거치지 않고, 후처리 과정도 없이 마스터 디스크를 직접 커팅하여 아날로그 레코드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처음부터 끝까지 아날로그 공정을 지키는 것이 흔하지 않겠지만, 사이먼 래틀의 지휘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브람스 교향곡 전곡을 담은 이 레코드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제작된 한정반이다. 1882년 창단된 베를린 필하모닉은 요하네스 브람스와 특별한 관계였다. 브람스 자신이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석 지휘자가 임명될 때마다 브람스 교향곡 연주는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사이먼 래틀의 모범적인 지휘를 증명해 주는 이 음반을 특별히 다이렉트 레코딩 방식으로 제작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 음반의 또 한가지 특징은, 순수하게 한쌍의 스테레오 마이크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하모니 홀의 오리저널 음향을 놀랍도록 순수하게 담아냈다. 다이렉트 디스크 레코딩 방식으로 제작된 이 브람스 교향곡 전곡집은, 디지털 매체로는 전혀 제작되지 않았고, 브람스가 태어난 해를 기려 1833장만이 한정 LP로 제작되었다. 상세한 설명의 책자와 함께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제작된 이 음반은 LP 수집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베를린 필하모닉의 레코딩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브람스: 교향곡 전집 –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니커 6LP Set **[180g Vinyl]**
BerlinerPhilharmoniker BPHR160041

[수록곡]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73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교향곡 4번, E단조, 작품 98

[녹음]
2014년 9월 베를린 필하모니 라이브 녹음

[레코딩 사용기기]
다이렉트 디스크 레코딩
원-포인트 마이크 셋업
마이크 : 젠하이저 MKH 800 Twin, 블룸라인 배열 방식
디스크 커팅 레이드 : 노이만 VMS 80

[제작]
에밀 베를리너 스튜디오

[톤 마이스터]
라이너 마일리아드 (독일 그라모폰 황금시대의 녹음 엔지니어)

[보너스]
증명서 – 레코딩 프로듀서 라이너 마일리아드의 자필 서명
레코딩 세션 사진 2장 (C-타입 프린트)

[트레일러 주소]
https://youtu.be/qBf30BMjRAg

Accentus www.accentus.com

ACC30388

시마노프스키: '음악회 서곡' Op.12, 루토스와프스키: 첼로 협주곡, 교향곡 4번

알렉산더 리브라이히(지휘), 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 고티에 카퓌송(첼로)

20세기 폴란드 작곡가의 저력과 매력을 담다

폴란드의 작곡가 시마노프스키(1882~1937)와 루토스와프스키(1913~1994)의 서곡 · 협주곡 · 교향곡을 엮어 하나의 콘서트처럼 감상하도록 한 음반이다. 2011년 통영국제음악제(TIMF) 예술감독을 맡으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알렉산더 리브라이히는 2012년부터 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NOSPR)의 예술감독 · 상임지휘자로 재직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앙금이 남아 있던 전범국 독일의 지휘자에게 NOSPR은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 음반을 통해 그들이 지향하려는 음악의 폭과 해석의 넓이를 느낄 수 있다. 2016년 1 · 6월 NOSPR홀 실황 녹음. 두 작곡가의 복잡 미묘한 결을 살리는 선명한 음향이 인상적이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003

BR 클래식 하이라이트 [한정판, 2016년 카탈로그 포함]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 마리스 얀손스,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사이먼 래틀, 페터 딕스트라 등(지휘)

'BR 클래식' 최고의 순간들을 음반 한장에!

시벨리우스, 드보르작 작품을 비롯한 얀손스의 녹음들을 근간으로 '라인의 황금'(사이먼 래틀), '천지창조'(하이팅크), '메시아' & '베를린 미사'(딕스트라) 등 탁월함을 인정받은 BR klassik의 대표작들이 수록된 본 음반은 최고의 악단과 최고의 지휘자가 빚어내는 환상적인 조화의 정수만을 가렸다고 할 수 있겠다. 뮌헨 방송교향악단과 분덜리히의 미공개 레코딩이 담긴 분덜리히 서거 50주년 추모 음반의 단편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12월초 얀손스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세 번째 내한에 앞서 이들의 우흥(寓興)에 빠져 봄직하다.

900314

프리츠 분덜리히 – 뮌헨 방송교향악단과의 기억들

프리츠 분덜리히(테너), 뮌헨 방송교향악단,
아이히혼, 쾰러, 몰트카우 등(지휘) 외

프리츠 분덜리히 서거 50주년 추모앨범, 미공개 레코딩

시대를 초월한 미성, 프리츠 분덜리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고 있다. BR 클래식에서는 분덜리히 서거 5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뮌헨 방송교향악단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담긴 미공개 레코딩을 마련했다. 짧은 일생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1959년 1965년 사이의 녹음에서 분덜리히는 쿠르트 아이히혼, 한스 몰트카우 등의 지휘로 독일 레퍼토리를 노래한다. 청아하고 생명력 있는 목소리는 그 자체가 시나 다름없다. 세월에 비해 깨끗하면서도 운치 있는 음향 속에서 분덜리히의 매력은 그 시절 그대로 살아 숨쉰다.

Capriccio www.capriccio.at

C8007

바흐의 아들들의 음악: 교향곡과 협주곡들

게랄트 함비처(하프시코드), 콘체르토 쾰른, 베르너 에어하르트(지휘)

18세기 말 유럽 음악계를 이끌었던 네 명의 바흐 주니어들의 걸작

J.S. 바흐의 아들들은 바흐 가문의 빼어난 음악적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아버지의 후광에 가려지고 말았다. 그래도 그들에 대한 평가만큼은 빛나는 그들의 업적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WF 바흐는 아버지에 필적하는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되었으며, CPE 바흐는 18세기 후반 베를린 음악의 기틀을 세운 거장으로서 고전과 낭만음악의 절대적인 교과서였다. JC 바흐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음악가로서 헨델을 잇는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 독일 바로크 음악에서 절대 우위의 명성을 누렸던 콘체르토 쾰른이 연주했다.

C8009

베버: '마탄의 사수', '오베론', '오이뤼안테' 서곡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구스타프 쿤(지휘)

독일낭만음악의 정신적 지주였던 베버의 음악세계를 다각도로 접할 수 있는 기회

칼 마리아 폰 베버는 이탈리아에 의존했던 18세기 오페라 스타일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독일의 옛이야기를 소재로 독일어로 부르는 민족 오페라를 확립했으며, 바그너를 비롯한 독일 고유의 낭만 음악극의 효시가 되었다. 이 음반은 베버의 걸출한 오페라 서곡들 수록했다. 가장 유명한 '마탄의 사수'와 '오베론', '오이뤼안테' 등 베버의 대표작을 비롯하여, '아부하산', '프레치오사'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극음악의 서곡도 들어볼 수 있다. 또한 콘서트용 서곡인 '영혼의 지배자'와 '기념서곡' 등을 수록하여 베버의 음악세계를 다각도로 접할 수 있다.

C7210 [4CDs]

베토벤: 독주 협주곡 전곡

빈 캄머 오케스트라, 이자벨 반 쿠오렌(바이올린), 리안 슈테켈(첼로), 슈테판 블라다르(피아노 & 지휘)

화사한 연주 속에 숨쉬는 빈의 정취

베토벤의 독주협주곡만을 모아놓은 음반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빈 캄머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슈테판 블라다르가 피아노와 지휘를, 올해 초 피아졸라의 음반으로 찬사를 받았던 이자벨 반 쿠오렌이 바이올린을, 내한 공연과 C.P.E. 바흐 시리즈에서 보여준 명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리안 슈테켈이 첼로를 맡았다. 섬세하고 내밀함이 살아있는 악단의 연주와 이에 교감하는 독주자들의 호흡은 어울림의 묘미를 더한다. 화사한 연주 속에 숨 쉬는 빈의 정취는 매력적이기만 하다.

Cedille www.cedillerecords.org

CDR 90000167

모차르트: 현악 4중주 K.589 · K.590, 현악 5중주 K.406

도버 콰르텟(요엘 링크 · 브라이언 리(바이올린), 밀레나 파야로–반 데 슈타트 · 마이클 트리(객원)(비올라), 캄덴 쇼(첼로)

모차르트 현악 4 · 5중주의 밝은 기운과 단원들의 젊음이 만나다

모차르트의 현악 실내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현악 4중주 22번 K.589, 23번 K.590, 현악 5중주 K.406을 수록한 앨범으로, 작곡가의 밝은 기운과 단원들의 젊음이 한데 어우러지는 수작이다. 2008년에 창단된 도버 콰르텟은 2013년 밴프 국제실내악 콩쿠르 우승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해오던 이들이, 1989년 설립되어 미국 전역의 음악가들을 발굴 · 지원하는 세이디 레이블에서 낸 데뷔앨범이다. K.589와 K.590은 K.575와 함께 프러시아 황제에게 헌정하고자 했기에 '프러시안' 현악4중주 세트로 불린다. 황제가 아마추어 첼리스트였기에 첼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첼리스트 캄덴 쇼의 무게 중심이 멤버들의 쾌활한 연주에 중심을 딱 잡아준다.

Celestial Harmonies www.harmonies.com

14333-2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 리스트: 세 개의 장송송가
샨도르 팔바이(피아노), 헝가리 국립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졸탄 코치슈(지휘)
사색적이고 확신에 찬 오케스트라의 음향, 감성적인 피아노의 선율
졸탄 코치슈가 이끄는 헝가리 국립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샨도르 팔바이, 헝가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만남이 담긴 음반.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1번'과 리스트의 '세 개의 장송송가'가 수록되었다. 차분한 접근과 정밀한 해석으로 반향을 일으킨 전작 '말러 교향곡 1번'의 색채에 더해 확신에 찬 오케스트라의 음향과 감성적인 피아노의 선율이 인상적이다. 사색적인 음향 속에 흐르는 감수성 풍부한 선율은 브람스의 고뇌 속에서 탄생한 음표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음향은 리스트의 종교적 명상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Delphian www.delphianrecords.co.uk

DCD34184
천국이여, 내려오소서
샘 코어킨(색소폰), 시글로 데 오로, 패트릭 얼라이스(지휘)
재림절 안티폰을 중심으로 꾸민 폭넓은 합창음악의 스펙트럼
런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시글로 데 오로'는 현재 영국의 합창음악을 선도하는 젊은 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음반은 재림절 안티폰을 중심으로 프로토리우스와 조스캥 데 프레 등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을 비롯하여 현재 '여왕의 작곡가'의 호칭을 갖고 있는 주디스 위어까지 폭넓은 합창음악의 스펙트럼을 들려준다. '오 지혜여', '오 하나님', '오 예수의 뿌리여', '오 다윗의 열쇠여', '오 만왕의 왕이여', '오 임마누엘', '오 순결한 처녀여' 등 두운을 맞춘 독특한 프로그램이 눈에 띄며, 색소폰 독주가 더해져 색다른 사운드를 만든다.

Dynamic www.dynamic.it

CDS 7765 **[세계 최초 녹음]**
'딸들의 합창단'을 위한 아리아
수산나 아르마니(소프라노), 알도 오르비에토(피아노)
18세기 후반 베네치아의 거장들이 노래했던 최고의 기교
16~18세기 베네치아의 고아원은 오늘날 음악원과 유사한 기능을 했다. 특히 여학생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은 '딸들의 합창단'이라고 불렸으며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들의 레퍼토리는 성경에서 가사를 가져온 오라토리오와 칸타타, 모테트 등 다양하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모두 소화했다. 이 음반은 치마로사를 비롯하여 18세기 후반에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들의 오라토리오 중 주요 아리아들을 수록했다. 오페라 아리아 못지않은 최고의 기교를 요구하는 대단히 극적이며 화려한 노래들이다.

CDS 7766
이탈리아 오페라 서곡 2집: 19세기 초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파비오 루이지(지휘) 등
로시니와 벨리니, 도니제티의 명곡부터 마이어와 아리에타의 희귀곡까지
로시니와 벨리니, 도니제티는 오늘날에도 자주 상연될 정도로 오페라 역사에 중요한 작품을 여럿 남겼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작곡가들이 오페라에 매달리며 흥행을 꿈꿨다. 막을 여는 오페라의 서곡에는 이러한 열망이 서려있다. 로시니의 유명한 '알제리의 이탈리아인', '세미라미데'와 '데메트리코와 폴리비오'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그리고 벨리니의 '노르마', '카퓰렛 가와 몬테규 가', 도니제티의 '안나 볼레나' 등 명작들이 수록되었다. 당시 최고의 흥행사였지만 오늘날 잊힌 시모네 마이어와 아리에타 등의 희귀 녹음도 들을 수 있다.

Globe Music www.shakespearesglobe.com/globemusic

GM-001
선조들이 남긴 노래들
이안 보스트리지(테너), 슈페이 양(기타)
동양과 서양, 음악과 문학, 전통과 현대의 이상적인 조화
'글로브 뮤직'은 음악과 연극의 만남과 더불어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어울림을 아우르기 위해 런던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레이블이다. 17세기 양식으로 지어진 샘 워너메이커 플레이하우스의 맑은 음향과 고풍스런 분위기를 담고 있는 레이블의 첫 번째 음반에는 이안 보스트리지와 슈페이 양이 참여했다. 기타로 편곡된 중국의 전통 음악과 전통 음악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들은 다울랜드, 슈베르트 등의 가곡 사이에 간주곡처럼 흐른다. 슈테판 고스의 '시경'에서 동서양, 음악과 문학, 전통과 현대는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Gramola www.gramola.at

99082
골드마르크: 바이올린 모음곡 2번, 피아노 삼중주 1번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미할 칸카(첼로), 파벨 카슈파르(피아노)

완성도 높은 낭만적 음악세계를 그린 골드마르크의 걸작
칼 골드마르크는 헝가리 태생으로 빈에서 활동했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이다. 그는 오늘날 '바이올린 협주곡 1번'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오페라와 실내악, 성악 분야에서 성공적인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이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과 '피아노 삼중주 1번'은 골드마르크의 완성도 높은 낭만적 음악세계를 보여준다. 고전적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연배인 브람스와 견줄 만하다. '모음곡 2번'은 고전적인 구성을 갖춘 네 악장으로 오히려 소나타에 가깝고, '피아노 삼중주 1번'은 교향곡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적 규모를 갖추고 있다.

99112
경배: 바로크 시대의 성악과 기악 음악
니콜라스 스파노스(카운터테너), 판돌피스 콘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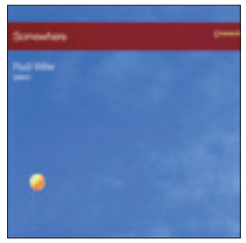
노래와 춤이 있는 비극을 노래한 상상의 음악극
바로크 시대에 기악은 성악의 모방이어야 했다. 그래서 성악과 기악은 가사의 유무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가치를 지향했다. 즉,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며 경건하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했다. '경배'라는 제목의 이 음반은 경건하면서도 슬픔이 깃든 17~18세기의 성악곡들과 기악곡들을 함께 묶어놓았다. 이 곡들은 지역과 활동 시기가 다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어우러지며, 마치 노래와 춤이 있는 비극을 노래한 상상의 음악극이 된다. 몬테베르디를 비롯하여 카발리, 슈멜처, 젤렌카, 바흐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음악이 가진 정신을 접하게 된다.

99118
요한 하인리히 포스의 시에 붙인 낭만 가곡
울프 베스틀라인(베이스 바리톤), 사샤 엘 무이시(피아노)

슈베르트를 비롯하여 멘델스존, 브람스 등 독일 낭만 가곡의 총집합
요한 하인리히 포스는 18~19세기에 활약했던 독일 고전작가이자 시인이었다. 오늘날 그는 '오디세이'와 '일리아드'의 독일어 번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생존 당시에는 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작곡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뢰베와 베버, 춤스텍은 '연가'라는 동일한 시에 음악을 붙였으며, 멘델스존은 '아침의 노래', '질문', '밤의 노래', '녹색에서' 등 여러 노래를 만들었다. 독일 가곡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첼터와 슐츠의 노래도 빼놓을 수 없으며, 횔티의 시를 포스가 수정한 버전에 붙인 가곡의 왕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노래도 수록했다.

99107
하이든: 현악사중주 27번/ 베베른: 현악사중주곡/ 데룽스: 삼부작 등
퍼시픽 콰르텟 비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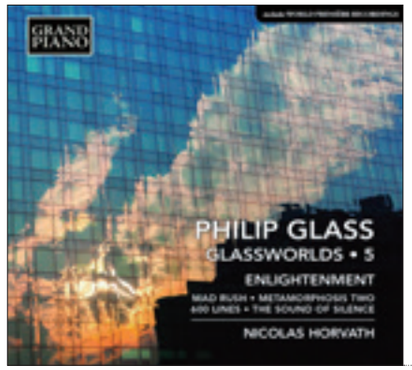
비엔나와 스위스를 중심으로 명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젊은 사중주단의 열정
'퍼시픽 콰르텟 비엔나'는 2015년 하이든 실내악 콩쿠르에서 1등과 함께 청중상과 특별상까지 거머쥐면서 명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음반에서 그들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빈악파의 거장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27번'을 연주했다. 40세에 작곡된 여섯 개의 '태양 사중주' 중 다섯째 곡으로, 퍼시픽 콰르텟은 청명하고 우아한 하이든 특유의 고전미를 훌륭히 표현했다. 또한 신빈악파를 대표하는 베베른의 '현악사중주곡'은 짙은 낭만적 서정미와 출중한 극적 표현력이 돋보이며, 이 음반의 타이틀이자 퍼시픽 사중주단에게 헌정된 데룽스의 '삼부작'도 흥미롭다.



99129
어딘가에: 거슈윈, 번스타인, 콜 포터, 루디 빌퍼 등의 재즈 작품
루디 빌퍼(피아노)

유럽 재즈 역사의 산 증인 루디 빌퍼가 연주하는 재즈의 미학
유럽의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인 루디 빌퍼는 비엔나의 세계적인 재즈 클럽 '패티스 살룬'에서 퀸시 존스, 듀크 엘링턴, 카운트 베이지, 루이 암스트롱, 아트 블래키, 스탠 게츠, 지미 히스, 엘라 피츠제럴드, 프리드리히 굴다 등 최고의 재즈 스타들과 연주했다. '패트조지 밴드', '레오 라이트-캐멀 존스 퀸텟', '베를린 드림 밴드' 등에서 활동했으며, 전설적인 '루디 빌퍼 트리오'를 결성했다. 이 음반은 그의 재즈곡들과 거슈윈, 스왈로우, 콜 포터, 번스타인의 명곡을 수록했다.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가 꿈꾸는 자유가 가득 담긴 아름다운 연주이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745 **[세계 최초 녹음 포함]**
글래스: 피아노곡 Vol. 5 – 매드 러시, 메타모르포시스 II, 600 라인, 침묵의 소리
니콜라 호르밧(피아노)

반복구조에 입각한 글래스의 다양한 스타일
필립 글래스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선구자로 음악사에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음악을 '반복구조의 음악'으로 불렀다. 이 말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을 포괄하기에 적절한 표현이다. 이 음반은 초기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600 라인〉(1967)을 비롯하여, 미니멀리즘에서 벗어난 〈매드 러시〉(1979), 카프카의 '변신'을 모티브로 하는 서정적 작품 〈메타모르포시스 II〉(1988), 그리고 폴 사이먼의 곡을 편곡한 〈침묵의 소리〉(2007)까지, 반복구조에 입각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준다.

GP714 **[세계 최초 녹음 포함]**
발라키레프: 피아노곡 Vol. 3
– 일곱 개의 마주르카, 소나티나, 둠카 등
니콜라스 워커(피아노)

러시아 로맨틱 피아니즘의 중심에 서있는 발라키레프의 명곡들
발라키레프는 림스키-코르사코프, 무소륵스키 등과 함께 러시아 5인조의 일원으로, 작곡보다는 지휘자로서 더욱 활발한 활약을 했지만 러시아 낭만 피아노 음악에는 큰 공헌을 했다. 발라키레프 피아노곡 3집은 40여 년 동안 작곡된 일곱 개의 마주르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마주르카는 폴란드의 춤곡이지만 슬라브적인 특징을 담아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유모레스크〉는 높은 수준의 기교를 요구하는 작품이며, 〈둠카〉는 전원을 노래하듯 평온하다. 〈소나티나 '스케치'〉는 발라키레프의 마지막 피아노곡으로, 노고장의 세련미가 가득하다.

GP695 **[세계 최초 녹음 포함]**
르 플랑: 피아노 전곡
기오르기오 코우클(피아노)

브르타뉴 지방에서 울려퍼진 근대 프랑스의 또 다른 목소리
폴 르 플랑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출신으로, 댕디와 루셀을 사사했으며, 사티와 졸리베를 가르쳤다. 그의 음악은 드뷔시의 인상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프랑스어와 매우 다른 브르타뉴어를 사용할 정도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브르타뉴 지방의 음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특징으로 르 플랑은 당대의 여타 작곡가와 구별되는 그만의 개성을 보여주었다. 이 음반에는 대표작인 〈7개의 어린이 소품〉과 당대 최고의 무희였던 아브릴을 그린 〈아브릴〉 등 밝고 리드미컬하면서 환상적인 화음을 가진 흥미로운 작품들로 가득하다.

GP 618
메트네르: 소나타-삼부작, 소나타-이야기, 소나타-목가
폴 스튜어트(피아노)

러시아 로맨틱 피아니즘의 보석, 메트네르의 소나타들
니콜라이 메트네르는 러시아 로맨틱 피아니즘의 절정기를 장식한 인물로, 특히 그의 열네 곡의 소나타는 빛나는 성과물이다. 20대 중반에 작곡한 '소나타-삼부작'은 괴테의 시 '화해'를 소재로 만든 곡으로, 사랑에 대한 열정과 고뇌, 구원을 노래한 시를 음악으로 풀이했다. '소나타-이야기'는 30대 초의 작품으로, 극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메트네르의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 중 하나이다. 영국 망명 중이던 50대 중반의 작품 '소나타-목가'는 메트네르 최후의 소나타로, 고전적인 악풍이 전하는 잔잔한 감동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GP 715
레바논의 피아노 음악
타티아나 프리마크-쿠리(피아노)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에서 탄생한 평화와 조화의 음악
우크라이나 출신의 타티아나 프리마크-쿠리는 레바논 발라만드 대학의 상주음악가이자 레바논 국립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남편인 후타프 쿠리를 비롯한 다섯 명의 레바논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했다. 레바논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만큼, 음악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쿠리는 "정치가 모든 꿈을 흐트러뜨리는 곳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겔리안의 '토카타'는 긴장감을 가득 안고 돌진하는 불안감이 인상적이다. 바즈는 인상주의의 개인적인 호의를 표시했고, 수카르의 고전적인 변주곡은 편히 즐길 수 있다.

GP 739 **[세계 최초 녹음]**
크반달: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
요아힘 크노프(피아노)

한 대의 피아노에 담아낸 노르웨이에서의 삶
요한 크반달은 중요한 20세기 노르웨이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은 튼실한 구조와 풍부한 음향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대중으로부터 쉽게 받아들여졌다. 20대 즈음에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파리와 빈에서 공부한 이후에는 버르토크와 스트라빈스키, 메시앙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 다시 노르웨이의 민속음악으로 돌아와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을 세우듯 구조가 탄탄한 작품들을 썼다. 이 음반은 21세 때의 '소나티나'부터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79세 때의 '댄스'까지 한 노르웨이인의 삶이 담겨있다.

Kairos www.kairos-music.com

001512KAI
암브로시니: 기타를 위한 노래책
알베르토 메시르카(기타)

한 대의 기타와 다섯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앙상블
클라우디오 암브로시니는 베니스 출신으로,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음악 부문 황금사자 상을 수상하는 등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전자음악과 오페라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는데, 이 음반은 그 중에서도 기타 작품을 수록했다. 기타리스트 알베르토 메시르카는 암브로시니가 설립한 엑스 노보 앙상블의 멤버로, 누구보다도 그의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주자이다. 현대적인 멜로디와 화음, 다양한 연주법이 만드는 독특한 음향, 그리고 재즈 풍의 자유로운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환상적이고 절묘한 세계이다.

KKV *(Kirkelig Kulturverksted)* www.kkv.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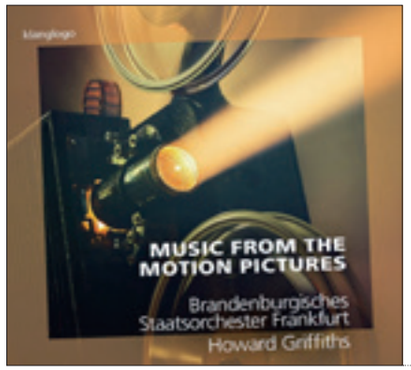
FXCD 416
셰르스티 클레비: 바로 지금
북구의 순수함과 어쿠스틱의 어울림, 자유로운 감성의 연금술사와도 같은 매력
코클리어 프리덤 앙상블(Cochlea Freedom Ensemble)과의 'Blogs on You'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자유로운 감성'의 소유자, 노르웨이 출신의 가수이자 작곡가인 셰르스티 클레비의 신보이다. 이번 음반에서는 트레이드 마크인 자유로운 감성에 더해 그녀의 고향인 노르-트뢰넬라그의 이미지와 어쿠스틱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풋풋하면서도 사색적인 느낌을 더하고 있다. 포크송, 락, 아방가르드적인 느낌을 넘나드는 셰르스티 클레비의 연금술사와도 같은 매력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소박하면서도 강력하다.

FXCD 424
마이티 샘 맥클레인: 타임 앤 체인지
– 마지막 레코딩

마이티 샘 맥클레인 생애 마지막 앨범
그레미상 노미네이트, 노르웨이 그레미상 등의 이력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야말로 일세를 풍미한 소울 블루스의 거장, 마이티 샘 맥클레인의 생애 마지막 녹음이 담긴 음반이다. 본 음반은 원래 샘 맥클레인의 멘토이자 친구인 리틀 멜빈 언더우드 헌정 앨범으로 기획되었지만, 2015년 6월 샘 맥클레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 음반이 되고 말았다. 음반 내내 특유의 호소력 짙은 중저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이 살아 있다. 그의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Klanglogo

www.klanglogo.de



klanglogo

KL.1518

황야의 7인, 007, 캐리비안의 해적, 쉰들러 리스트, 스타워즈 등 영화음악

프랑크푸르트 브란덴부르크 국립 관현악단, 하워드 그리피스(지휘)

독일의 정상급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유명 헐리우드 영화음악

영화음악은 음악의 한 장르로 정착한지 오래이며, 사운드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재탄생되는 것은 일반화되었다. 그럼에도 분명 헐리우드 영화음악을 독일의 정상급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미국의 대형 배급사인 20세기 폭스사의 팡파르를 시작으로, '황야의 7인', '007', '캐리비안의 해적', '쉰들러 리스트', '지옥의 묵시록', '스타워즈'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음악들이 펼쳐진다. 클래식 프로그램에 단골로 연주되는 에딘셀의 영화음악 '바르샤바 협주곡'도 웅장한 사운드로 들을 수 있다.

MD&G

www.mdg.de

DG

307 19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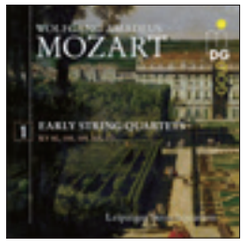
멘델스존 · 브람스 · 슈만 가곡 편곡집

크리스티안네 욀체(소프라노),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

독일 가곡에 화끈한 변화를 입히다

독일 작곡가 · 피아니스트 아리베르트 라인만(1936~)과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의 독특한 콜라보레이션 음반으로, 멘델스존 · 브람스 · 슈만의 가곡들을 소프라노와 현악 4중주가 함께 하도록 편곡했다. 라인만은 멘델스존 가곡 10곡 사이에 6곡의 간주곡을 작곡하여 넣었고, 크리스티안네 욀체는 브람스의 원선율을 노래하지만 현악 4중주는 무조성 화음으로 반주한다. 그래서 멘델스존 '노래의 날개 위에', 브람스 '오필리어의 노래'는 친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진다.

****MDG레이블의 간판스타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의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음반.**



307 1975–2

모차르트의 초기 현악 4중주: 1 · 2 · 6 · 9 · 10번

콘라드 무크 · 틸만 뷔닝(바이올린), 이보 바우어(비올라), 마티아스 무스도르프(첼로)

예술적 음악을 꿈꾸던 모차르트의 초기 현악4중주

1988년에 결성된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은 엠데게(MDG) 레이블에서 드보르자크, 멘델스존, 드뷔시, 포레, 캐플릿, 베토벤 등의 곡들을 녹음하고 있는 단골이다. 이 음반에는 모차르트의 초기 현악 4중주의 백미로 꼽히는 1번 KV80, 2번 KV155, 6번 KV159, 9번 KV169, 10번 KV170이 수록되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 초기 현악 4중주는 유희나 여흥의 음악에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순수음악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을 때다. 과다니니, 과르넬리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작곡가의 의지와 예술성을 꼼꼼히 그려낸다. 이들이 녹음공간으로 즐겨 찾는 마리엔뮌스터 홀의 음향은 현에 윤기를 가하는 또 다른 악기처럼 작용한다.

602 0145–2

고트르피트 호밀리우스의 모테트

막스 하르만(지휘), 라인 교회 합창단

18세기 모테트의 세련미와 미학을 담다

바흐의 아들 C.P.E 바흐와 동갑내기인 독일작곡가 고트프리트 아우구스트 호밀리우스(1714~1785)의 모테트를 수록한 앨범이다. 모테트는 르네상스 시대에 종교 음악으로 사용되던 무반주 다성 성악곡으로, 18세기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2중 합창, 엄격한 성악푸가 등을 통해 세련미를 갖추게 된다. 1977년에 창단된 라인 교회 합창단의 울림은 명료하고도 풍성하다. 잔향을 가득 채우는 공간감은 이 앨범의 별미다. 지휘자 막스 하르만는 그라우프너, 훔멜 등이 남긴 미사 · 오라토리오 · 칸타타를 발굴하여 음반에 담고 있는 명장답게 수연을 들려준다.

903 1916–6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 2번 · 3번

슈테판 샤르트(바이올린), 필리프 보글러(피아노포르테)

당대의 정서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바이올린 연주

브람스가 20대 청년기에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1번 Op.78, 2번 Op.100, 3번 Op.108을 담은 앨범이다. MDG 레이블에서 페르디난트 다비트, 텔레만, 요한 슈타미츠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발매해온 슈테판 샤르트는 당대연주와 시대악기에 능한 바이올리스트답게 브람스가 살았던 19세기의 정서와 느낌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내뿜는다. 필리프 보글러가 연주하는 1847년 산 피아노포르테도 이 느낌에 한 몫한다. MDG 레이블의 전매특허인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 방식은 브람스만의 풍성한 울림을 세심하게 담아낸다.

903 1972–6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외

게힐트 롬베르커(메조소프라노), 알프레도 페를(피아노)

맑고 슬픈 목소리로 부르는 말러의 가곡

말러의 '뤼케르트 시에 의한 5편의 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가 수록되었다.
독일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게힐트 롬베르커는 MDG레이블에서 알프레도 페를의 지휘로 말러 '대지의 노래'를 녹음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블롬슈테트, 리카르도 샤이, 헤르만 막스, 외르크 바이글 등 명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히고 있다. 롬베르커는 가사에 충실한 깊이 있는 이해와 말러의 가곡이 요구하는 음색을 소화해 내는 능력을 보여주어 듣는 사람에게 감사와 놀라움을 선사한다.

904 1974–6
브람스의 피아노 변주곡들
하디 라이트너(피아노)

브람스의 별미, 피아노 변주곡들 모음
브람스와 스타인웨이 피아노 모두 '함부르크' 태생이다. 1833년에 태어나 1897년에 사망한 브람스 시대에 만들어진 스타인웨이 1860년산 피아노로 듣는 5곡의 변주 독주곡을 담은 음반이다.
변주곡 Op.21 No.1 · 2,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Op.24,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5 Heft.1 · 2가 수록됐다(heft는 부 · 권 · 호 등을 뜻한다).
MDG레이블에서 쇤베르크, 브람스, 쇼팽 등을 담은 앨범을 발매하고 있는 하디 라이트너는 1981년 독일 태생의 피아니스트. 5집인 이번 앨범은 당대의 맛과 울림을 재연한 그만의 연주력과 역사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937 1966–6
베토벤: 교향곡 3번, 헌당식 서곡, '스테판왕' 서곡
슈테판 블루니어(지휘),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음향으로 승부 건 베토벤 교향곡 3번과 서곡들
1806년에 창단된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와 2008년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슈테판 블루니어는 MDG 레이블에서 18세기 작곡가 프란츠 단치부터 20세기의 말러를 녹음해왔다. 베토벤 교향곡 1번 · 5번 · 9번 수록한 음반에 이어 이번 음반은 교향곡 3번. 녹음 장소였던 본 베토벤홀의 음향과 MDG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의 조화는 음악에 청량한 울림과 화려함을 더하며 교향곡 3번을 희망과 밝은 분위기로 채색한다. 본 앨범에 별미격인 헌당식 Op.124 서곡과 '스테판왕' 서곡은 본문인 교향곡 3번을 위협할 정도로 연주나 음향 모두 맛깔 나는 부록이다.

940 1973–6
모차르트: 마술피리 외 4편의 오페라 아리아 모음
마리아 벤손(소프라노), 베르트랑트 드 빌리(지휘), 로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오페라의 각 장면을 생생히 떠올리게 하는 드라마틱한 목소리
로열 오페라, 라 스칼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 유럽의 주요 극장과 페스티벌에서 각광받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 소프라노 마리아 벤손의 앨범. '이도메네오'(4곡) '마술피리'(1곡) '돈 조반니'(2곡) '피가로의 결혼'(2곡) '코지 판 투테'(2곡)의 주요아리아를 모은 것으로 벤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드라마틱함이 녹아든 매력적인 목소리로 오페라의 각 장면을 연상케 하며, 베르트랑트 빌리가 지휘하는 로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호흡에서 벤손 특유의 긴장과 이완의 미학이 느껴진다.

947 1920–6
브람스의 세속 합창 '사랑의 노래' 왈츠 외 3곡 모음
외르크 스트라우베(지휘), 북독일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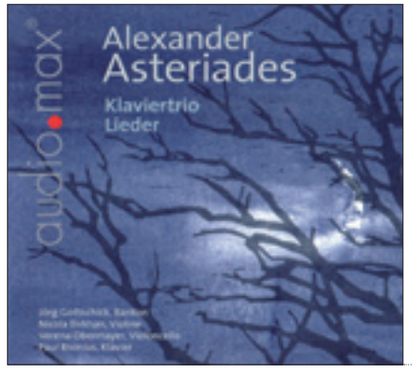
브람스 세속 합창곡의 매력과 재미
브람스의 작품 목록을 보면 기악곡 못지않게 성악곡도 많다. 이 앨범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던 브람스 합창의 진수가 담겨 있다. 합창과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사랑의 노래' 왈츠 Op.52와 '새로운 사랑의 노래' 왈츠 Op.65, 아카펠라인 다섯 개의 가곡 Op.104와 세 개의 노래 Op.42가 수록되었다. 1981년 창단된 북독일합창단과 합창지휘의 스페셜리스트 외르크 스트라우베의 궁합, MDG 레이블의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 방식이 청량한 울림을 자아낸다. 42초부터 5분에 이르는 짧은 곡들로 41트랙 구성. 충실한 독일어 가사지가 수록됐다.

948 1937–6
휴고 콘의 실내악 3곡
다비드 고롤(바이올린 · 리더), 베롤리나 앙상블

19~20세기 독일 실내악의 무게
2009년,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고롤이 창단한 베롤리나 앙상블은 MDG 레이블에서 19~20세기의 독일작곡가 하인리히 호프만, 바우스네른, 루도르프 등의 실내악을 녹음해온 바 있다. 동향 선배들의 업적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는 이들의 이번 선택은 휴고 콘(1863~1932)이 남긴 3곡의 실내악이다. 13명의 관 · 현악기 · 피아노 주자들이 함께 한 이번 앨범에는 피아노 5중주 Op.39, 관 · 현악기를 위한 8중주 Op.26, 현을 위한 5중주 Op.28이 수록됐다. 엠데게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의 울림과 잔향은 휴고 콘만의 진중한 음악에 무게를 더한다.

949 1981–6
바흐: 하프시코드를 위한 토카타 BWV910~916(막스 레거 오르간 편곡 연주곡집)
크리스토프 쇤(파이프오르간)

오르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위한 바흐와 막스 레거의 합작!
바흐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토카타는 막스 레거(1873~1916)의 편곡에 오르간 곡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같은 종에 속하는 건반악기로의 단순한 편곡이 아니라 오르간의 특성과 사운드를 고려한 완벽한 재탄생이다. 하프시코드를 위해 태어난 토카타 BWV910~916을 연주하는 오르가니스트 크리스토프 쇤은 함부르크의 성미카엘 성당의 전속 연주자이다. '칼 필립 엘마누엘 바흐'라 이름 붙은 오르간 소리는 MDG 레이블 특유의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 기법과 만나며 듣는 이를 유럽 고(古)성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Audiomax 707 1979–2
알렉산더 아스테리아데스의 기악 · 성악 작품집
이콜라스 비르한(바이올린), 베레나 오베르메이어(첼로), 폴 리비뉘스(피아노), 외르크 고트슈니크(바리톤)

전위보다 낭만을 택한 21세기 작곡가의 초상
1941년에 태어난 알렉산더 아스테리아데스는 작곡가, 지휘자, 음악학자로 활동 중이다. 이 앨범은 그의 작품을 모은 작품집이다.
5악장 구성의 피아노 3중주, 괴테 · 브레히트 등의 문학을 가사로 한 12곡의 가곡이 담겨 있다. 순수 기악곡과 성악곡을 통해 한 작곡가의 세계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음반이다. 21세기 현대음악의 전위적 성격보다 작곡가가 고집하는 특유의 낭만성과 내면성이 돋아난다.
특히 바리톤 외르크 고트슈니크가 부르는 가곡 '밤의 노래들'은 21세기에 다시 태어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같다.

Naxos

www.naxos.com

8.555533

슈포어: 교향곡 3번 & 6번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알프레드 발터(지휘)

작곡가의 색채와 메세지를 자신있게 표현한 역작

슈포어의 교향곡 3번은 자신의 색채를 과감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베토벤 교향곡 3번에 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바이올린 협주곡과 이전에 작곡된 교향곡의 성공에 힘입어 완성된 교향곡 3번은 이후 슈포어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교향곡 6번은 바흐와 헨델,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 슈포어 당시에 이르는 120여년의 음악사를 조망하는 야심작이다. 작곡가의 자신감을 반영하듯 악단의 연주도 에너지가 넘친다. 묵직한 필치와 넓은 스케일 속에서 드러나는 슈포어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8.573325

샹소니에 코르디포름(발췌)

마크 루윈 & 앙상블 레오네스

타락한 성직자가 엮은 눈부신 사랑 노래집

《샹소니에 코르디포름(Chansonnier Cordiforme, 심장 모양의 노래집)'은 15세기 중엽(1477년 경) 편찬된 세곡 가곡집이다. 총 43곡의 세속 가곡이 수록된 본 노래집은 하트 형태로 제본되어 있는데, 노래집의 제목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타락한' 성직자로 알려진 장 드 몽세뉴에 의해 편찬된 《샹소니에 코르디포름》의 수록곡들은 노래집의 장정만큼이나 우아하고 아름답다. 질 뱅슈아, 오케켐, 뒤파이의 작품 등 눈부신 음향 속에서 메아리치는 《샹소니에 코르디포름》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8.573354

라벨: 어미 거위 & 라벨 · 페루 · 이베르 · 풀랑 외: 잔의 부채

르와르 국립 오케스트라, 존 액슬로드(지휘)

병풍화를 감상하는 듯한 다양한 매력

라벨의 대표작인 '어미 거위'와 라벨을 비롯한 프랑스 6인조 일부, 이베르 등 당시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잔의 부채'가 수록된 음반이다. 작품의 제목 중 '잔'은 당시 어린이 발레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파리 사교계의 유명인사, 마담 잔 듀보를 가리킨다. 잔 듀보는 그녀와 친분이 있는 10명의 작곡가에게 부채를 선물하고, 그녀의 학생들을 위해 악보가 부채 한 면에 들어갈 정도의 짧은 작품을 작곡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당시 파리 음악계의 축약판이라 할만한 '잔느의 부채'는 병풍화를 감상하는 듯한 다양한 매력을 뽐낸다.

8.573409

21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 2집

아담 레빈(기타)

21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의 정수를 담은 시리즈 2집

'클래시컬 기타 매거진'과 '어메리칸 레코드 가이드' 등에서 호평을 받은 1집 음반(Naxos 8.573024)에 이어 21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의 정수를 담은 시리즈 2집 음반이다.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을 재해석한 블라다의 '카프리초스 11번(부제 : 그라나도스의 추상)'을 비롯해 음반 수록곡 대부분이 세계 최초로 녹음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란한 기교로 작품의 매력을 살리고 있는 아담 레빈의 연주는 1집의 명성을 이을 만하다. 새롭게 조명되는 21세기 스페인 기타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2개의 칸타레스'(10–11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525

에르빈 슐호프: 실내악 작품집

스펙트럼 콘서트 베를린

1924–27년 사이에 작곡된 슐호프의 실내악 작품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예견한 듯한 작품("다섯 개의 피토레스크" 중 '미래', 1919)으로 유명한 프라하 출신의 작곡가 슐호프의 실내악 작품 음반이다. 알반베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리드미컬한 중독'이라고 말한 '5개의 재즈 연습곡', 큐비즘의 영향이 나타나는 '6중주' 등 수록곡들은 모두 1924년에서부터 1927년 사이에 작곡된 작품들로써 슐호프의 창작이 절정에 이르렀던 3기(1923–1932)에 해당한다. 현대 음악 작품들에서 주목할 만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스펙트럼 콘서트 베를린의 정교함과 에너지 넘치는 연주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8.573536

말러: 대지의 노래 &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쇤베르크 편곡버전)

버지니아 아츠 페스티벌 첸버 플레이어즈, 조앤 팔레타(지휘) 등

쇤베르크가 편곡한 말러의 가곡들

쇤베르크는 1918년 빈에서 사적인 연주협회를 조직했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말러의 가곡들은 이 모임에서 연주하기 위해 쇤베르크가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한 것이다. 올해 발배된 스트라빈스키의 '병사 이야기'(Naxos 8.573537 & 8.573538)에서 각별한 인상을 남긴 조앤 팔레타가 지휘하는 버지니아 아츠 페스티벌 첸버 플레이어즈는 관현악 버전과 맘먹는 스케일과 정교한 뉘앙스를 특징으로 하는 편곡 버전의 묘미를 훌륭하게 살리고 있다. 마지막 트랙의 여운은 곁에 붙잡아두고 싶은 가을날의 한 순간과도 같다.

8.573539

투리나: 피아노 작품 12집

조르디 마소(피아노)

일상의 인상과 베케르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

2004년부터 시작된 카탈루냐 출신 피아니스트 조르디 마소의 투리나 피아노 음악 전곡 프로젝트 12번째 음반이다. 마드리드의 이웃집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작곡된 '내 작은 모서리의 기억'은 일상에서 얻은 다양한 인상을 표현했던 작품들의 연장선 위에 있다. 구스타보 아돌포 베케르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은 본 음반만의 매력이다. 베케르의 작품에 표현된 고독, 환희, 고뇌의 극적인 표현들은 투리나 특유의 묘사적인 인상으로 채색되어 있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전통 음악의 선율로 구성된 '크리스마스'가 특히 인상적이다.

8.573067

랄로: 스페인 교향곡 & 마넨: 스페인 협주곡

티안와 양(바이올린), 바르셀로나 심포니 & 카탈루냐 내셔널 오케스트라(연주), 다렐 앙(지휘)

스페인의 정취와 열정이 몸에 밴 듯한 바이올린의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연주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티안와 양은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많은 폭 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미 출시된 스트라빈스키의 '병사 이야기'(Naxos 8.573537 & 8.573538)이어 그녀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음반이 발매되었다. 본 음반에는 내한 공연을 통해 선보인바 있는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을 비롯해 호안 마네의 '스페인 협주곡'이 수록되었다. 사라사테의 음반에서 보여준 스페인 레퍼토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함께 스페인의 정취와 열정이 몸에 밴 듯한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연주가 인상적이다. 주목할 만한 음반이다.

8.573565

바인베르크: 관현악 모음곡 & 교향곡 17번(기억)

시베리안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블라디미르 란데(지휘)

쇼스타코비치의 색채 & 전쟁의 기억

바인베르크의 22개 교향곡 중 17–19번은 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작품이다. 전쟁 3부작이라고도 일컫는 세 작품 중 첫 번째 작품인 교향곡 17번은 러시아의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의 시에서 따온 '기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전쟁의 상흔을 겪었던 바인베르크의 기억과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한편, 1950년에 작곡된 '관현악모음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연상시킨다. 내한을 앞두고 있는 시베리안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역동적인 음향과 바인베르크의 교향곡을 녹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란데의 역량을 느껴볼 수 있다.

*** '관현악모음곡'(1–5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591

아르멘 도네옌의 기타 독주 작품집

아르멘 도네옌(기타)

작품의 색채를 드러내는 진중한 접근

6세 때 부터 기타를 시작한 아르멘 도네옌은 2012년 아이버 메어랜츠 국제 기타 콩쿠르 1위, 2015년 GFA(Guitar Foundation of America Competition) 2위 입상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실력을 입증한 차세대 기타 비르투오소이다.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쿠바, 브라질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기타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에서 그는 진중하게 각각의 작품이 갖고 있는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연주자의 기교는 물론 진중한 접근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수준 높은 음악적 역량도 느껴볼 수 있다.

8.573669

로브샨 마메트쿨리에프의 기타 독주 작품집

로브샨 마메트쿨리에프(기타)

로브샨 마메트쿨리에프의 미켈 피타루가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2012년 GFA 1위 입상과 입상 기념 음반(Naxos 8.573591), 내한 공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기타리스트 로브샨 마메드쿨리에프의 낙소스 레이블 2번째 음반이다. 이번 음반은 2015년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 미켈 피타루가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이기도 하다. 작품에서 받은 영감과 서정이 돋보이는 바흐의 '샤콘느'(8번 트랙)는 마메르쿨리에프 자신이 직접 편곡한 것으로써 작품으로 부터 받은 영감과 서정이 각별하게 다가온다. 월튼 등 다른 수록곡 역시 연주자의 능력과 가능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8.573701

하이든: 현악사중주(Op.1–1, Op.33–5, Op.77–3)

골드문트 현악사중주단

하이든 현악사중주의 스펙트럼을 명쾌하게 조망하는 말끔한 연주

2014년 쉰필드 국제 현악 콩쿠르 1위, 2015년 바이에른주 영 아티스트 상을 수상한 골드문트 현악 사중주단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중주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골드문트 사중주단의 낙소스 레이블 데뷔 음반인 본 음반에는 하이든 현악사중주 초기, 중기, 후기 작품에서 하나씩 선택한 작품들('사냥', '안녕', '롭코비츠')이 수록되어 있다. 골드문트 사중주단은 말끔한 연주로 하이든 현악사중주의 스펙트럼을 조망하고 있다. 가벼운듯 하나 짜임새 있는 연주 속에서 작품의 색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8.660144–45

그라나도스: 마리아 델 카르멘(카르멘파의 마리아, 막스 바르가도 다르만 교정판)

벨라루스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막스 브라가도 다르만(지휘) 외

그라나도스의 성공작이자 각별한 애정이 담긴 작품

그라나도스 서거 200주년을 기념해 낙소스 레이블에서는 그의 작품들을 조명하는 음반들을 출시하고 있다. 본 음반에 수록된 '마리아 델 카르멘'은 그라나도스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품인 '고에스카스(Goyescas, 고야의 사람들)'에 가려졌지만, 그라나도스의 성공작이자 사망 당시 악보를 지니고 있던 작품이기도 했다. 작품 내용은 무르시아의 물이 부족한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여인(마리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농부(펜초)와 부자(하비에르)의 삼각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스페인의 정취,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폭넓은 오케스트레이션이 인상적이다.

8.503289

빌라 로보스: 기타 필사본 시리즈 전집

안드레아 비솔리(기타), 미나스 제라이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비오 메케티(지휘)

호평을 받았던 빌라 로보스의 기타 필사본 시리즈 전집 세트

불세출의 걸작을 비롯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이르기까지 빌라 로보스 기타 음악의 전모를 재조명한 '빌라 로보스의 기타 필사본' 시리즈가 세트로 발매되었다. 세고비아의 의뢰로 작곡된 '12개의 연습곡'의 오리지널 필사본을 비롯해, 빌라 로보스의 대표작인 '기타협주곡'과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중 아리아, 안드레아 비솔리에 의해 재탄생한 'Dime perché(이유를 말해 봐요)', 'Guia prático(실용 가이드)'에서 발췌한 14개의 민요, 새롭게 발굴된 '왈츠'에 이르기까지 호평과 인기를 얻은 음반들을 한 번에 갈무리할 수 있다. 소장할 만한 음반이다.

8.572798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1 & 3번

베레코프스키(바이올린), 첼초프(비올라), 엠마누엘 슈미트(첼로), 네볼신(피아노)

늦가을 우수에 드리운 슈만의 그림자

브람스의 실내악 작품들에서 슈만의 영향은 그의 오케스트라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베토벤의 영향만큼이나 크다. 특히, 브람스 실내악 작품의 원숙미를 보여주는 피아노 사중주에 드리운 슈만의 그림자는 넓고도 짙다. 1악장 후반부,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 한 대목을 연상시키는 1번이나 브람스의 이미지 자체를 표현한 듯한 3번 모두 슈만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작품들이다. 연주자들은 절제된 감성으로 작품에 접근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짜임새를 유지하는 피아노의 역할이 특히 돋보인다. 나머지 한 작품(2번)을 기대하게 되는 음반이다.

8.573463

드뷔시: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음악 2집

올리비에 쇼쥐, 장–피에르 아르망고(피아노)

피아노로 편곡된 드뷔시의 대표작들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드뷔시의 작품을 조명하는 시리즈 2집에는 라벨이 편곡한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드뷔시 자신이 편곡한 '바다', 드뷔시의 막역한 친구인 앙드레 카플레가 편곡한 '영상'이 수록되었다. 화이트아웃을 연상시킬 만큼 숨 막힐 듯 관능적인 빛의 흐름, 작품 곳곳에 스며있는 대상의 세밀한 묘사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낸 피아노 편곡 버전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1집(NAXOS 8.572979)에 이어 올리비에 쇼쥐와 장–피에르 아르망고의 호흡은 정교하다. 감상을 권한다.

8.573514

호르헤 모렐: 기타 작품집

세릴 레픽–카야(기타)

북미의 세련미와 라틴 감성의 절묘한 조화

아르헨티나 출신의 비르투오소 기타리스트 호르헤 모렐의 기타 작품집이다. 호르헤 모렐은 연주자뿐만 아니라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음반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브라질 무곡'을 비롯한 그가 작곡한 기타 음악의 정수가 담겨 있다. 터키 출신의 기타리스트 세릴 레픽–카야는 2012년 조앤 팔레타 기타 콩쿠르 우승, 같은 해 GFA 준우승을 차지한 촉망받는 연주자이다. 북미의 세련미와 라틴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호르헤 모렐의 매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레픽–카야의 똘망똘망한 연주가 인상적이다.

***4번 트랙(또 다른 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 5–6번 트랙(전주곡과 댄스), 14번 트랙(나의 동네), 15번 트랙(크리욜의 지그), 세계 최초 녹음**

8.573549

프랑스 작곡가들의 색소폰 사중주 작품집

케나리 사중주단

색소폰의 다재다능한 매력에 대한 탐구

색소폰은 1846년 벨기에 출신의 아돌프 색소가 발명해 파리에서 특허를 얻은 이후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악기 중 하나가 되었다. 색소폰은 발명 당시 프랑스 작곡자들에게 특히 인기를 얻었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은 악기가 등장했을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색소폰의 다양한 가능성에 천착한 프랑스 작곡가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케나리 사중주단의 재기발랄한 연주는 색소폰이 갖고 있는 서정과 위트를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색소폰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탐구하고자하는 케나리 사중주단의 목표와도 닿아있는 음반이다.

8.573568

도메니코 치마로사: 서곡 5집

파두리체 체코 체임버 필하모닉, 패트릭 갈루아(지휘)

치마로사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

로시니가 등장하기 이전,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오페라 작곡가 중 한 사람인 치마로사의 서곡을 담은 시리즈 5번째 음반이다. '좌절된 모략'과 '유명해진 농촌 소녀'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에 속하는데, 당시 전 유럽의 무대에 (때로는 작품 이름을 바꾸어) 올라갔던 치마로사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상트페테스부르크의 예카테리나 2세 궁정에 봉직할 당시 작곡된 '아테네의 건국'과 루이 16세의 황태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작품으로써 베르니 추기경에게 위촉받은 3막의 칸타타는 궁정에서의 활약상을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8.573595

일본 기타 음악 2집

후쿠다 신이치(기타), 와타니 야스오(하모니카)

기타와 하모니카의 어울림이 보여주는 일본 기타 음악의 신선한 매력

일본 기타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는 시리즈 세 번째 음반으로서 기타와 하모니카의 어울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요시마츠 타카시의 '잊혀진 천사'에서 생황을 연상시키는 하모니카와 전통 선율을 연주하는 기타의 세련된 어울림은 본 음반의 백미이다. 토루 타케미츠의 '기타를 위한 12개의 노래' 중에서 발췌한 거쉰의 '서머타임' 등 3곡과 더불어 레오 브라우어가 편곡한 미키 미도루의 '고토를 위한 발라드 1번'에서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일본 기타음악의 색다른 매력도 만끽할 수 있다.

***4–5번 트랙(벌거벗은 섬), 6번 트랙(노래집), 8번 트랙(찰나), 9번 트랙(기도), 10번 트랙(가을 노래) 세계 최초 녹음**

8.572648

로드리고: 바이올린을 위한 실내악 작품집

에바 레온(바이올린), 올가 비노쿠르(피아노), 버지니아 루케(기타)

바이올린 작품에 담긴 로드리고의 숨겨진 매력

생전에 200여개의 작품을 남긴 로드리고였지만, 기타와 피아노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발렌시아의 향수가 녹아있는 로드리고의 하나뿐인 바이올린 독주 작품, '카프리치오' 등 본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 작품들에는 기타와 피아노 작품 못지않게 로드리고만의 서정과 독창성이 집약되어 있다. 작곡가를 대표할 만한 악기인 기타와 피아노의 어울림까지 더한 본 음반은 로드리고 음악의 스펙트럼을 고루 머금고 있다 할 수 있겠다.

8.573644

라이타: 관현악 작품 2집(교향곡 2번 & 변주곡, op.44)

페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니콜라스 파스케(지휘)

폭 넓은 장르의 작품에 배어있는 라이타의 교향악적 스케일

바르톡, 코다이와 더불어 20세기 헝가리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자치하고 있는 라이타의 관현악 작품 2집에는 생전에 발표되지 않다가 1988년에 이르러서야 초연된 '교향곡 2번'과 40여분에 이르는 대곡인 '변주곡(op.44)'이 수록되어 있다. '교향곡 2번'은 1차 세계대전의 음울한 기억을, T.S. 엘리엇의 시극 《대성당의 살인》의 부수 음악으로 작곡된 '변주곡'은 장대한 스케일 속에 원작의 서사성을 머금고 있다. 폭 넓은 장르에 걸쳐 교향악적 스케일을 능숙하게 다루었던 라이타 만의 색채를 느낄 수 있다.

8.573671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전곡 5집(현악사중주 8번 & 현악오중주 2번)

카르페 디엠 현악 사중주단

고전적인 틀 안에 번뜩이는 영감,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전집 마지막 음반

실내악 작품에 능숙했던 작곡가 타나예프를 조명했던 시리즈 마지막 음반에는 현악사중주 8번과 현악오중주 2번이 수록되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현악사중주 8번은 2악장의 로맨틱한 분위기, 마지막 악장의 푸가가 특히 인상적이다. 현악사중주 5번과 6번 사이에 작곡된 현악오중주 2번은 그의 후기 현악사중주 작품들과 견줄만한 선율미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걸작이다. 카르페 디엠 사중주단의 연주는 고전적인 틀 안에 번뜩이는 영감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감상을 권한다.

8.573696

마이어베어: 가곡 2집

시반 로템(소프라노), 요나탄 제크(피아노)

마이어베어 생전의 명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위그노 교도', '악마 로베르' 등 그랜드 오페라로 유명한 마이어베어는 '세미라미데' 등 이탈리아 오페라 외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로 이루어진 가곡들도 다수 작곡하였다. 1집(Naxos 8.572367)의 26곡에 이어 이번 음반에는 종교적인 테마, 사랑의 기쁨과 슬픔, 목가적인 이상향을 노래하는 전원시를 소재로 작곡된 18곡이 수록되었다. 마이어베어 30대 후반에서부터 60대 중반까지 기간에 걸쳐있는 그의 가곡들은 살롱이나 가정에서 연주되었던 작품들로서 마이어베어가 생전에 누렸던 대중적인 명성을 방증하고 있다.

***8번 트랙(베네치아), 14번 트랙(가난한 루이즈), 15번 트랙(감미로운 순간), 18번 트랙(무리요 : 발라드) 세계 최초 녹음**

8.573715

휘트번: 캐롤레 – 크리스마스를 위한 합창

웨스트민스터 윌리엄스 보이스, 제임스 조던(지휘)

영국과 미국의 크리스마스 전통, 중세 캐롤의 융합으로 탄생한 독창적인 작품

현대 영국을 대표하는 합창곡 작곡가 제임스 휘트번의 '크리스마스를 위한 합창'은 2004년 로체스터 성당 설립 1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된 '미사 캐롤레'를 중심으로 영국(아홉 개의 일과와 캐롤 축전)과 미국(성탄 전야 성서낭독과 캐롤 콘서트)의 크리스마스 전통 그리고 중세 캐롤의 요소를 융합하고 있다. 경건함과 화려함을 두루 갖춘 '크리스마스 음악'은 중세 음악에 대한 휘트번의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현대 영국 합창 음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의 독창적인 면모를 입증하는 작품이다.

***1번 트랙(오라 빛이여), 9번 트랙(동방박사들의 꿈), 15번 트랙(위대하고 장대한 기적) 세계 최초 녹음**

8.573719
셉투라: 금관칠중주로 연주하는 크리스마스 음악
셉투라(연주)

금관 칠중주의 무한한 잠재력
금관칠중주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셉투라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다시 한 번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음반에 담았다. 약 450년에 걸쳐있는 레퍼토리의 폭은 1집에서부터 4집을 아우르고 있는데, 특히 원곡의 묘미와 금관의 매력을 살린 뛰어난 편곡은 오케스트라와 합창 버전 못지않은 감흥을 선사한다. 어느 작품보다 금관 악기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음악의 장점을 살린 음반이라 할 수 있겠다. '장미 한 송이가 피어 났네'(7번 트랙)와 헨델의 '메시아'(발췌, 19–21번 트랙), '고요한밤 거룩한 밤'(22번 트랙)이 인상적이다.

8.573725
아나스타샤 리지코프: 피아노 연주집
아나스타샤 리지코프(피아노)

2015년 하엔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2015년 16세의 나이로 57회 스페인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아나스타샤 리지코프의 기념 음반이다. 그녀는 우승 당시 모든 특별상(로사 사바테르상, 청중상, 현대 음악상)을 동시에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리그의 '피아노 소나타'의 아찔한 타건도 인상적이지만, 로사 사바테르상 수상자답게 본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도 알베니즈의 '이베리아 모음곡 2권' 중 트리아나와 하엔 지방의 전통 음악을 모티브로 작곡된 후안 크루즈–게바라의 '막달라 마리아의 꿈'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다.

8.660394–97
바그너: 발퀴레
스튜어트 스켈턴(지그문트), 하이디 멜턴(지글린데), 마티아스 괴르네(보탄), 페트라 랑(브륀힐데) 외,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프 판 즈베덴(지휘)

너무나도 인간적이기에 더욱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연주
2018년 시즌부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게 된 야프 판 즈베덴과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고 있는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 두 번째 음반이다. 즈베덴은 이번 음반에서 등장인물의 인간적인 면모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 1막의 애틋함과 3막의 장대한 스케일, 애증과 고뇌 모두 한편의 멜로드라마를 연상시킬 만하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해석은 자연스레 극적인 여운으로 이어진다. 악단과 지휘자의 면모를 다시금 돌아보게 될 정도로 멋진 연주가 담긴 음반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8.578340
나의 첫 크리스마스 앨범
여러 아티스트

메리 크리스마스!
클래식의 무궁무진한 세계로 어린이들을 초대하기 위한 낙소스의 독특한 기획물
1년 중 오직 크리스마스에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쁜 캐롤 징글 벨부터 호두까기 인형까지에 이르는 익히 알려진 곡들을 한 장의 음반에 가득 모았다.

[수록곡]
Once in royal david's city,
Winter Wonderland,
The holly and the Ivy,
Jingle bells,
The Nutcracker 외 수록

Ondine www.ondin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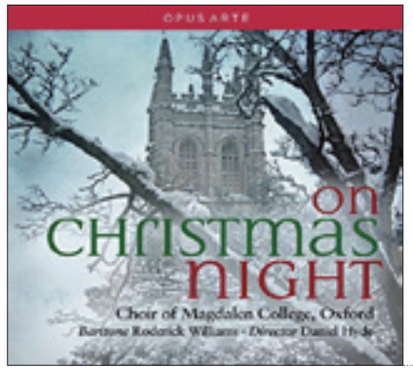
ODE 1285–2
슈베르트: 네 개의 즉흥곡 D899, 여섯 개의 독일 무곡 D820, 악흥의 순간 D780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절제된 감정으로 슈베르트의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는 연주
라르스 포그트는 2003/4년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최초 '상주 피아니스트'였으며, 하노버 음대의 피아노 교수이다. 최근에는 로열 노던 신포니아의 음악감독이 되어 지휘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포그트는 이 음반에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품들을 녹음했다. 무언가 스타일의 이 곡들은 이후 낭만시대 피아노 소품의 모범이 되었다. 그는 '네 개의 즉흥곡'에서 슬픔과 절망을 절제된 감정으로 그리고 있으며, '여섯 개의 독일 무곡'은 짝사랑하는 상대와 상상의 춤을 추듯 애틋하다. '악흥의 순간'은 비교적 두드러진 악상의 대비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DE 1298–2D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4번, 8번 '비창', 30번, 31번, 32번
파발리 윰파넨(피아노)

냉철하면서도 서정적으로 그린 베토벤 초상
핀란드 출신의 파발리 윰파넨(b.1974)이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4번 · 8번 '비창'(CD1)과 30번 · 31번 · 32번(CD2)이 수록되었다. 온디 레이블은 핀란드의 작곡가는 물론 지휘자 한누 린투 등 핀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보고(寶庫)와도 같은 레이블이다. 이 레이블에서 4장의 베토벤 소나타 음반을 출반했던 윰파넨의 경력이 이 음반 역시 선택하게 한다. 절제된 페달 사용, 감정이입을 절제한 담백한 연주. 그러면서도 '비창' 소나타 2악장, 30번의 1 · 3악장에서 그의 연주는 한없이 서정성이며, 끝없이 달콤하다. 온디 레이블 특유의 맑은 음향이 음악과 당신과의 거리를 지워준다. "

OpusArte www.opusarte.co.uk



OA CD9022D
막달렌 칼리지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나이트
로데릭 윌리엄스(바리톤), 막달렌 칼리지 합창단, 대니얼 하이드(지휘)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클래식 거장들의 크리스마스 음악 모음
막달렌 칼리지 합창단은 영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합창단 중 하나로, 바흐의 코랄 '깨어 소리 높여 부르라'와 브람스의 코랄 전주곡 '한 송이 장미꽃이 피어', 뒤프레의 '신성한 아기가 태어났도다' 변주곡, 본 윌리엄스의 장대한 '크리스마스 캐롤 환상곡', 존 러터의 '목자의 피리 캐롤', 브리튼의 '성모 찬미' 등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된 크리스마스 음악을 모았다. 이 곡들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품들로,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가득한 고요한 음악부터 성탄의 기쁨을 찬미하는 밝은 음악까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Orlando *www.orlando-records.com*

OR 0026

앙슈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작품

보이다라 쿠즈마노바-블라다르(바이올린), 율리아 푸르기나(비올라)

바흐의 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듣게 하는 이중주 편곡과 흥미로운 신작들

불가리아 출신의 쿠즈마노바-블라다르와 빈 출신의 푸르기나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독특한 작품들을 수록했다. 우선 푸르기나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중 프레스토, 2번 중 안단테, 파르티타 2번 중 사라반다를 이중주로 편곡한 것이 눈에 띈다. 이 곡들은 고음 프레이즈와 저음 프레이즈를 나누어 바흐의 대위적인 작법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며,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음색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킨다. 이외에 푸르기나의 자작곡 '전주곡'과 아만, 산체츠-치옹, 프라이지처 등의 개성적인 2016년 신작들도 매우 흥미롭다.

Paladino Music *www.paladino.at*

pmr 0074

장 프랑세: 클라리넷 협주곡, 주제와 변주, 3중주

디미트리 아쉬케나지(클라리넷), 크리프토프 마티아스 뮐러(지휘), 신시내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다 메인니시(비올라), 베른트 글렘서 · 이본느 랑(피아노)

아쉬케나지 가문의 클라리넷 팔색조가 연주하는 장 프랑세 모음곡

팔라디노는 오스트리아의 젊은 레이블로 빼어난 음향기술을 자랑한다. 디미트리는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의 아들이다. 그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사운드로 장 프랑세(1912~1997)의 클라리넷 협주곡, 주제와 변주, 3중주(피아노 · 비올라)를 연주한다. 팔라디노에서 4장의 앨범을 발매했던 그의 소리는 이번 음반에서 물꼬를 틀어 색다른 매력을 뿜어낸다. 프랑세 특유의 경쾌한 선율과 탭댄스를 연상케 하는 박자를 화려한 기교로 요리하고, 특히 실연으로 접하기 어려운 협주곡을 능숙하게 연주하는 그의 연주는 전작 앨범들에도 관심가게 만든다.

paladino music

pmr 0077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 8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리사 스미르노바(피아노)

고전파에 능한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프로코피예프와 베토벤의 매력

리사 스미르노바는 러시아 태생의 피아니스트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젊은 레이블로 빼어난 음향기술을 자랑하는 팔라디노에서 나온 이 앨범은 1994년 콘세르트허바우 실황이다. 이 앨범이 재밌는 이유는 두 곡의 커플링을 통해 각 작곡가의 숨겨진 이면을 보여주는 것 때문이다. 두 곡의 소나타를 통해 프로코피예프에 내재되어 있는 '베토벤 같은 고전주의적인 맛'을, 베토벤이 미리 예언이라도 하듯이 드러내고 있는 '프로코피예프 같은 파격의 맛'을 보여준다. 지능적인 선곡과 바로크 · 고전파에 능한 연주자의 기획력과 연주력이 돋보이다.

pmr 0078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 3번, 호른 트리오 Op.40

버지다라 코즈마노바(바이올린), 막다 아마라(피아노), 볼프강 블라다(호른)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만나는 브람스 실내악 수작(秀作)

이 앨범에는 브람스(1833~1897)의 호른 트리오 Op.40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 3번이 수록되었다. 브람스가 30대에 작곡한 호른 트리오를 비롯하여 40대의 소나타 1번, 50대의 소나타 3번을 통해 그의 원숙미를 느껴볼 수 있는 구성이다. 앨범의 중심에는 불가리아 태생의 버지다라 코즈마노바가 있다. 목관의 울림을 지닌 금관악기, 건반악기와 만나는 코즈마노바의 남다른 음악적 반경을 느낄 수 있다. 1890년산 포스틸리오네가 빚는 바이올린 선율은 우수의 기운보다는 맑은 하늘같은 윤기가 흐른다. 경량화된 사운드의 브람스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Rondeau *www.rondeau.de*

ROP6118 **[세계 최초 녹음 포함]**

칼다라: 살베 레지나, 마그니피카트, 스타바트 마테르 등

보칼아카데미 베를린, 바사노 앙상블 베를린, 프랑크 마르코비치(지휘)

천상의 미성과 경건한 음향이 균형을 이루는 종교적 희열

안토니오 칼다라는 18세기 초에 활약했던 작곡가로, 만투아에서 궁정음악감독을 지내다 정치적인 문제로 바르셀로나로 이주하여 궁정음악감독으로서 이탈리아 오페라 보급에 기여했다. 이 음반은 칼다라의 '마그니피카트', '살베 레지나', '스타바트 마테르' 등 성모 마리아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작품들은 18세기 초의 소규모 칸타타와 모테트의 양식을 보여주며, 연주자들은 천상의 미성과 경건한 음향이 균형을 이루는 극적 표현으로 정상급 연주를 들려준다. 함께 수록된 트리오 소나타는 바로크의 서정적 우아함의 극치이다.

ROP6125

아홉 개의 교훈과 캐롤 축제

함부르크 신 어린이 합창단, 옌스 바우디츠(지휘)

아홉 개의 성경 구절을 낭독하면서 캐롤을 연주하는 유서깊은 성탄 전야의 전통

'아홉 개의 교훈과 캐롤 축제'는 1880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아홉 개의 성경 구절을 낭독하면서 아홉 곡의 캐롤을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전통은 1918년에 킹스 칼리지 합창단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함부르크 신 어린이 합창단도 동참하고 있다. 이 음반은 전통대로 서곡과 같이 합창이 먼저 불린 후, 성경 구절이 낭독되고 멘델스존의 '천사 찬송하기를'을 비롯하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한 밤 중에', '참 반가운 신도여' 등 우리에게 익숙한 성가와 캐롤이 연주된다. 함부르크 성 거트루드 교회의 안정감 있는 울림도 훌륭하다.

ROP6129

하이든: 하모니 미사, 교향곡 101번 '시계'

드레스덴 성모교회 실내합창단, 로이스 실내관현악단, 마티아스 그뤼너트(칸토르)

드레스덴 특유의 단아하고 우아한 연주로 강한 매력을 갖춘 명연

하이든의 '하모니 미사'는 1796~1802년 사이에 에스테르하지 공주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그의 마지막 완성작이다. 이름은 하모니가 풍부하다는 데에서 온 것으로, 특히 목관악기의 오블리가토가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수록된 '교향곡 101번'은 1794년작으로, 흔히 '시계 교향곡'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2악장에서 똑딱 거리는 리듬이 시계추를 연상케 한다는 데서 붙여졌다. 초연 당시에는 "1악장의 주제만큼이나 독창적일 수 없다."라는 찬사로 1악장이 주목을 받았다. 드레스덴의 연주자들은 특유의 단아하고 우아한 연주로 강한 매력을 갖고 있다.

ROP 6124

텔레만: 가정용 솔로 소나타

클라우스 메르텐스(바리톤), 토마스 프리츠(감바), 슈테판 마스(류트), 미하엘 쇤하이트(오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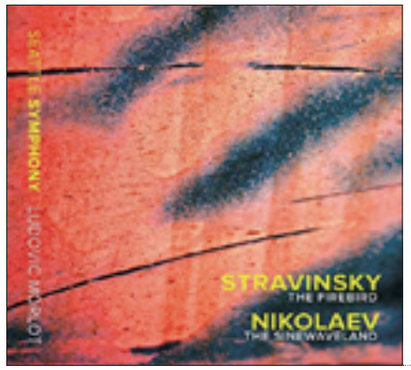
소박한 작품들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텔레만의 예술

텔레만의 인기는 18세기 전반기 독일에서 바흐를 능가했다. 그는 다양한 악기로 독특한 음악들을 만들었으며, 거의 모든 장르에서 매우 많은 작품들을 작곡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아홉 곡의 소규모 솔로 칸타타들도 텔레만의 창의적 시도가 엿보인다. 가정에서 부를 수 있도록 작은 편성으로 구성하였으며, 멜로디 역시 단순하다. 하지만 텔레만의 예술은 이 소박한 작품들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한다. 극적인 하모니와 절제된 멜리스마, 굵은 멜로디 라인에서 거장의 손길이 느껴진다. 여기에 약간의 낭독을 넣어 성경말씀을 나누도록 배려했다.

ROP 6135
비바 보체: 아카펠라 밴드
비바 보체
순수함 그 자체의 사운드로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을 전하는 아카펠라 그룹
1998년에 창설된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비바 보체'는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의 순수함 그 자체의 사운드를 지니고 있다. 첫 곡 브루크너의 모테트 '오스 유스티'에서부터 그들의 진가를 강렬하게 드러내며, 슈만의 '나는 꿈속에서 울었네'와 파헬벨의 '카논'에 가사를 붙인 '당신은 거기에'는 독특한 해석을 들려준다. 또한 모두에게 잘 알려진 롤프 뢰블란의 '유 레이즈 미 업'을 비롯한 여러 명곡들을 아름답고 풍부한 아카펠라로 새로운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

Seattle Symphony Media

www.seattlesymphony.org



SEATTLE SYMPHONY

SSM1014
스트라빈스키 '불새', 니콜라예프 '사인파 랜드'
두로비크 모를로(지휘) ·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대음악의 젊은 명장 두로비크 모를로의 정수가 담긴 앨범
스트라빈스키 '불새'(1910년 버전)와 블라디미르 니콜라예프(b.1953)의 'The Sinewaveland'가 수록된 앨범으로 시애틀심포니 자체레이블에서 발매되었다. 서울시향을 몇 차례 객원지휘를 한 바 있는 시애틀 심포니의 음악감독 두로비크 모를로는 20세기 및 동시대음악에 정통하며, 두다멜 · 다니엘 하딩 · 넬손스 · 야니크 네제 세갱 등과 함께 도약하고 있는 젊은 지휘자들 중 한 명이다. 스트라빈스키 특유의 복잡한 텍스트를 명징하게 풀어내는가 하면, 시애틀 태생의 지미 핸드릭스(1942~1970)에게 오마주한 'The Sinewaveland'(Sinewave는 주파수 · 소리를 표시하는 데 쓰이는 기본 파형을 뜻함)에 내재된 여러 겹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데에서 모를로의 진가가 나온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46
쇼팽: 네 개의 발라드, 네 개의 스케르초, 녹턴 C#단조
이슬람 마나포프(피아노)
카스피해의 거장으로부터 듣는 쇼팽의 새로운 경험
이슬람 마나포프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출신으로, 바쿠와 모스크바에서 공부했으며, 유럽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인민 예술가'의 칭호를 받았으며, 현재 바쿠 음악원과 이스탄불 예디테페 대학의 교수이다. 그는 쇼팽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럽의 연주자들과 유사하지만, 절대음악적인 기교성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과 갈망을 담은 강인한 터치로 피아노의 현들이 함께 울리는 고명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쇼팽을 듣는 새로운 경험이다.

SM247
모탈라: 사랑과 시
엘레나 모슈크(소프라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존 스콧(지휘)
영화음악 작곡가가 쓴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아름다운 협주곡
플라비오 모탈라는 스위스 출신으로,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엘머 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적인 영화음악의 거장으로부터 영화음악을 공부했다. 그는 '스파이더맨 3', '드래그 미 투 헬' 등 여러 영화음악 작업에 참여했는데, 콘서트 음악도 다수 남기고 있다. 그는 시벨리우스와 라흐마니노프를 연상케 하는 후기낭만 스타일에 영화음악적인 감각적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미된 감성적인 작품을 쓰고 있다. 이 음반은 가사 없이 부르는 소프라노의 보칼리제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다섯 곡을 수록했다. 현대인의 마음을 자극하는 극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이다.

SM248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1번
바스크스: 피아노 사중주
에타리시스 피아노 사중주단
현대인의 감성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접근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1번'은 28세 때 작곡한 초기 작품 중 하나로, 젊은 나이에도 낭만적인 우수가 가득하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를 헤쳐가려는 젊은이의 패기 또한 조화를 이룬다. 페테리스 바스크스는 라트비아 출신으로 일찌기 신낭만주의의 합류했으며, 현재는 도시적인 컨템포래리 스타일에 접근하고 있다. '피아노 사중주'는 이러한 근래의 모습을 반영하며, 도시적이고 감성적인 텍스쳐에 미니멀리즘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에타르시스 사중주단는 극적이고 리드미컬한 연주로 더욱 현대인의 감성에 직접적으로 파고든다.

WS 010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빌리 바이첼(낭독), 율리아 코츄반(피아노), 라하브 샤니(피아노, 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클래식 입문작
'동물의 사육제'는 '백조'를 제외하고는 생상스가 공식적인 작품목록에 넣기를 거부했던 작품이지만, 지금은 생상스의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이 되었다. 그만큼 이 곡은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흥미를 이끌어내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은 17세기 말 바로크 시대의 영국 작곡가 헨리 퍼셀의 음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편곡과 변주곡 모음이다. 이 곡은 관현악단을 구성하는 악기의 특징을 비교하여 최고의 교육용 작품으로 손꼽히면서도 음악적 완성도가 뛰어나다. 나레이션은 음악과 겹쳐있지 않다.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08
파르테니아
알리나 로타루(하프시코드)
영국에서 최초로 인쇄된 버지널 작품집, 《파르테니아》
15–17세기 소형 건반악기의 한 종류인 버지널은 특히 영국에서 크게 유행했다. 《피츠윌리엄 버지널 작품집》과 더불어 버지널 작품집을 대표하고 있는 《파르테니아》는 영국에서 최초로 인쇄된 버지널 작품집으로서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와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공주의 결혼식에 헌정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집의 각 부분에는 윌리엄 버드, 존 불, 올랜도 기번스의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프로베르거의 하프시코드 음반으로 호평을 받은 신세대 하프시코드 연주자인 알리나 로타루의 연주에는 감수성과 즐거움이 묻어난다.

DSL–92209
바흐: 파르티타, BWV825–830
조리 비니커(하프시코드)
바흐 건반 음악의 최고봉이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 역작
조리 비니커는 파리에서 공부했으며, 1993년 바르샤바 하프시코드 콩쿠르와 1994년 프라하 스프링 페스티벌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이후 세계적인 거장들과 독주자 혹은 협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급 하프시코디스트이다. 바흐의 여섯 개의 파르티타는 1726~30년 사이에 작곡되어 '클라비어–위붕 1권'으로서 출판되었다. 바흐의 건반을 위한 마지막 모음곡으로서 가장 기술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바흐 건반 음악의 최고봉이며, 일반적인 전주곡 대신에 신포니아, 환상곡, 서곡, 토카타 등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 역작기도 하다.

Stew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54
베토벤: 디아벨리 변주곡
존 오코너(피아노)
베토벤 전문가가 들려주는 영웅적인 사운드
디아벨리는 베토벤의 악보를 출판하던 출판업자로, 간간히 작곡도 했다. 하지만 그의 작곡 실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는데, 베토벤은 그의 단순한 왈츠를 무려 33개의 변주곡으로 만들면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후 기념비적인 변주곡 세트를 완성했다.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1973년 베토벤 피아노 콩쿠르 우승 이후 베토벤 전문가로 활약했으며, 현재 버지니아 셰난도 대학과 토론토 왕립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 대곡을 에너제틱한 타건으로 연주하여 베토벤의 교향곡과 같은 영웅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30058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31번 · 33번 · 38번 · 47번 · 58번
존 오코너(피아노)
건반 위 손끝에 녹아있는 하이든의 초상화를 꺼내다
아일랜드 왕립음악학교 교장이자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존 오코너(b.1947)가 뉴욕 스타인웨이 홀에서 스타인웨이 B모델과 D모델로 연주한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 33번 · 38번 · 47번 · 58번이 수록된 음반. 레이블 역시 스타인웨이다.오코너는 1986년 텔락 레이블의 베토벤 전곡 소나타로 이름을 알린 바 있으며, 고전파와 초기낭만파는 그의 주특기 중 하나다. 베토벤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영향을 준 하이든을 연주하는 그의 손끝에서 두 음악가는 서로 교감하고 만난다. 베토벤 스페셜리스트가 연주하는 하이든 소나타의 매력이 궁금한 이에게 적극 추천한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 0345 **[세계 최초 녹음 포함]**
퍼르커스: 첼로를 위한 실내악곡 1집
미클로슈 페레니(첼로), 데네스 바리욘(피아노), 루치아 메지에시 슈바르츠(소프라노) 등
우리시대 최고의 첼리스트 페레니가 연주하는 퍼르커스의 첼로 음악
페렌츠 퍼르커스는 20세기의 중요한 헝가리 작곡가로, 리게티와 쿠르탁의 스승이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작품들과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 등 여러 스타일을 아우른다. 바르톡과 코다이를 연구하면서 전수받은 민속적인 특징들도 음악에 깊숙이 녹아있다. 〈헝가리 춤곡 풍으로 2번〉이 특히 민속적이지만, 지역적인 특색보다는 세련된 멜로디가 부각되어 그 매력을 어필한다. 〈알안티카〉는 바로크적이며 〈포크송 소나티나〉는 음악적 유머가 돋보인다. 〈무반주 첼로 소나타〉는 코다이에 빚을 지고 있으며, 〈발라드〉와 〈네 개의 소곡〉은 현대적 감각이 남다르다. 연가곡 〈과일 바구니〉는 한 편의 유쾌한 모노드라마이다.

TOCC 0347 **[세계 최초 녹음]**
코메야스: 화려한 소나타, 워싱턴과 링컨, 녹턴 등
호세 라울 로페스(피아노)
쿠바인 최초로 소나타를 출판했던 코메야스의 달콤한 음악
호세 코메야스는 19세기 쿠바의 작곡가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우다가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받았다. 쿠바는 클래식 음악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해 미국으로 건너가 볼티모어에서 교수 활동을 했다. 그의 작품은 감미롭고 시적이어서 쇼팽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으며, 당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던 고트샬크의 영향도 적지 않다. 그래서 그의 대부분의 곡들은 심플한 리듬 위에 서정적인 멜로디를 얹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살롱 음악이다. 하지만 '화려한 소나타'는 클래식 작곡가로서의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다.

Tonkunstler

www.tonkuenstler.at

TONKÜNSTLER

TON2001

하이든: 교향곡 6번 '아침', 7번 '정오', 8번 '저녁'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사도 유타카(지휘)

빈 무지크페라인 상주단체인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하이든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음악감독이 되면서 그의 교향곡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교향곡 6~8번은 초기의 작품들로, 각각 아침, 정오, 저녁의 제목을 갖고 있어 '일일 삼부작'이라고 불린다. 이 곡들은 독주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콘체르토 그로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7번의 경우 다섯 악장에 레치차티보, 카덴차 등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어 초기 교향곡 문헌으로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는 빈 무지크페라인 상주단체이며, 사도 유타카는 2015–16시즌부터 톤퀸스틀러를 맡고 있다.

TON2002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낭만적'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사도 유타카(지휘)

오르간 사운드와 내적 동요를 통해 브루크너의 진지한 예술세계를 그린 명연

브루크너는 모두 10곡의 교향곡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했으며, 두 곡을 미완성으로 남겼다. 이 중에서 '낭만적'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교향곡 4번〉은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품이다. 이 곡은 브루크너의 작품 중에서 가장 리드미컬하며 음향적으로 화려하고 심리적 진행이 빠르게 흐른다. 빈 무지크페라인 상주단체인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와 2015–16시즌부터 이 단체를 맡고 있는 사도 유타카는 이러한 이 곡의 특성을 살려내면서 브루크너의 진지한 예술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브루크너의 오르간 사운드와 내적인 동요를 훌륭히 포착했다.

Two Pianists

www.twopianists.com

TWOPIANISTS

TP1039329

멘델스존: 바이올린 소나타

매들린 애드킨스(바이올린), 루이스 마갈량이스(피아노)

과감한 보잉,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 작품을 되짚어 가는 여정

바이올리니스트 매들린 애드킨스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악장, 볼티모어 첸버 오케스트라 악장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티에리 피셔가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는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녀는 'Two Pianists' 레이블의 공동 설립자인 피아니스트 루이스 마갈량이스와 함께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녹음했다. 멘델스존의 잘 알려진 3개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1825년 작곡된 단악장의 미완성 작품을 아우르는 애드킨스의 과감하고 치열한 보잉은 풍부한 음향 속에서 명쾌함을 더한다.

호평을 받았던 빌라 로보스의 기타 필사본 시리즈 전집 세트

불세출의 걸작을 비롯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이르기까지 빌라 로보스 기타 음악의 전모를 재조명한 '빌라 로보스의 기타 필사본' 시리즈가 세트로 발매되었다. 세고비아의 의뢰로 작곡된 '12개의 연습곡'의 오리지널 필사본을 비롯해, 빌라 로보스의 대표작인 '기타협주곡'과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중아리아, 안드레아 비솔리에 의해 재탄생한 'Dime perché(이유를 말해 봐요)', 'Guia prático(실용 가이드)'에서 발췌한 14개의 민요, 새롭게 발굴된 '왈츠'에 이르기까지 호평과 인기를 얻은 음반들을 한 번에 갈무리할 수 있다. 소장할 만한 음반이다.

8.503289 [Naxos CD]

[수록곡]

The Guitar Manuscripts Vol.1

01. Guitar Concerto: I. Allegro preciso
02. II. Andantino e Andante - Cadencia
03. III. Allegretto non troppo - Vivo
04. Simples
05. Valse-Choro
06. Cirandas, W220: No. 1. Terezinha de Jesus (Little Therese of Jesus)
07. Cirandas, W220: No. 14. A canoa virou (The Canoe Turned Round)
08. Floresta do Amazonas: Cancao do Amor (Love Song) (version for voice and guitar)
09. Floresta do Amazonas: Veleiros (Sailing Ships) (version for voice and 2 guitars)
10. Cancao Do Poeta Seculo XVIII (Song Of An Eighteenth-Century Poet) (Version For Voice And Guitar)
11. Serestas: No. 5. Modinha (Little Tune) (version for voice and guitar)
12. Valsa
13. Motivos gregos (Greek Motifs) (arr. A. Bissoli for flute, guitar and female chorus)
14. Bachianas brasileiras No. 5: I. Aria: Cantilena (version for voice and guitar)

The Guitar Manuscripts Vol.2

01. Dime Perche
02. Valsa Concerto No.2
03. Sexteto Mistico
04. Introducao Aos Choros
05. Choros No.1
06. Choros No.6
07. Cancao Do Amor

The Guitar Manuscripts Vol.3

01. Tarantela (arr. A. Bissoli for guitar)
02. 12 Etudes, W235 (1928 Version): No. 1. Anime - Lent
03. No. 2. Tres anime
04. No. 3. Un peu anime
05. No. 4. Un peu modere - Grandioso
06. No. 5. Andantino
07. No. 6. Un peu anime - Moins
08. No. 7. Tres anime - Modere - Tempo 1
09. No. 8. Modere
10. No. 9. Un peu anime - Moins
11. No. 10. Anime - Modere - Anime - Tres anime
12. No. 11. Lent - Anime - Lent
13. No. 12. Un peu anime - Plus vite - Tempo 1
14. Fourteen Folksong arrangements from Guia Pratico: No. 71. Machadinha
15. No. 112. Samba-lele
16. No. 15. Bela pastora
17. No. 108. Rosa amarela (1st version)
18. No. 31. Carneirinho, carneirao
19. No. 45. O cravo (1st version)
20. No. 133. Vitu
21. No. 114. Senhora Dona Sancha (1st version)
22. No. 87. Pai Francisco (1st version)
23. No. 35. O ciranda, o cirandinha
24. No. 41. Constancia
25. No. 137. Xo! Passarinho
26. No. 55. Fui no Itororo (2nd version)
27. No. 90. Passaras, nao passaras
28. O papagaio do moleque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 20381 [DVD]
Accentus ACC 10381 [Blu-ray]

accentus music

블롬슈테트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중부독일 방송합창단, 게반트하우스 합창단 및 어린이합창단 시모나 샤투로바(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미호코 후지무라), 크리스티안 엘스너(테너), 크리스티안 게르하허(베이스 바리톤)

새로운 '합창 교향곡'이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다

2015년 12월 31일,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b.1927)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실황물이다. 1998년부터 2005까지 제19대 카펠마이스터로 재직 후, 현재 계관지휘자로 활동 중인 블롬슈테트와 악단은 명확한 윤곽, 탄력적인 리듬, 유연한 흐름으로 새로운 '합창 교향곡'을 선사한다. 유럽을 주름 잡는 4명의 솔리스트와 세 개의 합창단이 거대한 음향을 뿜어낼 때, 카메라는 그 소리가 가득 찬 게반트하우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이 전경을 잡아내어 소름 돋게 한다. 4악장의 가사는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PCM 스테레오/돌비 디지털 5.1/DTS 5.1 오디오 옵션을 통해 게반트하우스의 음향을 만끽할 수 있다.

[보조자료]

– 2015년 12월 31일,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b.1927)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실황물이다. 한해를 '합창 교향곡'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의 풍습이 되었나보다. 게반트하우스 객석은 빈 좌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다.

– 블롬슈테트는 2016년 내한하는 해외 지휘자들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인물이었다. 밤베르크 심포니와 함께 했던 내한 공연에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과 6번 '전원'으로 '베토벤의 노장'임을 보여주었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악단답게 홈페이지에 1781년부터 재직한 카펠마이스터를 띄워 놓았다. 블롬슈테트는 1998년부터 2005까지 제19대 카펠마이스터로 재직했고, 2017/18 시즌부터는 제21대 카페마이스터로 이 악단을 이끄는 안드리스 넬손스와 함께 계관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1998년에 블롬슈테트가 이 악단에 부임하면서 카펠마이스터가 음악과 행정 모든 면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감독 제도를 신설하여 블롬슈테트는 음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 때에 뿌려놓았던 씨앗은 악단의 발전을 위해, 또한 객원지휘로 블롬슈테트와 만날 때마다 악단의 새로운 이미지를 꺼내놓는다.

– 영상 속 블롬슈테트의 지휘는 진취적이다. 창단 때부터 이어져온 강한 전통적 이미지, 그리고 제20대 카펠마이스터 리카르도 샤이(2005~2016) 시절에 몸소 익힌 현대음악기법이 몸에 익은 단원들의 감각이 한데 더해진 악단의 기운을 밑거름 삼아 블롬슈테트는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명확한 윤곽과 탄력적인 리듬, 유연한 흐름을 조화롭게 공존시킨다. 4악장(프레스토–알레그로 아싸이–프레스티시모)은 이 영상물의 백미다. 4명의 솔리스트와 세 개의 합창단이 거대한 음향을 뿜어낼 때, 카메라는 그 소리가 가득 찬 게반트하우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이 전경을 잡아내어 소름 돋게 한다. 4악장의 가사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PCM 스테레오/돌비 디지털 5.1/DTS 5.1 오디오 옵션을 통해 '무대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객석에 퍼진다'고 소문난 음향 게반트하우스의 음향을 맛볼 수 있다.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289 [2DVD + 2CD]

ARTHAUS MUSIK

영상으로 보는 클렘페러의 발자국과 마지막 마침표

필로 브레그스테인(감독), 오토 클렘페러(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다니엘 아드니(피아노)

[구성]

– 1 DVD (100분) : 다큐멘터리 '그의 시간을 통한 긴 여행'
– 1 DVD (74분) : '마지막 콘서트' 및 보너스 필름
– 2 CD : 마지막 콘서트 실황음반
– 180 페이지의 하드커버 부클릿 :
(두 편의 다큐멘터리에 관한 글, 감독을 맡았던 필로 브레그스테인이 직접 쓴 1971년 마지막 콘서트의 뒷이야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클렘페러의 지휘에 녹아 있는 국제적 스타일과 고전과 모던함, 녹음철학, 그리고 상세한 연보가 담겨 있다)

오토 클렘페러 다큐멘터리 '그의 시간을 통한 긴 여행'와 '마지막 콘서트'/1971년 은퇴 공연 실황 음반

지휘자 오토 클렘페러(1885~1973)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1971년 마지막 콘서트 실황 음반으로 구성된 전기물이다. 1973년부터 클렘페러와 작업해 온 영화감독 필로 브레그스테인은 사진 · 악보 · 육성 · 인터뷰 자료를 구성하여 클렘페러의 인생과 음악사상을 전한다. 리마스터링된 1971년 공연 실황 음반에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닫는 노장 클렘페러만의 비장미와 역사적 순간이 전하는 전율이 느껴진다. 180쪽 분량의 부클릿(독일 · 프랑스 · 영어)은 이 영상물의 소장가치를 더욱더 높인다. 다큐멘터리는 독일 · 프랑스 · 일본 · 한국 · 영어 자막을 갖추었다.

[보조자료]

– 독일 지휘계보의 전통과 적통을 잇는 오토 클렘페러의 삶과 음악에 대한 영상 다큐멘터리와 은퇴 공연 실황이 함께 있는 박스물이다. 1973년부터 클렘페러의 영상을 담아온 영화감독 필로 브레그스테인이 수집한 영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클렘페러의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것이다.

– 클렘페러는 1885년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난 유태계 오스트리아인이다. 어렸을 때 함부르크로 이사하여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에서 공부했다. 1906년 베를린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데뷔함으로써 지휘자로 출발했고, 이듬해 말러의 강력한 추천으로 프라하 독일 극장에 데뷔했다. 이후 함부르크 오페라, 바르멘 오페라, 스트라스부르 오페라, 쾰른 오페라, 비스바덴 오페라, 크롤 오페라, 베를린 슈타츠오퍼 지휘자를 역임했다. 나치에게 추방당해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는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1947년부터 유럽에서 부다페스트 국립극장,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1971년 마지막 콘서트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1973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사망했다.

– 이 영상물에는 다큐멘터리 '그의 시간을 통한 긴 여행'(1DVD, 100분)과 '마지막 콘서트'(2DVD, 74분/보너스 필름 35분), 마지막 콘서트 실황 음반(2CD, 88분), 하드커버로 된 두툼한 부클릿(180쪽)으로 구성되었다.

–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독일 · 프랑스 · 일본 · 한국 · 영어 자막을 갖추었다. 다큐멘터리 '그의 시간을 통한 긴 여행'은 '새로운 소리를 찾아서' '틀에 박힌 무대극에의 저항' '크롤 오페라의 실험' '망명' '새로운 희망 새로운 좌절' '부활' 등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클렘페러의 육성은 역사적이었던 순간들을 기억해낸다. "저는 뉴욕의 말러에게 전보를 쳐서 함부

르크로 추천장을 써 달라고 했어요. 그의 답장은 '클렘페러를 잡아라'였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콘서트'는 1971년 은퇴 공연의 리허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딸 로테 클렘페러를 비롯하여 클렘페러와 함께 한 많은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의 육성이 흑백사진, 클렘페러의 영상과 육성과 어우러지며 20세기를 강타했던 거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려간다. '마지막 콘서트'에 이어지는 보너스 필름(35분)은 에른스트 블로흐와 피에르 불레즈가 말하는 클렘페러의 음악세계, 그리고 1971년 마지막 공연의 리허설 영상이 담겨 있다. 블로흐와 불레즈의 육성은 독일 · 프랑스 · 영어 자막으로 되었다.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PCM 스테레오이다.

– 두 장의 CD, LP는 1971년 9월 26일 런던 로열페스티벌 홀에서 있었던 마지막 콘서트 실황으로 디지털 리마스터링 앨범이다. 클렘페러가 수석지휘자 · 종신지휘자로 있었던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베토벤 '슈테판 왕' Op.117,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협연 다니엘 아드니 협연), 브람스 교향곡 3번이 들어 있다. 180쪽 분량의 하드커버 부클릿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되었다. 두 편의 다큐멘터리에 관한 글, 감독을 맡았던 필로 브레그스테인이 직접 쓴 1971년 마지막 콘서트의 뒷이야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클렘페러의 지휘에 녹아 있는 국제적 스타일과 고전과 모던함, 녹음철학, 그리고 상세한 연보가 담겨 있다.

Arthaus 109283 [Blu-ray]

한스 반 마넨: '데자뷔' '솔로' '작은 방의 발레' '노인과 나' '프랑크 브릿지 변주곡' 'HET을 위한 두 소품'

한스 반 마넨(안무),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단, 여섯 개의 모던발레를 통해 20세기 창작발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안무가 한스 반 마넨(b.1932)의 대표작 여섯 개를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춤으로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2000 · 2001 · 2007년의 영상들을 1080i의 초고해상도 화질로 업스케일 했으며, 음향은 PCM 스테레오이다. 대부분의 작품은 군무보다 2~4인무 형식의 소규모 형식이며, 각 작품이 시작되기 전에 마넨의 인터뷰와 작품 해설(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이탈리아어)이 있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프랑크 브릿지 변주곡'에는 당시 수석무용수로 재직했던 김지영의 파드되(2인무)도 만날 수 있다. 아르보 패르트, 바흐, 스트라빈스키, 모차르트, 브리튼 등의 명작들을 토대로 했기에 음악마니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네덜란드의 안무가 한스 반 마넨(b.1932)의 여섯 작품을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Het Nationale Ballet)의 춤으로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2000 · 2001 · 2007년에 제작한 영상들을 1080i의 초고해상도 화질로 업스케일 했으며, 음향은 PCM 스테레오이다.

– 마넨이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의 창단 30주년을 위해 만든 축제 분위기의 '블랙 케이크'는 유니버설발레단이 모던발레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보여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의 상임안무가를 역임 후 현재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명예안무가로 재직 중인 한스 반 마넨은 현대발레에서 전설이 된 인물. 2007년, 마넨의 75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유럽의 내로라하는 10여 개의 발레단은 한데 모여 그에게 헌정하는 한스 반 마넨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 2000년부터의 영상을 수록하고 있는 이 영상물에 담긴 여섯 개의 작품과 그것에 쓰인 음악은 다음과 같은데, 네덜란드 발레 시어터가 '데자뷔' '솔로' '작은 방의 발레' '노인과 나'를,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이 그 외의 두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 데자뷔 : 아르보 패르트의 바이올린 · 피아노를 위한 프라트레스**
*** 솔로 : 바흐의 바이올린 무반주 파르티타 1번**
*** 작은 방의 발레 : 카라예프의 피아노 연습곡 1 · 2 · 3 · 5번, 스카를라티 소나타 K.87 · 159, 존 케이지 '풍광'**
*** 노인과 나 : 제이 제일 케일 '노인과 나', 스트라빈스키 '서커스 폴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2악장**
*** 프랑크 브릿지 변주곡 : 브리튼 '프랑크 브릿지에 의한 변주곡'**
*** HET(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을 위한 두 개의 소품 : 에르키스벤 튀르 '크리스탈리사티오', 아르보 패르트 '기도'**

– 1959년 창단 이후 현대발레계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1961년에 설립되어 각국에서 온 무용수를 단원으로 두고 있으며 고전에서 현대발레를 아우르는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내로라하는 무용수들이 출연하고 있으며, 작품은 대부분 군무보다 2~4인무 형식의 소규모 형식이다.

– 무엇보다도 이 영상물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각각의 작품이 시작되기 전에 한스 반 마넨의 인터뷰와 작품 해설(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이탈리아어)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프랑크 브릿지 변주곡'에서는 당시 수석무용수로 재직했던 김지영의 파드되(2인무)도 볼 수 있다.

Arthaus 109267 [Blu-ray]

발레 〈돈 키호테〉

마리우스 프티파 & 알렉산더 고르스키(안무), 안나 치간코바(키트리)

스페인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린 네덜란드 국립 발레의 새 프로덕션

러시아는 특별히 남국 스페인에 대한 동경이 대단했는데, 러시아 황실극장의 가장 대표적인 희극발레 〈돈 키호테〉도 그 산물이다. 발레 제목과 달리 돈 키호테와 산초 판자는 극의 단서를 제공하는 과객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바르셀로나의 말괄량이 소녀 키트리와 그녀의 연인인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다. 이 발레는 마리우스 프티파의 오리지널 안무를 알렉산더 고르스키가 수정한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네덜란드 국립발레의 2010년 실황인 영상물은 볼쇼이 발레의 젊은 예술감독이었던 알렉세이 라트만스키가 다시 손을 본 것이다. 주인공 키트리를 추는 러시아 발레리나 안나 치간코바는 현재 가장 뛰어난 표현력을 지닌 최고의 발레리나라는 평가를 완벽하게 입증했다.

Arthaus 109269 [Blu-ray]

글라주노프: 발레 〈라이몬다〉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발레단

프티파가 안무한 마지막 로맨틱 발레의 걸작을 최신 실황으로 만나다

프티파가 안무한 〈라이몬다〉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안무가인 마리우스 프티파가 안무를 맡았던 마지막 걸작이다. 차이코프스키가 세상을 떠난 이후, 프티파는 그의 제자였던 글라주노프에게 음악을 위촉했고, 글라주노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자신을 대표하는 걸작 발레음악으로 완성하였다.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운 음악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매력적인 발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러시아 밖에서 이 작품의 인기는 그리 높지 못했지만, 누리에프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은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에 버금가는 걸작으로 사랑받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1년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프티파의 오리지널 안무를 세르게이 비하레프가 리바이벌하여 무대에 올린 것이다. 키로프 발레단의 히로인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올레시아 노비코바가 타이틀 롤을 우아하게 연기하였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인기스타인 프리데만 포겔이 상대역인 장 드 브린느를 맡았다.

Arthaus 109273 [Blu-ray]

발레 〈드가의 작은 무희〉

파트리스 바르 (안무), 파리 오페라 발레단

드가의 조각상 '14살의 작은 무희'에서 모티브를 얻은 화제의 발레

프랑스의 에드가르 드가는 발레리나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그런데 유명한 조각상도 남겼으니 '14살의 작은 무희'가 그것이다. 그 모델이 가난한 벨기에 이민자의 딸이자 발레리나 지망생이었던 마리 반 괴템이라고 정확히 규명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닌데, 파리 오페라 발레의 안무가 파트리스 바르는 이 모델에 대해 깊이 연구한 마르티네 카하네와 함께 스토리를 구상하고 2003년에 이 발레를 만들었다. 본 영상물은 2010년 실황이다. 배경이 되는 1880년대는 발레의 주도권이 러시아로 완전히 넘어가고 파리 극장가는 예쁜 무용수를 찾는 돈 많은 남자들이 기웃거리던 분위기였다. 그 시대상과 더불어 가난을 극복할 수 없었던 어린 발레리나 지망생의 서글픈 삶이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듯 생생하게 그려졌다. 아주 개성이 강한 수작이다.

Arthaus 109277 [Blu-ray]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전곡

빠뜨리스 바르트(안무), 바렌보임(지휘),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발레단

안무의 새로운 컨셉을 구현한 빠뜨리스 바르트의 새로운 시각의 〈호두까기 인형〉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반주로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발레단이 공연한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실황 수록. 빠뜨리스 바르트의 새로운 컨셉을 보여주는 안무는 베를린의 운터 덴 린덴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시 갈채를 받았는데, 그 공연 실황을 수록하고 있다. 고전 발레와 현대 발레의 동작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안무는 전체적으로 매우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무용수들의 원색적인 의상과 무대 공간의 다채로운 구성도 흥미를 더해준다.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34 [DVD]
BelAir BAC534 [Blu-ray]

소테로: 오페라 '청중'

호세 안토니오 로페즈(감독), 귄-프리트 마르크민(헬렌), 에린 카브스(황제) 외/ 클랑포룸 빈과 테아트로 레알 합창단/ 파블로 헤라스-카사도(지휘)

21세기 스페인 초현주의 오페라의 프로토타입, '청중'

20세기 초반 스페인의 위대한 문학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뒤늦게 발견된 걸작 '청중(El público)'을 바탕으로 스페인 출신의 독일 작곡가 마우리치오 소테로가 음악을 붙이고 로베르트 카스트로가 연출을 한 동명 오페라. Bel Air가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의 프로덕션으로서 2015년 3월 실황을 담고 있는 이 오페라는 리얼리티와 무의식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원작에 충실한 초현실주의적인 연출과 플라멩코를 비롯한 스페인의 열정과 신비로움이 폭발하는 음악이 어우러지며 시청각적인 경이로움을 더한다. 특히 청중이 더 많은 연극을 감상해야 한다는 작가의 의지와 초현실주의적인 의상 및 무대 디자인, 동성애적인 취향과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 화면 전면을 지배하며 스페인의 새로운 문화적 위상을 강렬하게 내뿜는다.

[보조자료]

–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작가로 일컬어지는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Federico Garcia Lorca, 1898~1936)는 20세기 스페인이 낳은 가장 사랑받은 시인. 초등학교 여교사인 어머니와 부유한 농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그라나다 대학 문과를 다니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동시에 마누엘 데 파야에게 기타와 피아노를 배웠다. 그러나 곧 피아니스트의 꿈을 버리고 시에 전념한 그는 스무 살인 1918년 시적인 산문집 [풍경과 인상들]을 출간하고 마드리드에서 대학 공부를 계속했다. 이때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시인 에밀리오 프라도스, 호세 모레노 비야를 만나 친구가 된 그는 1928년 『집시 이야기 민요집』으로 스페인 국가 문학상을 받으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스페인 공화국이 수립되자 로르카는 자신의 극단을 조직하고 전국을 순회했고 그의 연극은 시 못지않게 대성공을 거두었다. 로르카 자신은 이데올로기를 의식하지 않았고 작품에 특별한 정치색을 입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 몇 명이 공산주의자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우익 민병대에 대한 조롱은 내전으로 치닫는 스페인 정세에서 그의 목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36년 위험을 느낀 로르카는 마드리드를 떠나 고향 그라나다로 내려갔지만 내전 발발과 함께 체포된 뒤 총살되었다. "소련의 스파이"라는 죄목이었다.

– 그가 1930년에 쓴 희곡 [청중(El público)]은 56년 동안 출판되지 않았지만 20세기 스페인 예술의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환각상태에 가까운 애매모호함을 지니고 있어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청중]은 로르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신비로운 작품으로 일컬어진다. 이 작품을 쓴 시기는 그의 예술적 영감과 경험에 의한 습득력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로서 뉴욕 여행을 마친 뒤 쿠바로 갔을 때였다. 부르주아 계급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한 저항을 내용의 중심으로 하는 이 희곡은 사랑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두 가지 주제가 부각되는데, 하나는 청중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야외극장에 대한 담론, 다른 하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수용해야 한다는 대중적인 아레나에 대한 담론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캐릭터로 역을 바꾸며 전혀 다른 다양한 개성을 드러낸다. 그럼으로써 청중은 의식적으로 몰입하면서 자기개성과 의지를 자각하게 된다.

– 여기 소개하는 '청중'은 로르카의 희곡을 만드레아 이바네스가 대본으로 옮긴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곡가 마우리치오 소테로(Mauricio Sotelo, b.1961)가 음악을 붙인 오페라로서 사실상 오페라라기보다는 마임과 무용, 드라마 진행보다는 장면 위주로 진행되는 총체예술적인 무대극이다. Bel Air가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의 프로덕션으로서 2015년 3월 실황을 담고 있는 이 오페라는 리얼리티와 무의식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원작에 충실한 연출이 경이로움을 더한다. 연출가 로베르트 카스트로는 비현실적인 캐릭터들과 의상, 무대를 통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독창적인 미장센을 보여주는데, 특히 로르카가 의도한 호모섹슈얼리티를 적절하게 부각하여 예술이 인간 그 자체로 변형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교묘하게 연계시킨다. 음악은 루이지 노노의 영향을 받아 대단히 현대적이고 표현주의적인 동시에 조국인 스페인의 플라멩코를 전면에 내세워 기타를 비롯한 각종 악기들의 스페인의 향기를 물씬 풍긴다. 진은숙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더불어 초현실주의적 오페라의 양대산맥으로 간주할 만한, 난해하지만 그 충격의 강도는 엄청나게 강한 21세기 오페라가 바로 '청중'이다. 구스타보 두다멜, 안토니오 멘데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와 더불어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는 라틴계 지휘자의 선두주자인 파블로 헤라스–카사도의 정력적이고 정확한 지휘와 클랑포룸 빈의 경탄할 만한 앙상블 또한 영상 그 자체의 파격적인 충격에 비견할 만하다.

BelAir BAC130 [DVD]
BelAir BAC430 [Blu–ray]

도니제티: 로베르토 디베리우스

마리엘라 데비아(엘리자베타), 마르코 카리아(듀카), 실비아 트로 산타페(사라), 그레고리 쿤데(로베르토 데버루) 외/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브루노 캄파넬라(지휘)

현존 최고의 벨칸토 가수들이 펼치는 초현실주의적 도니제티 오페라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투아르트, 케닐워스 성과 더불어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영국 튜더왕조 역사 오페라 4부작 가운데 하나인 로베르토 디베리우스(로버트 데버루). 이 작품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의 젊은 연인이자 쿠테타를 일으킨 로베르토를 체포한 뒤 교수형에 처할 때까지의 사랑의 어긋난 삼각관계를 그린 오페라로서, 성악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다른 걸작에 가려져 자주 연주되지 않았지만 최근 그 가치가 재인식되며 세계 오페라 하우스에서 앞다투어 상연하고 있다. 알레산드로 타레비의 초현실주의적이고 극적인 연출이 빛을 발하는 2015년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 프로덕션은 데비아와 쿤데라는 강력한 성악가들의 출연에 힘입어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벨칸토의 새로운 향연과 극적인 엑스타시를 만끽할 수 있다. MUST HAVE ITEM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

[보조자료]

– 도니제티의 57번째 오페라로서 1837년 니폴리 산 카를로 극장에서 초연된 '로베르토 디베리우스'는 그의 여왕 3부작 가운데 스케일이 가장 작고 스펙타클한 면도 적으며 역사적인 사실성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음악적인 풍요로움과 드라마적인 긴밀함이 돋보이는 동시에 몇몇 아리아들(엘리자베스 1세와 에식스 백작의 아리아)의 대범한 드라마틱함이 걸출한 묻혀진 걸작으로 평가된다. 다른 도니제티의 명곡들에 가려 자주 연주되지는 않지만 그 엄청난 음악적, 연출적 가능성으로 인해 최근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자주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연인이었던 월터 데버루 경(에식스 경 1세)과 어머니 레티스 놀리스의 아들 로버트 데버루(이탈리아어로 로베르토 디베리우스, 에식스경 2세). 그는 어린 시절을 아버지의 드넓은 영지가 있는 웨일스에서 보냈고,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는데, 아버지 월터 경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 레티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뢰하는 애인인 레스터 백작인 로버트 더들리와 결혼했다. 로베르토는 군 생활을 마친 뒤 계부 더들리의 후광으로 궁정 출입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총애하는 인물이자 새아버지의 뒤를 이은 연인이 된다. 여왕의 신임으로 로베르토는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지만 자기 과시를 일삼고 건방졌기 때문에 결국 여왕에게 버림받아 아일랜드 토벌군 장교로 파견된다. 로베르토는 반란군과 휴전을 맺으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란군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지만 반란 진압에 실패한다. 여왕의 명을 어기면서 굴욕적 강화를 체결, 직무를 포기하고 귀국한 그는 여왕의 총애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1601년 정치 쿠데타를 시도, 해 런던을 장악하고 여왕을 폐위시키려고 하지만 이 음모는 사전에 발각된다. 오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로베르토는 체포되어 런던탑에서 처형, 엘리자베스는 왕위를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에게 물려준다고 하면서 끝을 맺는다. 가상의 인물로서 로베르토의 연인인 노팅엄 공작부인인 사라가 스토리 라인에 첨가되었다.

– 여기 소개하는 영상물은 2013년 웨일스 내셔널 오페라에서 프리미어를 가진 연출가 알레산드로 타레비의 로베르토 디베리우스의 무대를 2015년 10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극장에서 올린 프로덕션을 수록하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 안나 볼레나와 라 트라비아타, 돈 조반니,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 등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출신의 타레비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유럽의 새로운 오페라 연출가로 발돋음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시된 동곡 영상물 가운데 가장 초현실주의적인 스타일로서 동선과 미장센에 있어서 지극히 연극적인 동시에 어두움과 원색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이미지의 중첩으로 인해 대단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연출로 평가할 만하다. 뉴욕타임즈로부터 "그의 로베르토 디베리우스 프로덕션은 초현실적이면서도 관념적인 무대로서 격찬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역전의 노장이자 도니제티 여왕역의 최고 전문가로서 201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이며 서울을 사로잡은 소프라노인 마리엘라 데비아가 엘리자베타 역을, 그리고리 쿤데가 영웅적인 로베르토 역을, 막강한 파워와 에너지를 발산하는 메조 소프라노 실비아 트로 산타페가 사라 역을 맡았다. 1막과 3막에 등장하는 엘리자베타의 엄청난 카바티나와 카발레타에서 데비아가 뿜어내는 위엄에 찬 카리스마도 눈이 부시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드라마틱 테너인 쿤데가 부르는 1막 두 개의 2중창 및 3막 2장 런던탑에서 부르는 아리아도 너무나 절절하고 강렬하다. 그 밖에 2막 마지막 여왕, 로베르토, 노팅엄의 드라마틱한 3중창도 음악적으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훌륭하다. 영상미와 음질, 연주 모든 면에 있어서 로베르토 디베리우스 영상물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을 만한 놀라운 프로덕션이다. 도니제티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매해야 할 아이템!

BelAir BAC135 [DVD]
BelAir BAC435 [Blu-ray]

파리 국립오페라발레의 케네스 맥밀란 '마농 이야기'

오렐리 듀퐁(마농 레스코), 로베르토 볼레(데 그리외), 스테판 뷔용(레스코), 벤자민 페슈(귀요 모르폰텐)

프랑스 최고의 발레리나 오렐리 듀퐁의 은퇴작

2015년 5월 18일 파리 가르니에 실황.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의 수석무용수 오렐리 듀퐁의 고별 무대인 케네스 맥밀란의 '마농 이야기'다. 쥘 마스네 특유의 낭만적인 음악이 흐르고, 한 여인의 굴곡 많은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담은 이 작품은 20여 년 동안 간판무용수로 활동해온 듀퐁의 기교와 노련미를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듀퐁만의, 듀퐁을 위한 작품처럼 느껴진다. 125분 공연영상 뒤에 듀퐁의 은퇴 인터뷰가 담겼다. 자막은 영어와 프랑스어.

[보조자료]

–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의 수석무용수 오렐리 듀퐁의 고별 무대를 담은 영상물로, 2015년 5월 18일 파리 가르니에 실황이다. 이 작품은 '르 몽드'지로부터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다. 작품에 매료되어 신경이 모두 곤두설 정도였다. 주인공들의 놀라운 춤과 표현을 보면서 닭살이 돋았다"는 찬사를 들었다.

– 42세의 듀퐁이 은퇴작으로 케네스 맥밀란의 '마농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설이 된 안무가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프랑스적인 소재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쥘 마스네의 곡으로 구성되었고, 무엇보다 한 여인의 굴곡 많은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무대에서 보여준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만큼 발레리나로서의 경력을 마무리하기 좋은 작품도 없을 것이다. 클래식과 모던함의 매력을 껴안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로움이 있는 이 작품은 20여 년 동안 간판 무용수였던 듀퐁의 폭넓은 레퍼토리와 노련미, 연기력을 단 한번에 보여주기에 적합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 '마농 이야기'는 1974년에 영국계 안무가 케네스 맥밀란(1929~1992)에 의해 탄생한 작품이다. 마스네의 음악은 처음부터 발레를 염두에 두고 창작한 것이 아니라 1867년부터 1910년까지 작곡된 곡 중에서 여러 곡을 편곡해서 사용한다. 색채감을 고스란히 살린 영상에 PCM스테레오/돌비 디지털 5.0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전한다.

– 125분 공연영상 뒤에 듀퐁과 나눈 약 10분짜리 인터뷰영상이 수록되었다. 발레단에서 본인은 '할머니'라며 은퇴 소감을 전하는 인터뷰를 통해 나이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기도 한다 자막은 영어와 프랑스어. 관객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마지막 장면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 발레리나의 이별과 새로운 스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된다.

BelAir BAC611 [3 DVDs]　　BelAir BAC612 [3 Blu-ray]

볼쇼이의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 (백조의 호수, 잠자는 미녀,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데니스 로드킨, 아르테미 벨야코프/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파벨 소로킨(지휘)

잠자는 미녀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다비드 할베르크, 마리아 알라쉬/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바실리 시니아스키(지휘)

호두까기 인형

니나 캅소바, 아르템 오브차렌코, 데니스 사빈/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파벨 클리니체프(지휘)

볼쇼이의 새로운 발레의 역사의 시작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9천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친 볼쇼이 극장. 지반과 외관을 새로 다지는 한편 차르 시대의 장식과 구조를 복원, 전체적으로 어쿠스틱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한편 무대시설도 최첨단으로 개선하며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오페라 하우스로 재탄생했다. 이에 맞추어 새로 공연된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전설적인 차이콥스키 3대 발레 프로덕션이 HD급 고화질로 새롭게 촬영되어 그 화질과 음질, 환상적인 카메라 워크 모두에 있어서 이전 영상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혁신적인 퀄리티를 자랑한다. 볼쇼이의 대표 프리마발레리나인 자하로바와 캅소바가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와 잠자는 미녀, 호두까기 인형은 볼쇼이 발레단이 왜 세계 최고인가를 다시 생각케 하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Belvedere

www.belvedere-edition.de

Coming Soon!

[DVD]

[Blu-ray]

Brahms: Ein Deutsches Requiem

Franz Welser-Möst(지휘), The Cleveland Orchestra,
Hanna-Elisabeth Müller, Simon Keenlyside, Wiener Singverein

belvedere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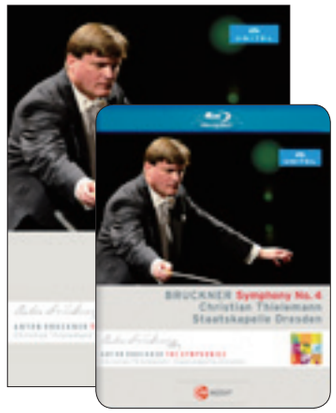
[Blu-ray]

R. Strauss: Don Quixote
Dvorak: Symphony No.8

Mariss Jansons(지휘) + Yo-Yo Ma(첼로)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Hanna-Elisabeth Müller, Simon Keenlyside, Wiener Singverein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32508 [DVD]
C Major 732604 [Blu-ray]

2015년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로맨틱' 실황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지하의 브루크너를 깨우는 틸레만의 '로맨틱'

2015년 5월,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 실황 영상물. 2012년 취임한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찰떡 궁합으로 브루크너 교향곡 4번을 요리한다. 그들의 연주는 느리고 편안하다. 틸레만은 푸르트벵글러, 클렘페러 등의 독일계 지휘자들이 남긴 유산의 무게를 묵묵히 지고 나아간다. 1080i 해상도의 놀라운 화질, PCM스테레오/DTS-HD MA5.0/서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옵션은 극장의 관객석에 앉아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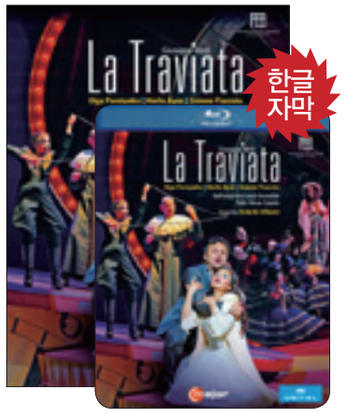
– 2015년 5월 23일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 실황 영상물이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고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연주한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로맨틱'이 담겨 있다.

– 1548년 창단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베버 · 바그너에 이어 20세기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67년간 음악감독을 맡은, 이른바 '살아있는 서양음악사'로 불리는 악단이다. 2012년부터 독일 정신의 계승자로 불리는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수석지휘자로 취임해 468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그의 연주는 느리고 편안하다. 한스 리히터부터 푸르트벵글러, 오토 클렘페러 등 독일계 지휘자가 연주하는 독일악단의 특정 사운드가 틸레만에게서도 들린다. 시종 흐트러짐이 없고, 화려한 외형의 효과를 노리기보다 정성스럽게 브루크너의 음악 세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틸레만의 자세는 훌륭하다.

– 틸레만은 2008년 바덴바덴 축제극장에서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동일한 곡을 연주했다. 그 영상물 역시 유니텔클라시카에서 발매되었다. 그것과 비교할 때 8년의 시차가 있지만, 틸레만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소리를 들려준다. 그의 변치 않는 해석과 꿋꿋한 자세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이 영상물을 적극 권한다.

– 음악과 영상의 조화도 일품. 특히 관악 독주의 시작을 잡아내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재빠르며 영상에 더욱더 집중하게 한다. 유니텔 클라시카에서 발매되는 여타 음반과 달리 영상물 재킷에 적힌 비디오 감독 아네스 메흐의 이름이 눈에 띈다. 1080i 해상도의 놀라운 화질과 PCM스테레오/DTS-HD MA5.0/서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옵션. 틸레만과 단원들의 땀방울은 물론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관객석에 앉아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C Major 733708 [DVD]
C Major 733804 [Blu-ray]

2015년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파블로 에라스-카사도(지휘),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 발타자르 노이만 합창단, 롤란도 비야손(연출), 요하네스 리아커(무대미술) 올가 페레티아트코(비올레타), 아탈라 아얀(알프레도), 시몬느 피아졸라(제르몽)

테너에서 연출가로! 롤란도 비야손 연출이 빚은 역작

2015년 5월,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에서 선보인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실황 영상물. 연출을 맡은 롤란도 비야손은 알프레도와 비올레타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배경으로 서커스 무대를 설정했다. 시계의 톱니바퀴와 카지노의 룰렛을 연상시키는 원형무대는 색감도, 그 형태도 인상적이다. 마치 오페라 '돈 지오반니'에 등장할 법한 석상의 복장을 하고 나오는 제르몽의 존재는 이 프로덕션이 초현실주의적인 기법과 서커스로 대변되는 동화적 상상력의 중간에 걸쳐 있음을 증명한다. 총 길이는 139분. PCM스테레오/DTS-HD MA5.1 오디오 옵션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히 담고 있다. '연출가 롤란도 비야손' 컬렉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마니아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2015년 5월,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에서 선보인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실황 영상물이다. 비올레타 역에 적격인 소프라나 올가 페레티아트코의 존재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 테너 롤란도 비야손이 집적 연출했다는 것에 흥미가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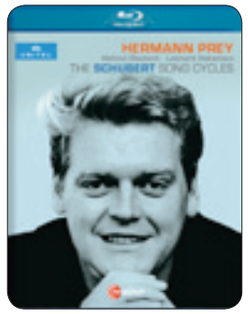
– 롤란도 비야손은 1972년 멕시코에서 태어났다. 11살 때 에스파시오 예술학교에 입학하여 음악, 연기, 춤, 발레를 두루 공부했고, 1990년에 아르투로 니에토로부터 오페라를 위한 레슨을 본격적으로 받았다. 그의 오페라 데뷔작은 2003년 뉴욕 메트에서 선보인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그는 당시 알프레도 역을 맡았고, 200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연출가 윌리 데커 특유의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라 트라비아타'에서 동일한 역을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와 함께 소화해내며 성공적인 '알프레도'로 전세계 오페라계에 안착했다. 이러한 그보다 '라 트라비아타'를 잘 알고 있는 성악가가 있을까.

– 그런 그의 행보는 2012년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의 네모리노 역으로 출연함과 더불어 직접 연출까지 맡았던 것. 전통적인 연출을 완벽하게 탈피하여 화제를 낳았는데, 이탈리아 서부영화를 의미하는 스파게티 웨스턴 스타일로 원작의 19세기 이탈리아 농촌마을을 서부개척시대의 마을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이렇듯 그의 연출 노선은 유럽의 여러 연출가들처럼 뜻밖의 배경을 설정하여 이야기와 전개의 틀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 이 영상물에 수록된 '라 트라비아타' 역시 새로운 배경을 입고 있다. 롤란도 비야손은 알프레도와 비올레타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배경으로 서커스 무대를 설정했다. 시계의 톱니바퀴와 카지노의 룰렛을 연상시키는 원형무대는 색감도, 그 형태도 인상적이다. 마치 오페라 '돈 지오반니'에 등장할 법한 석상의 복장을 하고 나오는 제르몽의 존재는 이 프로덕션이 초현실주의적인 기법과 서커스로 대변되는 동화적 상상력의 중간에 걸쳐 있음을 증명한다.

– 지휘는 2012년 '사랑의 묘약'에서 호흡을 맞췄던 파블로 에라스-카사도.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 올가 페레티아트코와 알프레도 역의 테너 아탈라 아얀은 2005년 잘츠부르크의 무대에 올랐던 비야손과 네트렙코를 연상케 한다. 제르몽 역의 시몬느 피아졸라는 우리에게 낯선 성악가지만, 이 영상을 통해 순식간에 그의 팬이 된다.

– 영상의 총 길이는 139분. PCM스테레오/DTS-HD MA5.1 오디오 옵션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히 담고 있다.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연출가 롤란도 비야손' 컬렉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마니아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영상물이다.



C Major 751304 [Blu-ray]

헤르만 프라이의 슈베르트 3대 연가곡

헬무트 도이치와 레너드 호칸슨 (피아노), 헤르만 프라이 (바리톤)

'갓 쪄낸 찐빵'처럼 친근한 헤르만 프라이의 슈베르트 3대 연가곡

독일의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1929~1998)는 20세기 후반의 리트 연주사에 있어서 4년 선배인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와 쌍벽을 이룬다. 다만 피셔-디스카우가 지극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스타일로 독일 음악의 정통성을 리트에 부여했다면 프라이는 그와 대비되는 서민적인 수수함과 따스한 음색으로 색다른 뉘앙스를 입혔다. 그래서 음악평론가 고 한상우 선생은 클래식 음악방송을 진행하면서 프라이의 음성을 '갓 쪄낸 찐빵'에 비유한 바 있다. 실로 본질을 꿰뚫는 적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겨울 나그네〉, 그리고 〈백조의 노래〉가 모조리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프라이 자신에 의한 간단한 안내가 붙어있다. 게다가 프라이에 대한 38분짜리 다큐멘타리가 보너스로 제공되는 등 무려 4시간이 넘는 성찬이다. 촬영된 시점은 1980년대 중후반이고 헬무트 도이치와 레너드 호칸슨이 피아노를 맡았다. 아무리 슬픈 가락이라도 희망을 담아 노래하는 프라이의 음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특히 〈백조의 노래〉는 어떤 성악가의 노래도 지금까지 DVD로 발매된 적이 없다.

C Major 739208 [2DVDs]
C Major 739304 [Blu-ray]

2015년 바이에른 오페라극장의 보이토 '메피스토펠레'

오메르 메이어 웰버(지휘), 바이에른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 어린이합창단, 롤란드 슈바브(연출), 피에로 빈치구에(무대미술) 르네 파페(메피스토펠레), 조셉 칼레야(파우스트), 크리스틴 오폴라이스(마르게리타), 카리네 바바야냔(엘레나)

악마의 부활, 이보다 더 음산할 수는 없다

2015년 11월, 뮌헨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에 오른 실황물이다. 베이스 르네 파페, 테너 조셉 칼레야, 소프라노 크리스틴 오폴라이스가 출연하는 초호화 캐스팅이다. 연출가 롤란드 슈바브는 뮌헨의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를 배경의 일부분으로 넣었는가 하면, 피에로 빈치구에의 무대 디자인은 메피스토펠레스의 음산한 기운을 위해 어두운 색조와 의상, 그리고 뒷골목의 풍경으로 4막 140분을 관통한다. 이 영상물을 선택하게 만드는 르네 파페는 21세기형 악마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보조자료]

– 2015년 11월 6~11일, 독일 뮌헨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에 오른 실황물이다. 메피스토펠레 역의 르네 파페(베이스), 파우스트 역의 조셉 칼레야(테너), 마르게리타 역의 크리스틴 오폴라이스(소프라노)가 출연하는 초호화 캐스팅이다.

– '메피스토펠레'는 베르디의 후기 명작 '오텔로'와 '팔스타프'의 대본가로 알려진 아리고 보이토(1842~1918)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모티프로 대본과 작곡을 동시에 작업해 유럽 각지에서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지옥의 지배자 메피스토펠레는 파우스트를 유혹해 타락시키겠다고 신과 내기한다. 삶을 한탄하던 노학자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 메피스토펠레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유혹한다. 거래를 통해 젊어진 파우스트는 마르게리타에게 다가가고, 순수했던 그녀의 삶은 파괴된다. 그러나 마르게리타는 참회를 통해 구원받는다. 파우스트는 목가적인 세계에서 아름다움의 화신 엘레나를 만나 사랑을 찬양한다. 파우스트는 인간과 신의 사랑을 모두 경험 한 후, 자신의 이상은 평화로운 하늘나라에 있다고 답하며 신을 찬양한다. 이에 파우스트의 영혼은 구원받고 메피스토펠레는 홀로 지옥으로 돌아간다.

– 현대적인 연출로 유명한 롤란드 슈바브는 뮌헨에 위치한 바이에른 극장의 프로덕션이라는 것을 염두에라도 둔 듯 뮌헨의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를 삽입했는가 하면, 나이트클럽 등의 배경을 통해 메피스토펠레가 지닌 악마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슈바브와 호흡을 맞추는 무대디자이너 피에로 빈치구에라는 어두운 색조와 의상, 뒷골목의 풍경으로 4막 140분을 관통시킨다.

– 1막 '들판에서, 초원에서'를 부르는 파우스트 역의 조셉 칼레야의 매끄러운 성음. 2막에서 메피스토펠레의 아리아 '이것이 둥글고 텅 빈 세계다'를 부르는 르네 파페의 무게와 드라마틱한 표정, 3막 초입에서 마르게리타가 부르는 '어느 날 밤 깊은 바다 속에'는 초호화 캐스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아리아다. 이 장면만을 음미한다고 하여도 이 프로덕션이 지닌 진수의 절반을 맛보는 것이다.

– PCM 스테레오와 DTS 5.1의 오디오 옵션은 바이에른 오페라극장의 관객석에 앉아 있는 듯한 음향 환경을 제공한다.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C Major 738608 [DVD]
C Major 738704 [Blu-ray]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 뉴욕 시티 발레

매건 페어차일드(슈거플럼 요정), 호아킨 데 루즈(기사)/ 클로틸드 오트란도(지휘)

HD화질로 새로 태어난 조지 발란신의 호두까기 인형

뉴욕 시티 발레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지 발란신의 역사적인 호두까기 인형 프로덕션이 링컨 센터 무비스 프레젠츠 시리즈로 발매되었다. 2011년 12월 14일 데이빗 H. 코흐 테아터에서의 공연 실황으로서 발란쉰의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안무와 더불어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무대 세트, 화려하면서도 동화적인 의상들, 그랜드 오페라를 보는 듯한 특별한 시각적 효과들, 12미터가 넘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시청자의 눈길을 단박에 빼앗는다. 1954년 2월 2일 처음 선보인 발란신의 이 호두까기 인형 프로덕션은 60년이 넘은 지금까지 매년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해온 명품으로서, 뉴욕 시티 발레의 프린서펄인 메간 페어차일드와 호아킨 데 루즈의 빼어난 연기와 동작이 프로덕션의 품격을 더욱 높여준다.

[보조자료]

– 1948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발레단인 뉴욕 시티 발레. 미국 발레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발레단으로 평가받는다. 기성 작품의 재공연보다 창작에 무게를 두어 활동해 온 뉴욕 시티 발레는 1933년 무용평론가 링컨 커스틴이 파리에서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을 초빙해 설립했던 아메리칸 발레 학교(School of American Ballet)가 모체다. 처음에는 발레 캐러밴(Ballet Caravan), 발레 소사이어티(Ballet Society) 등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이후에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뉴욕 스테이트 테아터에서 공연을 하다가 현재에는 링컨 센터의 데이빗 H. 코흐 테아터에서 상주하며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고전발레 중심으로 공연을 하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와 더불어 뉴욕의 양대 발레 컴퍼니라고 말할 수 있다.

– C major에서는 링컨 센터 무비스 프레젠츠(Lincoln Center MOVIES Presnets) 시리즈를 처음으로 런칭하며 첫 발매물로 바로 뉴욕 시티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을 선택했다. 이 프로덕션은 뉴욕 시티 발레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러시아 출신의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 1904~1983)이 제작한 고전발레 무대로서, 1954년 2월 2일 처음 선보인 발란신의 이 프로덕션은 60년이 넘은 지금까지 매년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해왔고 TV를 통해서 전미에 방영이 되어온 미국의 대표적인 호두까기 인형 무대로 손꼽힌다. HD화질로 처음으로 녹화된 이 프로덕션은 2011년 12월 14일 데이빗 H. 코흐 극장서의 공연 실황. 발란쉰의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안무와 더불어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무대 세트, 화려하면서도 동화적인 의상들, 그랜드 오페라를 보는 듯한 특별한 시각적 효과들, 12미터가 넘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시청자의 눈길을 단박에 빼앗는다. 발란신의 안무는 마린스키나 볼쇼이와는 조금 다른 동선과 구성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러시아 발레의 느낌을 한껏 살려내면서 동화 캐릭터들의 퍼레이드 장면에서는 발란신만의 현대적인 감수성이 엿보이며 다채로움을 더한다. 특히 어린이역인 마리와 호두까기 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고 2막부터 주인공으로서 슈가플럼 요정과 기사가 등장하여 파티를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 이 두 성인 캐릭터 역을 맡은 메간 페어차일드와 호아킨 데 루즈는 뉴욕 시티 발레의 프린서펄로서 빼어난 솔로 연기와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파 드 되가 프로덕션의 품격을 더욱 높여준다. 여류 지휘자 클로틸드 오트란도의 음악 또한 감각적이면서 유려하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Dacapo 2.110417–22 [6DVDs]
Dacapo 2.110423–25 [3Blu-ray]

라파엘 부르고스 ·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외 3곡 실황

라파엘 부르고스(지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알비나 샤기무라토바(소프라노), 샤롯테 헬레캔트(메조 소프라노), 스코트 맥알리스터(테너), 존 루터(베이스), 페페 로메오(기타)

'최고'의 지휘자와 악단, '최상'의 영상 · 음향 기술이 그려낸 베토벤

스페인 태생의 거장 라파엘 프뤼베크 데 부르고스(1933~2014)가 2012년부터 상임지휘자로 재직했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전곡(9곡)과 로드리고 '아랑웨즈의 협주곡',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이 수록된 영상물이다. 재빠르고 매서운 노장의 지휘봉과 감각으로 무장한 단원들의 호흡이 눈부시다. 독특한 경사와 곡선을 주제로 설계된 코페하겐 홀의 연주를 생생하게 담은 1080p의 초고해상도 화질, 음향을 한올 한올 살려낸 PCM 스테레오 2.0/DST-HD 마스터 오디오 5.0의 오디오 옵션은 눈과 귀에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수록곡]

3장의 디스크물(총 553분 분량)로 구성되었다.

1) Disc 1 :
교향곡 1번 · 2번(2012년 9월 실황), 3번 '영웅'(10월 실황), 4번(2013년 1월)
2) Disc 2 :
교향곡 5번 '운명'(2013년 3월 실황), 6번 '전원'(2013년 4월), 7번(2013년 5월), 8번(2013년 5월)
3) Disc 3 :
– 9번 '합창'(2013년 6월),
– 로드리고 '아랑웨즈의 협주곡'(2013년 3월 실황/기타리스트 페페 로메오가 협연),
–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2013년 6월),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2014년 6월)와 함께
– 97쪽에 달하는 부클릿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덴마크어로 되어 있다. 덴마크의 유명 작곡가이자 오르후스 왕립음악원 교수인 카를 라스무센(b.1946)이 베토벤, 로드리고, 베를리오즈, 슈트라우스의 곡에 대한 해설을 썼다.

[보조자료]

– 스페인 태생의 거장 라파엘 프뤼베크 데 부르고스(1933~2014)가 2012년부터 상임지휘자로 재직했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전곡(9곡)과 로드리고, 베를리오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곡을 수록한 영상물이다.

– 라파엘 프뤼베크 데 부르고스는 1962~1978년 스페인 국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역임 후,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라인 도이치 오페라, 빌바오 심포니, 비엔나 심포니, 몬트리올 심포니 등의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맡은 바 있다.

– 2017년부터 파비오 루이지가 상임지휘자로 임기를 시작 할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은 1925년에 덴마크 방송 협회(DR)에서 발족했기에 덴마크 방송 교향악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덴마크의 국가대표격 오케스트라로 동향의 작곡가 카를 닐센을 위시한 자국과 북유럽 작곡가들의 작품 연주와 녹음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모든 곡을 암보하여 포디엄에 오르는 노장의 지휘봉은 재빠르고 매섭고, 단원들은 노장의 지휘에 맞춰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며 자신들의 사운드를 빚어낸다. 정확한 비트에선 독일풍의 스타일이, 여유 있는 포스에선 라틴 정서가 물씬 풍겨 나온다. PCM 스테레오 2.0/DST-HD 마스터 오디오5.0의 오디오 옵션은 현장의 음향을 생생히 그려낸다.

–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이 상주하는 코펜하겐 홀은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것으로 2009년에 완공된 곳. 1008석의 콘서트홀은 경사와 곡선을 주제로 건축 되었으며, 무대와 좌석 모두 비대칭 구조의 곡선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는 가장 높은 해상도인 1080p의 화질을 자랑하는 이 영상물은 22대의 카메라 워크가 무대와 관객석, 콘서트홀 전경의 생생함을 잡아내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관악 주자의 얼굴을 비추던 카메라가 줌아웃하여 무대 전체를 담고, 이어 더 과감하게 뒤로 빠져 관객석과 홀 전체를 담아내는 식이다. 이처럼 줌업-줌아웃을 오고가는 카메라의 포착력은 과감하고 재빠르다. 또한 카메라를 수평으로 트래킹하여 오케스트라를 수평으로 훑는 장면 역시 인상적이며 보는 이에게 다이내믹함을 선사한다.

– 노장의 무르익은 해석과 정열, 덴마크 최고의 교향악단, 그리고 덴마크의 음악사를 조망하고 있는 다카포 레이블의 첨단 장비와 최고의 스태프들이 총동원하여 만든 걸작이다.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755 [DVD]
Dynamic 57755 [Blu-ray]

이탈리아 카를로 펠리체 극장의 도니제티 '로베르토 데브뢰'

프란체스코 란칠로타(지휘),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알폰소 안토니오(연출), 잔루카 팔라시(의상) 마리엘라 데비아(엘리자베스 여왕), 소냐 가나시(사라), 스테판 포프(로베르토 데브뢰), 김만수(노팅엄 경)

성악가들의 완벽한 호흡과 시각적 감각이 녹아든 1080i60 초고화질 오페라

2016년 3월 20~24일, 이탈리아 제노바에 위치한 카를로 펠리체 극장 실황 영상물이다. 안토니오치의 연출은 팔라시의 화려한 의상과 함께 화려한 16세기 궁궐문화를 무대에 펼쳐놓는다. 로베르토 데브뢰 역의 스테판 포프를 비롯하여 노장의 소프라노 데비아, 노팅엄 경 역의 한국인 바리톤 김만수, 메조소프라노 소냐 가나시 등의 2중창과 3중창은 이 프로덕션과 영상물의 진가를 높여준다. 초고화질 영상과 오디오 옵션은 그들의 목소리와 오페라극장의 울림을 생생히 그려낸다. 한국 · 이탈리아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영어 자막을 갖추었다.

[보조자료]

– 도니제티의 57번째 오페라로서 1837년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에서 초연된 '로베르토 드브뢰'는 그의 '여왕 3부작'으로 불리는 오페라 중 스케일이 가장 작지만 음악적인 풍요로움과 드라마적인 긴밀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도니제티의 명작들에 가려져 자주 연주되진 않지만 가끔 새로운 연출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로베르토 드브뢰. 그는 사라와 사랑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사라는 로베르토가 전쟁에 출정한 후 여왕의 권유에 의해 노팅엄 경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로베르토가 여왕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자 그를 질시하는 귀족들이 반역죄를 그를 몰아간다. 그러나 여왕은 로베르토가 자기 외에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품으면서 반역죄는 살려줄 수 있지만 변심은 용서하지 않겠노라 경고한다. 여왕에게 배척당한 로베르토는 무리하게 정치적 쿠데타를 시도한다. 런던을 장악하고 여왕을 폐위시키려 한다. 하지만 음모는 사전에 발간된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처형된다.

– 이 영상물은 2016년 3월 20~24일, 이탈리아 제노바에 위치한 카를로 펠리체 극장 실황이다. 16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대부분의 연출가들이 현대적 실험보다, 시대를 고증 · 복원한 기법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연출가 알폰소 안토니오치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하며 잔루카 팔라시의 의상과 함께 화려한 16세기의 궁궐문화를 무대에 펼쳐놓는다.

– 엘리자베스 여왕 역은 노장의 소프라노 마리엘라 데비아, 노팅엄 경은 바리톤 김만수, 사라 역은 메조소프라노 소냐 가나시, 로베르토 데브뢰는 테너 스테판 포프가 맡았다. 1막 · 3막에 등장하는 여왕의 엄청난 카바티나와 카발레타에서 데비아가 뿜어내는 위엄에 찬 카리스마는 눈이 부시다. 포프가 부르는 1막의 2중창, 3막 2장의 런던탑에서 부르는 아리아를 듣고 있자니 그가 왜 이 시대의 로맨틱 테너로 각광받는지 알게 된다. 이 밖에 2막 마지막에 여왕, 로베르토, 노팅엄의 드라마틱한 3중창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훌륭하다.

– 1080i60의 초고화질 영상, PCM스테레오2.0/DST-HD 마스터 오디오5.1의 오디오 옵션은 성악가들의 목소리와 오페라극장의 울림을 생생히 그려낸다. 한국 · 이탈리아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영어 자막을 갖추었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63698 [14DVDs]

다니엘 바렌보임 14DVD 박스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세르주 첼리비다케(지휘) · 뮌헨 필하모닉

다니엘 바렌보임의 '역사적 순간'이 궁금하다면!

14장의 DVD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 바렌보임'과 '비르투오소 바렌보임'을 만날 수 있다! 데뷔 50주년에 가진 콜론 대극장 실황, 예루살렘에서 바그너를 연주하기 전에 반대에 부딪힌 영상 다큐멘터리, 완숙기에 이른 모차르트 소나타와 베를린 필과의 협주곡, 종신지휘자를 부여한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한 베토벤 협주곡 전곡, 바흐와 리스트에 보여주는 새로운 이면, 세르주 첼리비다케 · 뮌헨 필과의 브람스 협주곡 등. 이 영상물은 유로아츠와 메트로폴리탄 뮌헨에서 발매된 것을 모아놓은 재발매 박스물이지만, '바렌보임의 재발견'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만큼, 영상속의 그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보조자료]

– 유로아츠에서 내놓았던 다니엘 바렌보임의 영상물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박스물은 바렌보임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궁금하거나, 그 감동을 되씹고 싶다면 반드시 소장해야한다. 14장의 DVD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 바렌보임'과 '비르투오소 바렌보임'을 만날 수 있다.

DVD 1: 데뷔 50주년 기념 독주회로 200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론 대극장 실황

워낙 어린 나이에 연주를 시작한 탓에 당시 그의 나이는 58세에 불과했다. 그는 장기인 모차르트 소나타 10번, 베토벤 소나타 '열정', 알베니즈 '이베리아' 모음곡을 연주한다. 본공연 후 스카를라티 · 쇼팽 · 슈만 · 빌라 로보스 등 무려 11곡의 앙코르가 이어진다. 중간마다 관객들에게 곡목을 알려주고 편안하게 진행하는 바렌보임. 생일을 맞은 바렌보임에게 관객들이 즉석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감동적이다.

DVD 2: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90분 분량 다큐멘터리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텔아비브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유럽과 미국 등지를 오고가는 바렌보임이 여러 정체성을 지녔음을 실감하게 하는 필름이다. 자막은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2001년 예루살렘에서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연주하기 전에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탱고음악을 즐기는 모습은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면이다.

DVD 3~14: '비르투오소 바렌보임'

DVD3 · 4는 1980년대 후반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27번을 촬영한 영상물이고, **DVD5 · 6 · 7는** 1988~1990년에 촬영한 18곡의 모차르트 소나타가 담겨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만들어진 모차르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1989년에 완성된 베를린 필과의 모차르트 연주는 대편성 관현악에서 맛볼 수 있는 세련된 질감과 달관에서 나온 화려한 느낌이 지배적이다.

DVD 8 · 9: 2007년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를 지휘하며 협연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5곡)

2007년은 그가 오토 클렘페러 지휘로 베토벤 협주곡 전곡을 녹음한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는 바렌보임에게 종신 상임지휘자의 영예를 부여한 오케스트라답게 솔리스트이자 지휘자로 가운데 앉은 리더를 지극히 정성스레 배려한다.

EuroArts 2063798 [7DVDs]

DVD 10 · 11 · 12: 리스트 '순례의 해'와 오페라 패러프레이즈
한 군데도 평범하거나 유사한 부분 없이 변화무쌍하게 리스트의 드라마를 풀어간다.

DVD 13: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DVD 14: 첼리비다케가 이끄는 뮌헨 필과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 · 2번을 담았다.

DVD3부터 DVD14에는 흐름이 있다. 초반부가 그의 전매특허인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집중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평범해 보이나 자세히 듣다 보면 템포 설정 하나에도 독특한 고집스러움이 배어나오는 리스트, 바흐, 브람스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영상물은 유로아츠와 메트로폴리탄 뮌헨에서 발매된 것을 모아놓은 재발매 박스물이지만, '바렌보임의 재발견'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만큼, 영상속의 그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유로아츠에서 내놓은 아르헤리치의 다큐멘터리와 공연 실황 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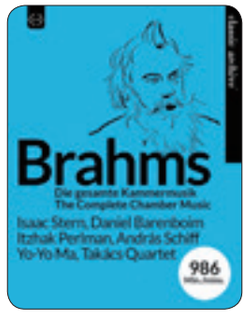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스테파니 아르헤리치(다큐멘터리),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야체크 카스프치크 · 찰스 그로브즈 · 앙드레 프레빈 · 유리 테미르카노프 · 가보 타카치–나기 · 리카르도 샤이(지휘), 미샤 마이스키(첼로), 조슈아 벨(바이올린)

'피아노의 신화 = 아르헤리치'라고 믿는 이들에게
아르헤리치를 애호하고 편애하는 이는 물론 이제 막 피아노 협주곡과 실내악에 눈을 뜬 초심자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한 마디로 그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아르헤리치 영상물이다. 2002년부터 아이디얼 오디언스, 유니텔, 유로아츠에서 제작 · 발매한 영상물을 모아 유로아츠에서 내놓은 이 전집은 7장의 DVD로 되어 있다. 세 명의 남자들과 세 명의 딸을 낳은, 그리고 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르헤리치의 다큐멘터리부터, 쇼팽 · 차이콥스키 · 프로코피예프 · 라벨 · 베토벤 · 슈만 협주곡과 다니엘 바렌보임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한 실내악이 수록되었다.

[보조자료]

– 총 7장의 DVD 중에 첫 장을 트는 순간, 이 영상 전집은 '영상에 담은 아르헤리치의 우주'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게끔 만든다. 2002년부터 아이디얼 오디언스, 유니텔, 유로아츠에서 제작 · 발매한 아르헤리치의 영상물을 모은 전집이다.

DVD 1 & 2: 다큐멘터리 '아르헤리치와 세 딸들'
세 명의 남자들과 세 명의 딸을 낳은, 그리고 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피아노의 여제의 모습을 담았다. 피아니스트 스테판 코바세비치의 딸 스테파니 아르헤리치는 아르헤리치의 모습을 사적인 시선으로 보여준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힌 모습과 손자를 안고 훈훈한 미소를 보여주는 상반된 모습도 인상적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도 상영되어 호응을 받기도 했다.



EuroArts 2064014 [Blu–ray]

DVD 3 : '이브닝 토크'
피아졸라 · 슈만 · 스카를라티 · 쇼팽 등에 관한 그녀의 생각과 특유의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연주가 교차된다. 이 영상들은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폴란드어 자막을 갖췄다.

DVD 4–5–6–7 : 수많은 피아니스트들 중에 아르헤리치에 대해 '애호'를 넘어 '편애'하는 이라면 반색하며 이 전집을 택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피아노 독주보다 협주곡 · 실내악을 선호하는 클래식 입문자나 실내악 · 협주곡의 매력에 눈 뜬 이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1980년대 이후 독주 무대를 극도로 줄였지만 다양한 협주곡과 실내악 레퍼토리들을 연주하며 여러 성향의 파트너들을 만나 셀 수 없는 리허설과 고민을 거치는 완벽주의자의 연주로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만날 수 있다. 찰스 그로브즈 지휘의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 · 앙드레 프레빈 지휘의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3번(DVD4), 유리 테미르카노프 지휘의 라벨 협주곡 · 가보 타카치–나기 지휘의 베토벤 협주곡 2번과 쇼스타코비치 협주곡 1번 · 리카르도 샤이 지휘의 슈만 협주곡(DVD7)은 그야말로 음표들 모두가 살아 숨 쉬는 듯 생기 있는 표정을 만들어낸다. 2014년 다니엘 바렌보임과 함께 한 콜론 대극장 실황(DVD5), 2007년 · 2008년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그녀만의 우정과 후배들을 아우르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아르헤리치를 통해 피아노의 세계로 더 깊이 빠져들 초심자와 이제 클래식의 맛을 알아가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영상전집이다.

브람스: 실내악(2~6중주) 모음곡

아이작 스턴 · 이츠하크 펄먼 · 막심 벤게로프(바이올린), 노부코 이마이(비올라),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안드라스 쉬프(피아노), 요요 마(첼로), 타카치 콰르텟

'레전드' 음악가들이 연주한 브람스 실내악 영상 총집합
유로아츠의 '클래식 아카이브' 시리즈의 하나로, 소니 · 메트로폴리탄 뮌헨 등에서 발매한 브람스의 실내악곡 중 2중부터 6중주까지 명연들을 모은 영상물이다. '레전드'란 이런 것. 스턴, 펄먼, 벤게로프, 바렌보임, 쉬프, 요요 마, 타카치 콰르텟 등 1990년대에 촬영한 영상이지만, 녹음은 멋진 균형감과 초점이 잘 잡힌 소리의 상으로 각 연주공간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2중주 소나타부터 6중주까지 다섯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서 원하는 장르를 택하여 감상할 수 있으며, PCM스테레오/돌비 디지털 2.0의 오디오 옵션을 갖추었다. 986분의 이 영상물 한 장으로 브람스 실내악과 명연주를 한 손에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조자료]

– 유로아츠의 '클래식 아카이브' 시리즈의 하나로, 소니 · 메트로폴리탄 뮌헨 등에서 발매한 브람스의 실내악곡 실내악곡 중 2중부터 6중주까지 명연들을 모은 영상물이다. 대용량의 블루레이/DVD 포맷에 1990년대 유통되던 저용량의 영상물을 꾹꾹 눌러 담았다. 986분의 이 영상물 한 장으로 브람스 실내악과 명연주를 한 손에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부분 1990년대 초 · 중반의 영상물들이니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것들이다. 현재 노장인 음악가들이 중견일 때, 지금 중견음악가들의 풋풋했던 젊은 날의 초상을 통하여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추억 속 젊은 그들과 만날 수 있다. '레전드'란 이런 거다. 1990년대에 촬영한 영상이지만, 녹음은 멋진 균형감과 초점이 잘 잡힌 소리의 상으로 각 연주공간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 보너스 트랙에는 앤서니&요제프 패러토르의 피아노 연탄곡 외에 '하지만 그녀를 위해(But for Women…)'라는 제목의 브람스 관련 다큐멘터리(57분 분량, 영 · 독어 자막)가 수록되었다. 2중주 소나타부터 6중주까지 다섯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서 원하는 장르를 택하여 감상할 수 있다.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1번 Op.78, 2번 OP.100, 3번 Op.108_이츠하크 펄먼(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스케르초 Woo2_다비드 오이스트라흐(바이올린), 프리다 바우어(피아노) ※1962년 파리에서 촬영(흑백) / 첼로 소나타 1번 Op.38, 2번 Op.99_미클로스 페레니(첼로), 졸탄 코치슈(피아노) / 클라리넷 소나타 1번 Op.120–1, 2번 Op.120–2_벤젤 푹스(클라리넷), 엘레나 바쉬키로바(피아노)

3중주
피아노 3중주 1번 Op.8, 2번 Op.87, 3번 Op.101_막심 벤게로프(바이올린), 보리스 페르가멘쉬코브(첼로) / 클라리넷 3중주_벤젤 푹스(클라리넷), 디트마르 슈발케(첼로),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4중주
피아노 4중주 1번 Op.25, 3번 Op.60_ 유우코 시오카와 · 노부코 이마이(바이올린), 미클로스 페레니(첼로), 안드라스 쉬프(피아노) / 피아노 4중주 2번 Op.26_아이작 스턴(바이올린), 제임 라레도(비올라), 요요 마(첼로), 에마누엘 액스(피아노) / 현악 4중주 1번 Op.51–1, 2번 Op.51–2, 3번 Op.67_켈러 콰르텟: 안드라스 켈러 · 야노스 필츠(바이올린), 졸탄 겔(비올라), 오토 케르테츠(첼로)

5중주
피아노 5중주 Op.34_타카치 콰르텟: 가보 타카치 · 카롤리 슈란츠(바이올린), 가보 오마이(비올라), 안드라스 페어(첼로), 졸탄 코치슈(피아노) / 현악 5중주 1번 Op.88, 2번 Op.111_타카치 콰르텟, 노부코 이마이(비올라) ※타카치 콰르텟 · 노부코 이마이 연습 동영상 및 인터뷰(보너스 트랙) / 클라리넷 5중주 Op.115_베를린 솔리스텐:카를 라이스터(클라리넷), 베른트 갤러만 · 베른하르트 하르톡(바이올린), 볼프람 크리스티(비올라), 외르크 바우만(첼로)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56b,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34b_앤서니&요제프 패러토르(보너스 트랙)

6중주
현악 6중주 1번 Op.18, 2번 Op.36_빈 현악 6중주단: 에릭 회바르트 · 페터 마츠카(바이올린), 토마스 리블(비올라), 지그프리트 프루힐링거(비올라), 루돌프 레오폴트(첼로), 수잔나 안(첼로)

EuroArts 2057398 [DVD]
EuroArts 2057394 [Blu-ray]

래틀과 베를린 필의 2008년 송년음악회: 거슈윈 · 바버 · 존 애덤스 · 존 필립 수자 · 코플란드 · 제롬 컨의 미국 레퍼토리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토마스 크바스토프(베이스바리톤), 폴린 마레파네(소프라노)

래틀과 미국음악, 새해를 앞둔 기분 좋은 긴장감의 조화!
2008년 12월 31일,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송년음악회 실황 영상물이다. 거슈윈 · 바버 · 존 애덤스 · 존 필립 수자 · 코플란드 · 제롬 컨 등 미국 레퍼토리와 베이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 소프라노 폴린 마레파네이 함께 한다. 송년음악회라는 특별한 성격을 지우고 본다면 래틀이 안내하는 '미국 음악의 향연'이라 할 수 있겠다.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홀 제작진의 무대 구석구석을 훑는 생생한 카메라 워킹, 1080p의 초고해상도 화질과 PCM 스테레오의 음향, 그리고 2009년 새해를 앞둔 베를린 관객들의 기분 좋은 긴장감이 81분의 영상을 채운다.

[보조자료]

– 2008년 12월 31일,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펼쳐진 송년음악회 실황 영상물이다.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거슈윈 '쿠바 서곡' '파리의 아메리칸',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존 애덤스 '고속 기계를 타고 짧은 주행', 존 필립 수자 '자유의 종'을 연주한다.

– "나의 신체적 결함은 나에게는 장애가 아니라 티눈일 뿐"이라며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베이스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가 래틀의 지휘에 맞춰 코플란드의 민요 '뱃사내의 춤' '다저스' '오래 전' '작은 선물'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샀다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제롬 컨 작곡의 '쇼 보트'의 테마송인 '올 맨 리버'를 부른다. 특히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샀다네'를 부르는 크바스토프가 구사하는 유머러스운 동물 소리와 그것을 포용하는 래틀의 마음새가 관객을 흥겹게 한다.

– 남아프리카 출신의 소프라노 폴린 마레파네가 부르는 거슈윈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썸머타임' '당신은 이제 나의 여자' 역시 미국음악의 정수와 그 특유의 대중적 감수성을 선보이는 연주다.

– 한 오케스트라가 그들만의 정체성과 인지도를 관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송년 · 신년음악회라 할 수 있겠다. 이미 카라얀 시대에 브랜드로 자리 잡은 베를린 필의 송년음악회는 카라얀 시대(1955~1989)에 여느 연주회처럼 근엄하고 치열하며 영웅적인 분위기로 축제의 분위기를 장식했고, 아바도 시대(1989~2002)는 베토벤, R.슈트라우스, 바그너, 슈만, 멘델스존 등 독일 출신의 작곡가들을 조명하는 성격이 강했다.

– 2002년에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래틀은 이전 지휘자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취임한 해의 송년음악회부터 쿠르트 바일, 번스타인, 거슈윈 등은 물론 오르프, 보로딘, 무소르그스키,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코플랜드, 바버, 존 아담스와 같은 영미권 작곡가와 러시아 작곡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 이 영상물은 송년음악회라는 특별한 성격을 지우고 본다면 래틀과 베를린 필이 연주하는 미국 음악의 향연이라 할 수 있겠다. 래틀 특유의 넓은 음악적 반경,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오늘날의 청중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13곡의 미국 음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홀 제작진이 베를린 필하모니의 무대 구석구석을 훑는 꼼꼼하고 생생한 카메라 워킹, 1080p의 초고해상도 화질, PCM 스테레오의 음향, 2009년 새해를 앞둔 베를린 관객들의 기분 좋은 긴장감이 81분의 영상을 가득 채운다.

EuroArts 2059968 [DVD]
EuroArts 2059964 [Blu-ray]

리게티: '아트모스페르',
바그너: '로엔그린' 1막 전주곡,
엘가: 첼로 협주곡,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사이먼 래틀(지휘)
솔 가베타(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래틀의 감각이 펼치는 19~20세기 음악가들의 향연!
2014년 독일 바덴바덴 페스티벌 실황. 리게티 '아트모스페르', 바그너 '로엔그린' 1막 전주곡, 엘가 첼로 협주곡(협연 솔 가베타),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이 담겼다. '아트모스페르'와 '로엔그린' 전주곡은 바로 연결되어 마치 한 트랙처럼 느껴지는데, 이로써 래틀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리게티와 바그너를 무대에서 조우시킨다. 가베타의 연주는 곡예를 펼치는 듯하면서도 첼로 속 묵직함을 하염없이 끄집어낸다. 이어지는 '봄의 제전'은 래틀식 사운드에 입각하여 역시 감각적이며, 원초적이다. 날렵한 카메라 워킹, 1080p의 초고해상도 화질, PCM 스테레오/마스터 오디오5.1의 오디오 옵션은 눈과 귀에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보조자료]

– 2014년 독일 바덴바덴 페스티벌 실황으로, 사이먼 래틀과 베를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 연주하는 리게티 '아트모스페르', 바그너 '로엔그린' 1막 전주곡, 엘가 첼로 협주곡,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이 담겨 있다. 협연에는 첼리스트 솔 가베타가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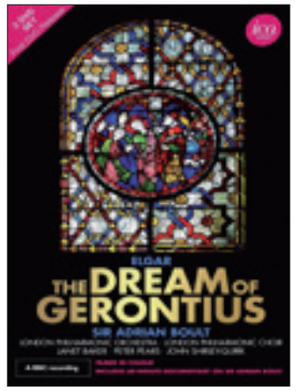
–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삽입곡으로도 유명한 '아트모스페르'에서 현악기들은 침묵에 가까운 소리부터 굉음을 연출하는가 하면, 털이 달린 솔로 피아노의 현을 문지르는 모습을 보면 이 작품은 듣는 재미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도 선사한다. 이 공연(영상)에서 래틀은 놀라운 묘를 발휘하는데, '아트모스페르'에 이어 잠깐의 쉼 없이 바로 바그너의 전주곡을 연주한다. 약 9분의 '아트모스페르'(2트랙)와 약 11분의 바그너 '로엔그린' 전주곡(3트랙)이 맞붙으며 하나의 트랙처럼 느껴지는데, 이로써 래틀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리게티(1923~2006)와 바그너(1813~1883)를 무대에서 조우시킨다.

– 엘가의 첼로협주곡을 협연하는 솔 가베타(b.1981)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유럽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첼리스트다. 아름다운 외모, 섬세함과 치밀함을 두루 겸비한 그녀는 '제2의 쟈클린 뒤 프레'에 비견되기도 한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이미 덴마크 국립교향악단과 레코딩을 한 적이 있는 레퍼토리로 쇼스타코비치, 차이콥스키, 생상과 함께 그녀의 전매특허로 손꼽힌다. 래틀과 함께 하는 그녀의 연주는 곡이 지닌 박진감과 속도감에 힘을 실어 곡예를 하는듯 하면서도 첼로의 음색에 스며 있는 묵직함의 무게를 십분 발휘해낸다.

– 2013년 내한 때, '봄의 제전' 초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주했던 그들의 연주는 영상 속에서도 여전히 묻는 듯하다. '래틀과 베를린 필의 '봄의 제전'만큼 가장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연주가 있을까'라고. 이미 EMI에서 녹음했던 래틀의 '봄의 제전'에 도취되었던 이라면, 이 영상물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직감과 원초적인 느낌을 제공한다. 타악기 연주자 출신답게 래틀은 베를린 필이라는 오케스트라를 거대한 타악기로 활용하듯 이리저리 마구 휘젓는다.

– 당시 베를린 필 아카데미(1972년 카라얀이 만든 인턴십 프로그램)에 재학했던 플루티스트 조성현의 모습도 영상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베를린 필의 디지털 콘서트홀 제작진이 행하는 날렵한 카메라 워킹, 1080p의 초고해상도 화질, 음향을 한 올 한 올 살려낸 PCM 스테레오/마스터 오디오5.1의 오디오 옵션은 눈과 귀에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ICA Classics www.icaclassics.com



ICAD5140 [2DVDs]
+ 1 Documentary DVD

엘가: 제론티우스의 꿈

쟈넷 베이커, 피터 피어스,
존 셜리-쿼크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아드리안 볼트(지휘)

쟈넷 베이커와 피터 피어스가 꾼 제론티우스의 꿈
에드워드 엘가의 대표적인 합창곡인 '제론티우스의 꿈'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 일종의 오라토리오로서 1900년에 작곡되었고 텍스트는 존 헨리 뉴먼의 시를 사용했다. 1899년 '수수께끼 변주곡'을 작곡한 다음 해에 발표된 '제론티우스의 꿈'은 독일공연 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커다란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내용은 한 독실한 신자의 영혼이 신의 심판을 받고 연옥에 떨어지는 이야기로서, 특히 1부 마지막 사제가 영혼을 떠나보내는 대목과 2부 마지막 천사의 자장가의 아름다움이 독보적이다.

수록된 영상물은 엘가 음악의 전문가 아드리안 볼트가 1968년 캔터베리 성당에서 촬영한 컬러 필름으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다. 한편 1989년 BBC에서 제작한 아드리안 볼트 다큐멘터리가 보너스로 수록되어 있어 구매가치를 한껏 높인다.

Naxos

www.naxos.com

Naxos 2.110368 [DVD]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 4번 & 5번

헤닝 크라게루드(바이올린), 노르웨지언 첨버오케스트라(연주)

정교한 짜임새, 경쾌하고 짜릿한 연주

시벨리우스, 신딩, 이자이의 굵직한 작품들에서 부터 노르웨이 작곡가들의 소품에 이르는 폭 넓은 레퍼토리에 이르기까지 고루 뛰어난 연주를 보여준 헤닝 크래거루드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의 카덴차를 작곡하기도 했던 그는 본 DVD에 수록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5번 모두 자신의 카덴차를 사용해 연주하고 있다. 전작들의 정교한 짜임새는 본 DVD에서도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경쾌한 분위기와 공명, 바이올린의 짜릿한 질주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의 몰입을 선사한다.

안드레아 안데르만 감독의 오페라 영화 3부작 디럭스 박스 [4 DVDs / 3 Blu-ray + 160 Page Book]

Naxos 2.110674–77 [4 DVDs]
Naxos NBD0052–54 [3 Blu-ray]

**푸치니: 토스카 [한글자막]

플라시도 도밍고(카바라도시), 캐서린 말피타노(토스카), 루지에로 라이몬디(스카르피아), 로마 RAI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주빈 메타(지휘)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한글자막]

에테리 그바짜바(비올레타), 호세 쿠라(알프레도 제르몽), 로란도 파네라이(조르지오 제르몽), 국립 RAI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주빈 메타(지휘)

**베르디: 리골레토 [한글자막]

플라시도 도밍고(리골레토), 율리아 노비코바(질다), 비토리오 그리골로(만토바), 루지에로 라이몬디(스파라푸칠레), 주빈 메타(지휘)

영화버전으로 감상하는 오페라의 새로운 세계

안드레아 안데르만 프로덕션의 영화 오페라 3부작이 한글자막과 함께 출시되었다. 각 오페라에 등장하는 로마, 파리, 만토바의 역사적인 바로 그 장소에서 모든 장면을 촬영, 영화적인 사실감과 현장감을 고스란히 화면으로 옮겨 오페라 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리얼리즘적인 감동을 준다. 테너와 바리톤으로 등장하는 도밍고와 쿠라, 그리골로의 절창과 영화배우적인 연기가 지극히 감동적이고 소프라노들의 빼어난 미모대결도 몹시 흥미롭다. 물론 메타의 정력적인 지휘가 이 영화 오페라 필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 장의 블루레이와 프로덕션과 작품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진이 포함된 160페이지 해설집, 각 영상마다 40여분 정도의 메이킹 필름이 보너스로 첨가되어 있어 이 디럭스 박스의 구매가치를 높인다. MUST HAVE ITEM!

[보도자료]

– 이탈리아의 명 음악 프로듀서이자 연출가인 안드레아 안데르만(Andrea Andermann) 프로덕션이 제작한 영화–오페라 3부작이 한글자막과 함께 출시되었다. 무려 20여년 사이에 제작된 세 편의 오페라, 토스카(1992), 라 트라비아타(2000), 리골레토(2010) 이렇게 세 작품을 하나의 디럭스 박스로 통합한 것으로서, 이 가운데 토스카와 라 트라비아타는 Teldec 시절 CD와 영상물로 발매되어 잘 알려진 반면 리골레토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접하는 필름과 음원이다. 안데르만 프로덕션의 영화–오페라의 특징은 각 오페라마다 등장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야외촬영을 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영화적인 스케일과 사실감 넘치는 현장감을 고스란히 전달해 준다는 것이 장점. 그러한 만큼 스튜디오에서 세트를 세워놓고 촬영한 1970/80년대 영화–오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화적인 감흥과 역사적인 고증을 전달해 준다.

– 원래의 제목은 Tosca in Rome, La Traviata in Paris, Rigoletto in Mantua으로서 오페라의 배경도시인 로마와 파리, 만토바, 특히 오페라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건물과 장소에서 촬영을 했다. 리골레토의 경우는 만토바의 팔라초 테, 팔라초 두칼레, 테아트로 비비에나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경우는 이탈리아 대사관, 베르사이유의 여왕의 햄릿, 생루이섬 등지에서, 토스카의 경우는 각 막마다 지정된 장소인 발레의 성 안드레아 성당(1막), 파르네세 궁전(2막), 성 안젤로 궁전(3막)에서 촬영을 했다.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났기에 작품 장면마다의 사실성과 스토리의 연계성, 적확한 상황묘사를 통해 작품의 스토리 배경을 자세하게 파악, 음악과 분위기 모두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안데르만 프로덕션 필름의 장점이라고 하겠다.

– 가장 먼저 1992년작 토스카에서는 로마의 각 지역을 배경으로 플라시도 도밍고가 카바라도시, 캐서린 말피타노가 토스카, 루지에로 라이몬디가 스카르피아로 등장하여 강렬함과 드라마적 흡인력을 더하고, 조명에 의한 음영의 대조와 현대적인 감수성이 돋보이는 2000년작 라 트라비아타에서는 비올레타에 에테리 그바짜바, 알프레도에 호세 쿠라, 제르몽에 로란도 파네라이가 등장하여 현대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극을 펼쳐낸다. 특히 이전 시대의 거장 파네라이의 등장이 극에 무게감과 사실성을 더해준다. 마지막으로 스펙타클한 화면과 화려한 색채의 향연으로 가득 찬 리골레토에서는 바리톤으로 변신한 도밍고가 리골레토를, 노비코바가 질다를, 그리골로가 만토바 공작을, 라이몬디가 스파라푸칠레로 등장한다.

– 각 필름마다 음악 외에 적절한 배경음향이 첨가되어 영화적인 사실성을 높이고, 장면 시작전에 짧은 인트로 영상들이 등장하여 극의 전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더불어 각각의 영상마다 메이킹 필름이 첨가되어 있어 프로덕션 제작의 전반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을뿐더러, 16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내지책자에는 로케이션의 지도와 설명, 제작 스토리와 장면 스케치, 프로듀서와 언론의 기사들이 □곡하게 수록되어 있어 소장가치를 한껏 높인다. 반드시 소장해야 할, 영화–오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명 프로덕션이다.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 ARTE

OpusArte OABD7210BD [15Blu-ray]
(22 클래식 발레/ 15개 블루레이)

로열 발레 디럭스 스페셜박스
ROYAL BALLET THE COLLECTION

[수록앨범]

***19th-century classics :**

지젤 (2013)	Giselle (Osipova/Acosta)
라 바야데르 (2009)	La Bayadere (Rojo/Nunez/Acosta)
돈키호테 (2013)	Don Quixote (Nunez/Acosta)
잠자는 숲속의 미녀 (2006)	The Sleeping Beauty (Cojocaru/Bonelli)
호두까기 인형 (2009)	The Nutcracker (Yoshida/McRae)
백조의 호수 (2009)	Swan Lake (Nunez/Soares)

***Frederick Ashton ballets :**

실비아 (2005)	Sylvia (Bussell/Bolle)
말괄량이 아가씨 (2015)	La Fille mal gardee (Osipova/McRae)
랩소디	Rhapsody (Osipova/McRae)

The Two Pigeons (Cuthbertson/Muntagirov)
La Vaise, 'Meditation' from Thais (Benjamin/Hristov)
Voices of Spring, Monotones I and II, Marguerite and Armand (Rojo/Polunin)

***Kenneth MacMillan ballets :**

로미오와 줄리엣 (2012)	Romeo and Juliet (Cuthbertson/Bonelli)
마이얼링 (2009)	Mayerling (Galeazzi/Watson)

***Christopher Wheeldon ballets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11)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Cuthbertson/Polunin/Watson/Yanowsky/McRae)
겨울 이야기 (2014)	The Winter's Tale (Cuthbertson/Watson/Lamb/McRae/Yanowksy/Bonelli)

***Wayne McGregor ballets :**

맥그레거의 세 발레	Chroma, Infra, Limen

발레 줄거리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더불어 로열 발레단과 그들의 레파토리, 안무가에 대한 글이 멋진 화보와 함께 수록된 스페셜 에디션.

[해외 리뷰]

1) "앤서니 도월의 프로덕션은, 19세기의 전통적 모습과 사운드로 궁극의 고전주의 발레를 선사한다."
(더 타임즈 – 백조의 호수)

2) "피치카토 폴카에서 다아시 버셀의 연기는 완벽하다. 뛰어난 비상 실력을 보여주는 아민타 역의 로베르토 볼레와 함께 한 파드되 역시 매혹적으로 빛난다. 절대 놓쳐서는 안될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더 스테이지 – 실비아)

3) "올리버 메슬의 무대 디자인과 페티파의 낭만적 오리지널을 깔끔하게 가미한 애쉬튼의 전형적 안무로 부활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고전적 해석 (2006). 누네즈의 매력은 라이락 요정의 화신으로 피어나고, 코요카루의 오로라는 이 보다 더 황홀할 수 있을까?"
(BBC 뮤직 매거진 – 잠자는 숲속의 미녀 ★★★★)

4) "마리 베체라 역의 마라 갈레아찌는 풍부하고 자연스런 고도의 테크닉으로 시선을 사로 잡았다. 마이얼링 최고의 퍼포먼스 중 하나로 기억될 왓슨의 루돌프는 극을 압도했다."
(더 선데이 익스프레스 – 마이얼링)

5) "ETA 호프만의 불멸의 동화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마스 최고의 가족용 발레. 로열 발레단의 고전적 연출은 마술처럼 멋지다."
(더 선데이 익스프레스 – 호두까기 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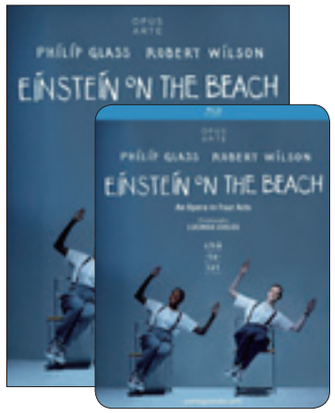
6) "로열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올려진 최고의 클래식 발레 중 하나이다."
(뮤직웹 인터내셔널 – 라 바야데르)

7) "이 유명 스토리를 연출해내는 상상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크리스토퍼 월든의 안무는 탁월한 상상력으로 모든 배역에 딱 들어맞는다."
(뮤직웹 인터내셔널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8) "유쾌하고 즐거운 전형적인 고전 발레. 귓전을 맴도는 밍커스의 오리지널 스코어.... 마리아넬라 누네즈와 아코스타의 불꽃 튀는 명연."
(더 타임즈 – 돈키호테)

9) "나탈리아 오시포바의 지젤은 가장 근본에 충실한 명연이다... 뛰어난 테크닉으로 순수한 선의 아름다움을 주는 동시에 극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신선한 열정을 선사한다. 그녀의 현란한 기교에 대응하는 아코스타의 날카로운 연기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디 인디펜던트 – 지젤 ★★★★★)

10) "솔로 변무에 뒤따르는 경합은 황홀할 지경이다. 맥클레이의 점프 실력과 오시포바의 경쾌한 푸트워에만 기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댄스에서 보여주는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 가디언 – 랩소디 ★★★★)



OpusArte OA1178 [2DVDs]
OpusArte OABD7173 [2 Blu-ray]

OPUS ARTE

필립 글래스 · 로버트 윌슨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필립 글래스(음악), 로버트 윌슨(연출), 루신다 차일드(안무), 마이클 리스먼(음악감독)안토닌 실베르만(아인슈타인 · 바이올린)

20세기 예술의 '고전'이 된 필립 글래스의 역작

1976년 아비뇽에서의 초연 이후 20세기를 흔들었던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2012년 다시 제작되어 세계 투어를 했다. 2015년 10월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기념작으로 오르기도 했던 이 프로덕션이 2014년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선보였던 실황을 담은 것이다. 이 프로덕션의 큰 특징은 출연진(음악 · 무용)이 갖는 오리지널리티이다. 마이클 리스먼이 이끄는 필립 글래스 앙상블이 연주를, 루신다 차일드 무용단 단원들이 직접 출연한다. 오늘날 '고전'이 되어가는 현대음악과 현대연극의 원형을, 원작자들의 정신이 녹아 있는 앙상블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자막은 없고, 영어로만 진행된다.

[보조자료]

–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가 필립 글래스(b.1937)를 비롯하여 안무가 루신다 차일드(b.1940), 연출가 로버트 윌슨(b.1941)이 협업하여 1976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초연된 때는 1976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이다.

– '필립 글래스의 음악작품'이라 해도 좋고, '로버트 윌슨의 연출작'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해변의 아인슈타인'에서 두 거장의 호흡은 용호상박이며 궤를 같이 하는 미니멀리즘 음악과 연극이 최고조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화를 보여준다.

– '해변의 아인슈타인'의 무대는 2012년 다시 제작되어 세계 투어를 했다. 2015년 10월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기념작으로 오른 뒤, 이 공연을 끝으로 무대는 폐기됐다. 이 영상물은 2014년 파리 샤틀레 극장 실황을 두 장의 DVD에 담은 것이다. '해변의 아인슈타인'이라 하면 떠오르는 무대 전체를 지배하는 파란색의 색감, 루신다 차일드의 반복되는 안무 등 이 영상은 다양한 볼거리를 담고 있기도 하다. 영상물에 포함된 55쪽의 두툼한 부클릿(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역시 작품과 영상물에 대한 이론적 무게를 더해준다.

– 무엇보다 이 프로덕션의 특징은 출연진(음악 · 무용)이 갖는 오리지널리티에 있다. 현재 마이클 리스먼이 이끄는 필립 글래스 앙상블이 연주를 맡았고, 11명의 루신다 차일드 무용단 단원들이 직접 출연한다. 오늘날 '고전'이 되어가는 현대음악과 현대연극의 원형을, 원작자들의 정신이 녹아 있는 앙상블을 통해 맛볼 수 있는 것이다.

–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4막과 5개의 막간극이다. 아인슈타인과 관련한 몇 개의 힌트가 극 중에 제시되긴 하지만 특별한 스토리가 없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 반복적인 패턴의 이미지 자체가 플롯과 사건이 될 뿐이다. 앞의 막과 막간극에서 나온 장면이 뒤에서 변주되고 확장되어 간다. 이처럼 수학적이며 건축적인 구성은 관객(시청자)의 이성과 감성이 쌓여가는 틀을 제공한다. 작품이 주는 메시지보다 여러 힌트를 던져 놓고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반복되는 음악을 중심으로 무용 · 조명 · 무대 디자인 등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동등하게 맞물려 로버트 윌슨의 전매특허인 '이미지 연극'의 극치를 보여준다. 강렬한 이미지만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뉴욕타임스가 1999년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꼽을 만큼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세대가 바뀌어도 후대 예술가와 관객에게 새롭게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고전의 자격을 갖췄다. 20세기에 태어나 꽃피운 미니멀리즘 음악, 무용, 연극의 기념비적인 프로덕션 영상물을 소유하고 싶은 이에게 적극 추천한다. 자막은 없고, 영어로만 진행된다.

OpusArte OA1187 [DVD]
OpusArte OABD7180 [Blu-ray]

프레데릭 애쉬튼 안무의 '랩소디'와 '두 마리의 비둘기' 영국 로열 발레 실황

'랩소디' – 나탈리아 오시포바, 스티븐 맥레이
'두 마리의 비둘기' – 로렌 컷버슨(젊은 여인), 바딤 문타기로프(화가), 후미 카네코(집시 여인)

라흐마니노프와 앙드레 메사제의 음악, 로열 발레의 몸짓

로열 발레의 전설적 안무가 프레데릭 애쉬튼(1904~1988)의 '랩소디'와 '두 비둘기'를 담은 영상물로, 로열발레의 일급 무용수들이 출연한다. 1980년 초연된 '랩소디'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Op.43을, 1961년 초연된 '두 마리의 비둘기'는 앙드레 메사제의 음악을 고스란히 배경음악으로 삼았다. 1080p의 초고화질 화면이 담고 있는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웅장한 무대와 수석 무용수들의 열연과 춤도 인상적이지만, 발레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보조자료]

– 세기의 발레리나 마고트 폰테인을 춤추게 했던 전설적 안무가 프레데릭 애쉬튼(1904~1988). 그는 1963년 로열 발레의 종신 안무가가 된 이후 생전 80편이 넘는 작품을 만들었다.

– 이 영상물은 애쉬튼이 안무한 '랩소디'와 '두 비둘기'를 담은 영상물이로, 로열발레의 일급 무용수들이 출연한다. 로열발레 애호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니즘에 도취된 마니아, 카르멘과 같은 집시 풍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에게 적극 추천한다.

– 1980년 로열 발레에 의해 초연된 '랩소디'는 애슈턴의 마지막 작품이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Op.43을 고스란히 배경음악으로 삼았다. 배리 워즈워드 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로버트 클라크가 협연한다. 이 곡의 하이라이트인 제18변주에서 수석무용수 나탈리아 오시포바(발레리나)와 스티븐 맥레이(발레리노)가 펼치는 파드되는 압권적인 향연이다. 라흐마니노프 음악에 내재된 영상미를 발레의 아름다움으로 그려내는 애쉬튼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이 영상물은 1080p의 초고화질 화면이 생생히 그리는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무대도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도 발레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발레 마니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두 마리 비둘기'는 앙드레 메사제(1853~1929)의 음악으로도 유명한 작품. 이 작품은 원래 루이 메란트의 안무로 1886년에 올려졌지만 원전은 전해지지 않으며, 애쉬튼이 19세기 후반 파리의 보헤미안의 삶을 반영한 스토리로 바꾸었다. 자신의 단조로운 삶에 지루함을 느끼는 젊은 화가가 집시 여인과 불같은 사랑에 빠지지만 그의 과오를 용서한 약혼녀와 다시 결합한다는 내용으로 1961년에 로열 발레에 의해 초연된 이 작품은 가볍고 희극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심오하고도 진지한 순결한 사랑에 대한 상실을 담아내고 있다.

– 스테레오와 DTS 서라운드 오디오 환경을 타고 들려오는 배리 워즈워드 지휘와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뿌리 삼아 춤추는 수석무용수 로렌 컷버슨(젊은 여인 역)은 한없이 청순하고, 바딤 문타기로프(화가 역)는 한없이 열정적이며, 제1솔리스트 후미 카네코(집시 여인 역)는 한없이 유혹적이다. 작품은 총 2막. 2막 2장의 집시들의 거주지에서 피어오르는 후미 카네코의 몸짓은 이 작품이 애쉬튼의 '카르멘'으로 승화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 보너스 트랙으로 '랩소디'와 '두 마리의 비둘기'에 대한 소개영상, '두 마리의 비둘기'의 주인공인 로렌 컷버슨의 흥미로운 연습장면이 들어가 있다.

OpusArte OA1220 [DVD]
OpusArte OABD7207 [Blu-ray]

OPUS ARTE

2015년 라 스칼라 '에투알 갈라' 실황
'백조의 호수' 외 12개에 각 발레단 수석무용수(15명) 출연

다비드 콜먼(지휘),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유럽과 러시아 발레의 '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부터 미디어아트와 발레리노의 몸짓이 결합된 '프로토타입'까지 총 13개의 작품에 각 국을 대표하는 유럽과 러시아 발레단의 15명 수석무용수들이 출연한다. 이 영상물은 1080p의 초고화질 화면과 공중 숏까지 사용한 카메라 워킹의 재미, 그리고 인기 레퍼토리, 창작발레의 경향, 각 발레단의 간판스타를 단 하나의 영상물로 만날 수 있는 '발레 지도'와도 같다. 영상물의 길이는 총 2시간 20분. 하나의 작품에 집중하며 보는 것이 어려운 초심자에게 100% 추천하는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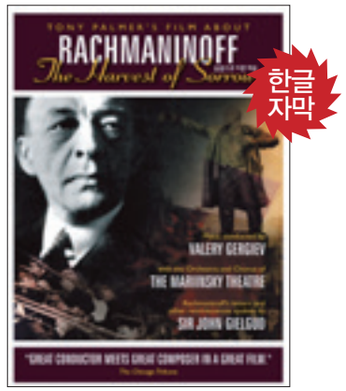
– '별'을 뜻하는 에투알은 발레단(Étoiles)이란 수석무용수를 뜻한다. 이 영상물은 2015년 10월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 오른 에투알 갈라 실황이다. 이 갈라는 2015년 밀라노 세계박람회 폐막을 축하하는 무대로 한국에도 상영되어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 한마디로 발레의 역사에 길이 남을 걸작 중에서도 엑기스만을, 그것도 각 발레단의 '별'들의 춤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1080p의 초고화질 화면이 생생히 그리고 있는 뜨거운 현장. 영상의 총 길이는 2시간 20분이다. 하나의 작품에 집중하여 오래 보는 것이 어려운 초심자에게 100% 추천한다.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부터 미디어아트와 발레리노의 몸짓이 결합된 '프로토타입'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하나의 영상물로 접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가장 많이 추어지는 레퍼토리, 새로 태어나는 창작발레의 경향, 각 발레단의 대표 발레리노와 발레리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발레 지도'이기도 하다.

– 13개의 작품, 15명의 무용수들이 출연한다(*표시는 다른 작품에도 출연하는 무용수다). 벤 스티벤슨 '3개의 전주곡'에 바이에른 발레 루시아 라카라(*)와 디노 마를런(*), 케네스 맥밀란 '마농 이야기' 중 1막 2장 파드되에 로열발레의 멜리사 해밀턴과 라 스칼라 발레의 클라우디오 코비엘로, 롤랑 프티 '병든 장미'에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마리아 아이슈발트(*)와 라 스칼라 발레의 믹 제니, 빅토르 그소브스키 '그랑파 클래식'에 마린스키 발레의 알리나 소모바와 미하일로프스키 발레의 레오니드 사라파노프(*), 롤랑 프티 '카르멘' 중 파드되에는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폴리나 세미오노바와 로베르토 볼레(*), 미하일 포킨 '백조의 호수' 중 백조 독무는 라 스칼라 발레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마리우스 프티파 '돈키호테' 중 3막 파드되에는 라 스칼라 발레의 니콜레타 먼니와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이반 바실리예프(*), 제럴드 알피노 '이슬비' 중 2인무는 바이에른 발레의 루시아 라카라(*)와 디노 마를런(*), 케네스 맥밀란 '로미오와 줄리엣' 중 1막 6장 파드되는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마리아 아이슈발트(*)와 라 스칼라 발레의 마시모 무르, 유리 그리고로비치 '스파르타쿠스' 중 파드되는 볼쇼이 발레의 마리아 비노그라도바와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이반 바실리예프(*), 마시밀리아노 볼피니 '프로토타입'에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폴리나 세미오노바와 로베르토 볼레(*), 마리우스 프티파 '해적' 중 파드되에 라 스칼라 발레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와 미하일로프스키 발레의 레오니드 사라파노프(*), 그리고 15명의 무용수들이 총출연하여 스테파니아 볼런 '시간의 춤'으로 막을 내린다. 다비드 콜먼이 지휘하는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Aulos Media

www.aulosmedia.com



ADVD-075 [DVD]

라흐마니노프 다큐멘터리
'슬픔으로 이룬 예술'

토니 팔머(감독)
발레리 게르기예프(지휘 · 음악감독)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 합창단
존 길구드 경(나레이션)

음악과 영상으로 읽는 라흐마니노프 전기

라흐마니노프(1873~1943)에 관한 영상 다큐멘터리다. 영국의 토니 팔머(1941~)가 메가폰을 잡은 102분 분량의 영상물로 러시아 · 스위스 · 미국 등을 배경으로 작곡가의 삶을 조명한다. 마치 노년에 이른 라흐마니노프가 자신의 여정이 담긴 영상물을 함께 보며 옆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97세 존 길구드 경의 나레이션, 게르기예프와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 합창단이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대작곡가의 사진과 러시아의 현실을 담은 흑백 영상을 적신다. 자막은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보조자료]

– 라흐마니노프(1873~1943)에 관한 영상 다큐멘터리. 그의 손자인 알렉산더 라흐마니노프의 적극적인 참여로 러시아 · 스위스 · 미국 등에서 촬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천재 작곡가의 작품과 삶을 조명한다.

– 102분의 영상은 (1)나는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2)가족 별장 이바노프카, (3)알레코, (4)교향곡 1번, (5)전쟁과 혁명, (6)미국, (7)망명, (8)Senar(스위스 루체른 호반 부근의 저택이름), (9)만년, (10)다시 미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었다.

– 영국감독 토니 팔머(1941~)가 메가폰을 잡았다. 그는 1997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게르기예프의 지휘로 오른 '파르지팔' 감독을 하며 게르기예프로부터 라흐마니노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제작한 것이다.

– 이 영상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나는....." "내 첫 교향곡....." 등으로 울려나오는 나레이션이다. 이 육성은 마치 노년에 이른 라흐마니노프가 자신의 삶과 여정이 담긴 영상물을 함께 보며 옆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토니 팔머 감독은 라흐마니노프의 손자 알렉산더의 도움으로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편지들을 참조하여 이야기를 짰고, 충분한 품위와 연륜을 갖추고 진지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연출하기 위해 97세의 존 길구드 경을 나레이터로 투입시켰다. 이 다큐멘터리의 구상단계에서 반대했다던 손자 알렉산더는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로 친절히 안내하고, 보는 이와 추억을 공유한다.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라흐마니노프의 사진과 그가 살았던 러시아의 현실을 담은 흑백 화면을 적신다.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자막을 갖췄다.

ADVD-074 **[DVD]**

라 모네 극장의 라흐마니노프 오페라 3부작
– '알레코'
– '인색한 기사'
–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미하일 타타르니코프(지휘), 라 모네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키르스텐 데홀름(연출)
코스타스 스모리기나(알레코), 세르게이 레이페르쿠스('인색한 기사' 중 바론),
안나 네차에바(프란체스카) 외

불어권 극장에서 느끼는 러시아 음악의 저력!
라흐마니노프의 오페라 3부작 '알레코' '인색한 기사' '리미니의 프란체스카'를 담은 영상물로, 2015년 6월 브뤼셀 라 모네 극장 실황이다. 단순한 오페라무대가 아닌 오페라연출이 진하게 가미된 오페라 콘서트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연출, 마린스키 등 러시아 주요 극장에서 잔뼈가 굵은 미하일 타타르니코프의 지휘, 그리고 세 작품의 주연보다 더 중요한 조연은 러시아 출신의 주요 성악가들이 맡아 러시아의 음악적 힘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불어권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러시아 음악의 저력을 담은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라흐마니노프의 오페라 3부작 '알레코' '인색한 기사(The Miserly Knight)' '리미니의 프란체스카(Francesca da Rimini)'를 담은 영상물이다. 2015년 6월 브뤼셀 라 모네 극장에 오른 3부작의 지휘는 러시아 출신의 미하일 타타르니코프가 맡았다. 마린스키 극장과 마카일로프스키 극장 등 러시아의 전통이 흐르는 곳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안나 네트렙코, 흐보로스토프스키, 바딤 레핀 등 동향의 음악가들과도 호흡을 맞춰온 인물. 스웨덴 출신의 키르스텐 데홀름이 연출을 맡은 이 프로덕션에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피트가 아닌 무대에 올라 성악가들과 함께 한다. 단순한 오페라무대가 아닌 오페라연출이 진하게 가미된 오페라 콘서트 버전으로 생각해도 좋다. 키르스텐 특유의 튀는 색채의 의상, 무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계단, 무대를 3차원적으로 확장시키는 영상 기법 등은 라 모네 극장이 프로덕션의 실험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입증하는 요소들이다.

– 라흐마니노프하면 피아노 독주와 협주곡을 떠올리지만, 작곡가로서의 가능성과 천재성을 입증시켜준 장르는 오페라였다. 특히 '알레코'는 그가 모스크바음악원 작곡과정을 마치기 위한 시험작품으로 18세 때에 완성한 것으로 졸업시험에서 1등을 안겨준 작품.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알레코'는 비극이다. 귀족생활에 싫증을 느낀 알레코, 그와 사랑에 빠지는 집시 여인 젬피라.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뤄질 수 없다. 그리고 알레코는 젬피라가 젊은 집시 청년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질투에 불타 집시청년을 살해하는 내용이다. 알레코 역의 베이스 바리톤 코스타스 스모리기나스는 깔끔한 마스크와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작품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 '인색한 기사'는 절친한 우정을 나누었던 동갑내기 베이스 표도르 샬리아핀을 위해서 볼쇼이 시절인 1906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평생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이 돈을 흥청망청 낭비할까 염려에 빠진 늙은 수전노와 그 아들의 이야기다.

– '리미니의 프란체스카'는 단테의 '신곡'의 연옥편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자신을 속인 약혼자 지오반니와 그의 동생 파올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다. 자신의 못 생긴 외모를 대신하여 잘생긴 파올로를 자신이라고 속인 지오반니.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끝내 파올로와 사랑에 빠지고 둘은 지오반니에게 들켜 죽임을 당한다. 두 프로덕션의 탁월한 선택은 러시아 출신 성악가 중심의 탁월한 캐스팅에 있다. '인색한 기사'의 러시아 출신 바리톤 세르게이 레이페르쿠스, '리미니의 프란체스카'의 소프라노 안나 네차에바 등의 성량과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한 연기력이 압권이다. 한마디로 이 영상물은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의 오페라 3부작을 동향(同鄕)의 지휘자와 성악가들이 훌륭하게 빚고 있는 작품이다. 영상물은 한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자막을 갖췄다.

Accentus LP
www.accentus.com

accentus music

ACC 40308 **[180g 2LPs]**
바흐: 푸가의 기법
주 샤오 메이(피아노)
깊은 호흡, 참신한 해석에 빛나는 주 샤오만의 바흐
중국 태생의 피아니스트 주 샤오 메이는 1964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유럽음악 연주 금지로 연주를 그만두어야 했으며, 그 후 5년간의 몽골의 수용소에서 몰래 악보를 복사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이버곡집 전곡과 골드베르크 변주곡 녹음 등으로 바흐음악의 깊이를 탐구해온 주 샤오의 의지와 깊이 있는 연주는, 바흐가 8년 동안 공들였다는 '푸가의 기법'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단순 · 반행 · 대칭푸가 등 총 20곡의 배열을 어떻게 하는가도 연주만큼 중요한 이 곡의 연주와 배열에 대한 주 샤오 메이만의 진지한 자세를 느낄 수 있다. 명료한 음색을 담은 녹음 컨디션도 최상급이다.

ACC 40350 **[180g 2LPs]**
바흐: 인벤션과 신포니아
주 샤오 메이(피아노)
바흐의 교과서 음악에 유려하고 부드러운 흐름을 더한 독특한 해석
깨끗한 녹음, 유려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바흐를 애호하는 마니아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음반이다. 바흐의 인벤션과 신포니아는 아들 프리데만을 위해 쓴 곡으로, 평균율 클라비어곡집과 함께 바흐의 교육적인 작품을 대표하는 명작이다. 음을 이어 선율을 노래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당시 작곡된 곡이지만, 주 샤오 메이는 해석과 기교는 능수능란하게 이 곡을 '노래'한다. 1964년 문화대혁명기의 시련과 이후 5년간 몽골 수용소 복역 등을 이겨낸 중국 피아니스트가 깊이 천착해온 바흐 해석과 그 탐구심이 빛을 발하는 음반이다.

ACC 40274 **[180g LP]**
아바도가 지휘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1번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아바도가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브루크너 교향곡 1번의 루체른 실황
아바도가 지휘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1번!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바도는 특이하게도 브루크너의 다른 곡보다 1번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있다. 젊은 시절 Decca에서, 1990년대 중반에 DG에서 빈필과 녹음한 적이 있는데, 2012년 루체른 실황은 세 번째 녹음이 된다. 특히 첫 번째 버전 '린츠'가 아닌, 두 번째 버전 '빈'을 연주하여 더욱 음악적 완성도가 높다. 아바도는 익숙한 루체른 KKL홀에서 최상의 음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균형 잡힌 완급조절과 특색이 살아나는 장면 전환으로 탁월한 드라마를 만든다.

Arthaus LP

www.arthaus-musik.com

ARTHAUS MUSIK

Arthaus 109291 [2DVD + 180g 2LPs]

영상으로 보는 클렘페러의 발자국과 마지막 마침표 – LIMITED EDITION

필로 브레그스테인(감독), 오토 클렘페러(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다니엘 아드니(피아노)

[구성]

* 1 DVD (100분): 다큐멘터리 '그의 시간을 통한 긴 여행'
* 1 DVD (74분): '마지막 콘서트' 및 보너스 필름
* 2 180g LP: 마지막 콘서트 실황음반
* 180 페이지의 하드커버 부클릿:
  (두 편의 다큐멘터리에 관한 글, 감독을 맡았던 필로 브레그스테인이 직접 쓴 1971년 마지막 콘서트의 뒷이야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클렘페러의 지휘에 녹아 있는 국제적 스타일과 고전과 모던함, 녹음철학, 그리고 상세한 연보가 담겨 있다.)

오토 클렘페러 다큐멘터리 '그의 시간을 통한 긴 여행'와 '마지막 콘서트' / 1971년 은퇴 공연 실황 음반

지휘자 오토 클렘페러(1885~1973)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1971년 마지막 콘서트 실황 음반으로 구성된 전기물이다. 1973년부터 클렘페러와 작업해 온 영화감독 필로 브레그스테인은 사진 · 악보 · 육성 · 인터뷰 자료를 구성하여 클렘페러의 인생과 음악사상을 전한다. 리마스터링된 1971년 공연 실황 음반에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닫는 노장 클렘페러만의 비장미와 역사적 순간이 전하는 전율이 느껴진다. 180쪽 분량의 부클릿(독일 · 프랑스 · 영어)은 이 영상물의 소장가치를 더욱더 높인다. 다큐멘터리는 독일 · 프랑스 · 일본 · 한국 · 영어 자막을 갖추었다.

[보조자료]

– 독일 지휘계보의 전통과 적통을 잇는 오토 클렘페러의 삶과 음악에 대한 영상 다큐멘터리와 은퇴 공연 실황이 함께 있는 박스물이다. 1973년부터 클렘페러의 영상을 담아온 영화감독 필로 브레그스테인이 수집한 영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클렘페러의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것이다.

– 클렘페러는 1885년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난 유태계 오스트리아인이다. 어렸을 때 함부르크로 이사하여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에서 공부했다. 1906년 베를린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데뷔함으로써 지휘자로 출발했고, 이듬해 말러의 강력한 추천으로 프라하 독일 극장에 데뷔했다. 이후 함부르크 오페라, 바르멘 오페라, 스트라스부르 오페라, 쾰른 오페라, 비스바덴 오페라, 크롤 오페라, 베를린 슈타츠오퍼 지휘자를 역임했다. 나치에게 추방당해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는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1947년부터 유럽에서 부다페스트 국립극장,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1971년 마지막 콘서트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1973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사망했다. 이 영상물에는 다큐멘터리 '그의 시간을 통한 긴 여행'(1DVD, 100분)과 '마지막 콘서트'(2DVD, 74분/보너스 필름 35분), 마지막 콘서트 실황 음반(2CD, 88분), 하드커버로 된 두툼한 부클릿(180쪽)으로 구성되었다.

–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독일 · 프랑스 · 일본 · 한국 · 영어 자막을 갖추었다. 다큐멘터리 '그의 시간을 통한 긴 여행'은 '새로운 소리를 찾아서' '틀에 박힌 무대극에의 저항' '크롤 오페라의 실험' '망명' '새로운 희망 새로운 좌절' '부활' 등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클렘페러의 육성은 역사적이었던 순간들을 기억해낸다. "저는 뉴욕의 말러에게 전보를 쳐서 함부르크로 추천장을 써 달라고 했어요. 그의 답장은 '클렘페러를 잡아라'였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콘서트'는 1971년 은퇴 공연의 리허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딸 로테 클렘페러를 비롯하여 클렘페러와 함께 한 많은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의 육성이 흑백사진, 클렘페러의 영상과 육성과 어우러지며 20세기를 강타했던 거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려간다. '마지막 콘서트'에 이어지는 보너스 필름(35분)은 에른스트 블로흐와 피에르 불레즈가 말하는 클렘페러의 음악세계, 그리고 1971년 마지막 공연의 리허설 영상이 담겨 있다. 블로흐와 불레즈의 육성은 독일 · 프랑스 · 영어 자막으로 되었다.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PCM 스테레오이다.

– 두 장의 CD, LP 는 1971년 9월 26일 런던 로열페스티벌 홀에서 있었던 마지막 콘서트 실황으로 디지털 리마스터링 앨범이다. 클렘페러가 수석지휘자 · 종신지휘자로 있었던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베토벤 '슈테판 왕' Op.117,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협연 다니엘 아드니 협연), 브람스 교향곡 3번이 들어 있다. 180쪽 분량의 하드커버 부클릿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되었다. 두 편의 다큐멘터리에 관한 글, 감독을 맡았던 필로 브레그스테인이 직접 쓴 1971년 마지막 콘서트의 뒷이야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클렘페러의 지휘에 녹아 있는 국제적 스타일과 고전과 모던함, 녹음철학, 그리고 상세한 연보가 담겨 있다.

Aurora LP

www.aurora.ws

CDS 043 [180g LP]

파가니니: 루카 소나타 1집

비안키(바이올린), 프레다(기타)

여인에게 헌정된 사랑의 노래 파가니니 〈루카 소나타〉

루카에서 작곡된 곡으로 오페라라고 불리워지는 6개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나폴레옹 왕지비, 마담 프라셍, 마담 T 등 대부분 여성에게 헌정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기교보다는 여인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바탕이 된 찬연한 정서의 흐름이 느껴진다. 비앙키의 바이올린은 아리아풍으로 부드럽고 밝은 선율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프레다의 기타는 나긋한 표정의 핑거링으로 정겨운 화음을 다듬어 낸다.

CDS 294 [180g LP]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12개의 소나타 (루카 소나타 2집)

비안키(바이올린), 프레다(기타)

파가니니 생애중 제 2기에 속하는 루카에서 1805–1808년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보인다. 다이나믹사가 루카소나타 1집에 이어 발매한 2집은 간결하면서도 노래하는 듯한 선율이 매우 아름다워 파가니니 애호가 뿐만 아니라 클래식 초보자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레코딩이다.

Berliner Philharmoniker LP *www.accentus.com*

BPHR160041 [180g 6LPs SET]

브람스: 교향곡 전집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니커

아날로그 레코드 방식(다이렉트 디스크 레코딩)으로 녹음 제작된 래틀과 베를린필의 최신 브람스교향곡 전집
***지휘자의 사인과 발행 번호가 새겨진 한정반**

[수록곡]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73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교향곡 4번, E단조, 작품 98

[녹음]
2014년 9월 베를린 필하모니 라이브 녹음

[레코딩 사용기기]
다이렉트 디스크 레코딩
원-포인트 마이크 셋업
마이크 : 젠하이저 MKH 800 Twin, 블룸라인 배열 방식
디스크 커팅 레이드 : 노이만 VMS 80

[제작]
에밀 베를리너 스튜디오

[톤 마이스터]
라이너 마일리아드 (독일 그라모폰 황금시대의 녹음 엔지니어)

[보너스]
증명서 – 레코딩 프로듀서 라이너 마일리아드의 자필 서명
레코딩 세션 사진 2장 (C-타입 프린트)

[트레일러 주소]
https://youtu.be/qBf3OBMjRAg

Farao LP *www.farao-classics.de*

V 107302 [180g LP]

R.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켄트 나가노(지휘)

14세의 거침없는 젊음과 알프스의 위용을 동시에 그린 명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알프스를 매우 좋아했지만 몸이 약해서 등정을 거의 하지 못했다. 열네 살 때에 길을 잃고 폭풍도 만나는 등 고생하면서 알프스를 등정했던 적이 있었는데, 51세가 되어 그 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알프스 교향곡〉을 작곡했다. 해가 뜰 때부터 정상에 이른 후 다시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의 여정을 악장 구분 없이 22개 부분으로 나누어 묘사하여, 교향곡이라기보다는 교향시에 가깝다. 나가노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는 음색의 아름다운 배합과 중후한 음향으로 14세의 거침없는 젊음과 알프스의 위용을 동시에 그려낸다.

KKV(Kirkelig Kulturverksted) LP *www.kkv.no*

FXLP 221 [180g LP]

카리 브렘네스: Norwegian Mood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여성 싱어 송라이터 카리브렘네스가 영어로 노래한 신작
2000년 힐켈리흐 레이블의 회심작이다. 보사노바풍의 'A LOVER IN BERLIN', 록음악의 요소가 가미되어 드라마틱하게 구성된 'MY HEART IS POUNDING LIKE A HAMMER'등 한곡도 버릴 수 없는 명작이다.

MDG LP

www.mdg.de

MDG 121 1982–1 [180g LP]

ENCORES
– The Audiophile Sound of MDG

후기 바로크부터 고전에 이르는 18세기 음악의 향연

독일의 후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바흐, 헨델, 텔레만과 함께 모차르트의 음악을 수록했다. 모차르트의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중 유명한 1악장을 비롯하여 여러 활기찬 디베르티멘토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중 우리 귀에 익숙한 폴로네이즈와 바디네리, 헨델의 '할렐루야' 만큼이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시바의 여왕' 서곡〉 등 '앙코르'라는 타이틀에 맞게 우리에게 낯익은 작품들로 채워져 18세기 음악의 향연을 벌인다. 이외에도 CPE 바흐의 감상에 젖은 〈첼로 협주곡〉 2악장과 텔레만의 유쾌한 〈목가풍의 서곡〉이 수록되었다.

Proprius LP

www.proprius.com

PROP 7762 [180g LP]

Cantate Domino

린더(오르간), 멜내스(소프라노), 오스카 모테트합창단

우리 민요 "아리랑" 편곡으로 더 잘 알려진 음반

프로피리우스의 음악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반

세계의 대표 성가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알프 린다르의 오르간 독주를 간간이 수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민요 아리랑을 영국의 말콤 서전트가 편곡해 "자장가"라는 타이틀로 수록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재현하는 우리의 민요 아리랑의 새로운 해석이 돋보이는 음반이다. 시종일관 단정하면서도 풍성한 울림이 매우 매력적이다.

PROP 7778–79 [180g 2LPs]

재즈 앳 더 폰샵_ Jazz at the Pawnshop

아르네 돔네러스(섹서폰, 클라리넷), 벵트 할베르크(피아노), 게오르그 리델(베이스), 라스 에르스트란드(비브라폰) | 예질 요한센(드럼)

오디오 마니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재즈 오디오 파일용 음반

1976년 조그마한 재즈클럽에서 녹음된 이 음반은 지금껏 발표된 어느 라이브 음반보다도 생생한 현장감과 뛰어난 녹음을 자랑한다. 특히 아르네 돔네우스 퀸텟이 들려주는 클라리넷과 비브라폰 연주는 미국의 그 어느 재즈밴드보다도 스윙감이 물씬 풍기는 감칠 맛나는 재즈를 선사한다.

PROP 7853 [180g LP]

복음성가를 부르는 새로운 방식_ Now the Green Blade Riseth

베르크 (오르간), 스요크비스트(지휘), 스톡홀름 대성당 합창단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 흔들리는 이에게 평화를 주노라

전통적인 성가라 하면 오르간의 경건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떠올린다. 어쩌면 너무나 틀에 박혀 있는 음악이라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떨치게 하는 음반이다. 기타와 플루트 그리고 한결 부드러워진 오르간의 울림, 잘 정리되어 울려 퍼지는 스톡홀름 대성당 합창단의 음성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이 음반은 1976년 새롭게 정리된 '스웨덴 성가집'에서 뽑은 곡들로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Spread your wings over me'가 포함되어 있다.

RCO Live LP

www.concertgebouworkest.nl

RCO 16007 [180g 2LPs]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실황 *[1000 copy limited edition]*

다니엘레 가티(지휘),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새 바람을 일으킬 다니엘레 가티와 콘세르트헤바우의 진한 입맞춤

2016/17시즌부터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에 취임한 다니엘레 가티의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리스트의 교향시 '오르페우스',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연주 실황이다. 사운드는 이 오케스트라의 상주홀로 유명한 콘세르트헤바우의 고풍스러운 문양부터 현장에서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폭풍 같은 템포에서도 두 발을 단상에 딱 붙이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지휘하는 가티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다. 마리스 얀손스의 전통을 이으며, 이 곡의 근본적인 음악적인 면을 성공적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할 명반이다.

Solo Musica LP

www.solo-musica.de

SMLP 210 [180g 2LPs]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LP Deluxe Edition Special Analog Mastering 180g Audiophile Vinyl Pressing

마야 베버(첼로) / 페르 룬드베리(피아노)

베토벤이 남긴 다섯 편의 첼로소나타들은 베토벤 자신의 성품과 음악스타일을 축약시켜놓은 작품이라 말할 수 있으며, 독주 악기로서 첼로의 가능성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기념비적인 작품들이다. 스트라디바리 현악사중단의 멤버인 스위스의 첼리스 마야 베버와 스웨덴 출신의 실내악 전문 피아니스트 페르 룬드베리가 베토벤의 첼로소나타 전곡에 도전하였다. 레코딩에 사용된 1717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첼로 '수기아'의 그윽하고도 풍성한 저음이 작품들의 매력을 더욱 진하게 배가시킨다.

Wiener Symphoniker LP

www.wienersymphoniker.at

WSLP 001 [180g 2LPs]

말러: 교향곡 1번

파비오 루이지(지휘) / 빈 심포니커

빈 필과 더불어 음악도시 빈을 대표하는 양대 악단인 빈 심포니커가 자신들의 자체 레이블을 런칭하였다. 첫 음반으로는 현 수석지휘자인 이탈리아 출신의 마에스트로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한 말러의 교향곡 1번이 선정되었다. 2012년 5월의 최신 스튜디오 레코딩으로, 루이지의 지휘는 섬세한 디테일과 호방한 스케일 양쪽 모두에서 큰 만족감을 주며 이를 뒷받침하는 빈 심포니의 일사불란한 연주 또한 훌륭하다.

Silkroad LP

www.silkroadmusic.net

VOL.1	Bach	SRM012LP
VOL.2	Beethoven	SRM015LP
VOL.3	Mozart	SRM026LP
VOL.4	Viotti	SRM030LP

바이올린 벨기에 악파
최후의 대표 바이올리니스트 "롤라 보베스코"의 대표적인 녹음

루마니아의 크라이오바 태생. 아버지 한테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불과 6세 때 첫 콘서트를 가진 신동으로, 오늘날 처럼 미도리, 장영주 등이 없던 시절에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나타난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였다. 어린 나이로 유럽 전역의 중요 도시에서 많은 연주를 해 보였던 그녀는, 따라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신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프랑스 악파의 두 거장인 마르셀 샤이유에와 쥘 부셰리에게 사사하였고, 그곳에서 불과 12세의 나이로 최우수 바이올린 상을 받았다. 그녀의 이력은 점점 더 화려해졌다. 1937년 브뤼셀의 유진 이자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그녀는 최연소 수상자로 결정됨에 따라 그녀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할만한 연주자로 급부상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악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3번이나 초청 협연을 했고, 앙세르메, 첼리비다케, 켐페, 폰 마타치치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이 그녀를 불러 함께 연주했을 만큼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보베스코는 1980년 이래 그녀는 일본에서 정규적으로 협연하거나 독주회를 개최해왔다. 따라서 그녀는 최근에는 유럽 보다는 일본에서 더 유명한 음악가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녀는 일본 내에 중요한 팬 클럽까지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중요한 음반들은 일본의 킹 레코드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물론 그녀의 레코딩 중의 몇몇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휩쓸기도 하였다.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기는 하지만 그녀는 유진 이자이 실내악단을 창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몇 년 동안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그녀는 베리오(Bériot)에 의해 형성되었고, 비외땅, 이자이, 마르시크 그리고 그뤼미오를 잇는 벨기에 바이올린 악파의 최후의 대표자이다.

SRM027LP **[독일제작 180g Super 2LP]**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살바토레 아카르도(바이올린)

파가니니가 사용하던 귀하디 귀한 명기 1743년산 과르네리로 파가니니 최고의 연주자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연주한 베스트음반

선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로 최고의 파가니니 연주가인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프란체스카티 편곡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비단결보다도 더 질감이 좋을 것 같은 톤으로 연주해준다. 나탄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가니니아나', 요제프 수크의 '사랑의 노래'도 가슴을 녹인다.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는 아카르도의 신기에 가까운 바이올린 기교를 만끽하게 한다. 요하힘이 편곡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엘가의 '카프리스', 라벨의 '하바네라 형식의 소품', 드뷔시의 '달빛'등도 명기의 소리로 들을 수 있다.

SRM037 **[180g 2LPs]**

바이올린 소품집 '상심'

엘리사 리 콜조넨(바이얼린)

메마른 감수성을 깨우는 콜조넨의 애잔한 바이올린 선율

엘리사 리 콜조넨은 헨릭 셰링 상을 수상하고 칼 플레쉬 콩쿨에서 실버 메달을 획득하면서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내한공연도 수차례 가졌다. 콜조넨은 '하트브레이크'라는 이 음반에 애잔한 소품들을 수록했다. 쇼팽 〈녹턴〉과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리스트 〈위안〉, 마스네 〈타이스〉, 차이코프스키 〈감상적인 왈츠〉, 라벨 〈파반〉 등 최고의 작품들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연주를 들려준다. 홍난파의 〈사랑〉은 놓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

SRM038 **[독일제작 180g 슈퍼 2LPs]**

사라사테 예찬 (구, Dorian 레이블, 최고의 바이올린 소품집)

레이첼 바튼(바이올린), 새뮤얼 샌더스(피아노)

사라사테의 숨겨진 명곡들이 천재 소녀의 연주로 새로운 생명을 얻다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첼 바튼은 10대 후반에 1992년에 크라이슬러 콩쿨과 시게티 콩쿨, 퀸엘리자베스 콩쿨 등에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 음반은 이를 기념하여 제작된 것으로, 그녀는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히는 사라사테의 작품들을 선택했다. 바튼은 대표적인 〈카르멘 환상곡〉 이외에, 여덟 개의 스페인 댄스 등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수록했다. 그녀는 이 화려한 명곡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일까? 이 곡들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 10대 소녀의 환상적인 연주를 들어보라!

표지사진

래틀과 베를린 필의 브람스 교향곡 전집
180g 6LPs

〈아울로스뉴스〉 2016년 12월호
통권 제 69호 발행 2016년 12월 15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